

古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再編과 韓日關係

— 7~9세기 —

노태돈(盧泰敦)

序論	2. 新羅와 日本의 相互認識 : ‘隣國’과 ‘蕃國’의 同床異夢
제1장 三國統一戰爭期 三國과 倭(日本)의 關係	제2절 8世紀 新羅와 日本의 關係
제1절 隋·唐帝國의 膨脹과 高句麗·百濟·新羅·倭의 對應	1. 渤海의 發興에 따른 國際情勢의 變動
1. 高句麗·隋 戰爭	2. 新羅·日本 間의 外交 紛爭
2. 645年 高句麗와 唐의 戰爭	제3장 7~9世紀 韓日 間의 文化 交流
3. 新羅·唐 同盟 對 高句麗·百濟·倭 連繫의 形成	제1절 律令文化의 交流
제2절 百濟의 滅亡과 百濟復興戰爭	1. 三國의 律令
1. 百濟의 滅亡	2. 古代 韓日 間 律令文化의 交流 事例
2. 周留城 攻略戰와 白江口 戰鬪	제2절 佛教文化의 交流
3. 百濟復興戰爭 以後 各國의 動向	1. 僧侶와 制度의 交流
제3절 高句麗 滅亡	2. 佛教 典籍의 交流
제4절 新羅·唐 戰爭과 新羅·倭(日本) 關係	3. 8世紀 終盤 以後의 樣相
1. 新羅·倭 國交 再開와 新羅·唐 開戰	제4장 8世紀 渤海·日本 關係
2. 新羅·唐 戰爭의 推移와 新羅·日本 關係	제1절 727年 渤海와 日本 間의 國交 樹立
제2장 7世紀 終盤~8世紀代의 新羅·日本 關係	제2절 8世紀 中葉 日本의 新羅 征伐計劃과 渤海의 對應
제1절 676年 以後 新羅와 日本의 關係	제3절 8世紀 末 渤海·日本 間의 外交儀禮를 둘러싼 葛藤
1. 新羅와 唐의 關係	結論

【國文抄錄】

7~9세기 한일관계사를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고대 한일관계사 전개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인 白(村)江口 전투에 대해 살폈

다. 백강구 전투는 해전인데, 신·당 동맹군의 해군은 그 주력이 당군이였다. 그래서 이 전투를, 나아가 백제부흥전쟁을 당군과 왜군의 대결로 파악하고, 신라군은 부수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그간 일본학계의 기본적인 인식이었다.

그런데 실제 당시 전쟁 상황을 보면, 백강구 전투는 663년 8월에 있는 백제부흥군의 본거지인 주류성 공략전의 일환으로 벌어졌던 싸움이었다. 이 때 주된 전장은 周留城이었으며, 신·당 동맹군에 의한 주류성 공략전의 주력은 육군이었고, 그 중심은 신라군이였다.

백강구 전투에 대한 이해에서 신라군의 존재를 홀시한 것은 《日本書紀》의 시각에 의존한 데서 비롯하였다. ‘부수적이고 약한 신라’라는 그릇된 인식은 그 뒤 신라와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주었다.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직전 신라는 일본과 극적인 화해를 하고 양국 간에는 국교가 재개되었다. 이후 7세기 말까지 신라와 일본은 당과의 교섭을 사실상 두절할 채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하지만 양국이 상대방을 각각 隣國과 蕃國으로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겉으로는 빈번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그 이면에는 갈등 요소가 짙게 깔려있었다. 8세기 초 발해가 발흥하고, 신라와 일본이 당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등의 새로운 국제관계가 전개됨에 따라, 그간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양국 간에 외교적 마찰이 벌어지고 긴장이 조성되었으며, 마침내 8세기 후반 단교로 이어졌다. 양국 관계가 이런 사태로 나아가게 된 객관적 배경과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한편 7세기 대 이래로 한국의 고대국가들과 일본과의 사이에는 긴밀한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불교문화와 율령문화에서 그런 면을 살펴보았다. 전자의 문화가 후자에 짙은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해와 일본의 교섭 관계에서 초기에는 발해가 군사적 목적으로 일본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734년에 있는 발해와 신라·당 간의 전쟁이 종결된 이후 발해는 현상 유지에 주력하였고, 上京으로 遷都한 무렵에 터진 安祿山의 난 이후에도 그러하였다. 그에 따라 발해는 760년대 초에 일본이 추진한 신라를 남북에서 협공하려는 침공계획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일본과의 교섭에서 발해가 추구한 주된 목적은 상업적 이익이었다.

주제어 : 白(村)江口 戰鬪, 周留城, 律令, 隣國, 蕃國, 佛教文化, 新羅侵攻計劃, 上京, 遷都

序論

7~9세기 한일관계는 당시 양국 역사의 전개에 큰 작용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양국인들의 상대에 대한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7~9세기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양국의 학인들이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 학자들 간에 이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나, 그간 연구에서 소홀하였던 주요 문제들을 중심으로 7~9세기 한일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검토할 대상은 다음의 주제들이다.

먼저 663년에 있었던 백(倭)강구 전투를 위시한 백제부흥전쟁을 중심으로 그 전후 시기의 한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 한일관계사의 전개과정에서 백제부흥전쟁은 분수령을 이루었다. 그간 일본학계에서 이 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역사에 대한 정치한 연구가 행해져왔지만, 다분히 일본사의 맥락에서만 고찰하였던 면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日本書紀의 관점에 입각한 이해에 치중하였고, 그에 따라 정작 이 전쟁의 당사국인 신라를 부수적인 존재로 보는 편향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개설서나 교과서 등에서 대부분 백강구 전투를 도외시하는데, 이 역시 편향된 역사인식이라 하겠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백강구 전투를 위시한 백제 부흥전쟁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신라가 당과 대립하던 시기의 신라·일본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직접적인 무력 상쟁을 벌이던 시기는 물론이고, 676년 이후 신라가 당과 이면적인 대립을 지속하던 시기에, 신·일 관계는 신·당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움직였다. 이 면에 대한 이해는 곧 이 시기 신·일관계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중시하여,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의 신·일관계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시기 양국관계의 전개 양상과 양국 조정이 상대국에 대해 지녔던 상이한 인식 및 그것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외교적 갈등과 마찰을 일으켜 마침내 8세기 중반 국교 단절로 이어지게 된 과정을 고찰해보려 한다.

7세기에서 8세기에 걸치는 시기에 한반도의 고대국가들과 일본열도의 국가 간에 대립과 상쟁 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행해졌다. 그것은 양국인 간에 깊은 상호 문화적 연대감을 지닐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 바이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해선 활발히 연구되지 못하였고, 상대적으로 홀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올림문화와 불교문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 한일 간의 올림문화 교류에 대

한 연구가 그간 자료의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쳐 왔는데, 최근 한국에서 木簡 자료가 속속 발굴되어 나와, 이 방면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해주고 있다. 불교문화의 경우도, 일본에 전해지고 있는 고대 한국인들의 저술이 확인되고 있어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런 면을 활용하여 7~8세기 양측 간 문화교류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마지막으로 8세기 중엽 일본 조정이 세운 신라 침공 계획을 둘러싸고 벌어진 발해와 일본 간의 교섭을 중심으로 해서, 8世紀代 발해와 일본 간의 교섭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제기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부족한 면이 많을 줄 안다. 諸賢의 많은 指摘을 바란다.

제1장 三國統一戰爭期 三國과 倭(日本)의 關係

제1절 隋·唐帝國의 膨脹과 高句麗·百濟·新羅·倭의 對應

1. 高句麗·隋 戰爭

隋帝國이 대륙을 제패하자, 기존(5~6세기)의 勢力均衡的인 國際情勢는 무너졌다. 남조의 陳이 멸망하자 고구려는 곧바로 拒守之策을 강구하였다. 이어 契丹, 靺鞨 등의 種族에 대한 支配權을 둘러싸고 高句麗와 隋 간에는 紛爭이 발발하였으며, 598년 兩國 간에 戰端이 열렸다. 그것은 4차례 隋軍의 侵攻으로 구체화되었고, 隋의 敗北로 一段落되었다.

이 시기 百濟는 겉으로는 隋帝國에 呼應하였으나, 실제로는 兩端을 보며 中立的 姿勢를 취하였다. 高句麗와 百濟의 壓迫을 받고 있던 新羅는 隋에 請兵하였다. 그러나 實際的인 戰爭 介入은 없었다. 倭國 또한 隋와 通交하고, 自國을 ‘天子國’으로 自負하기도 했지만, 高·隋戰爭에 實際적인 介入은 하지 않았다. 高句麗는 隋와의 戰爭期間 중 北方의 突厥과의 連結을 圖謀하였으나, 구체적인 成果를 남지 못하였다. 그 외에 高句麗가 新羅나 百濟 및 倭와 軍事 同盟을 추구한 痕迹은 確認되지 않는다.

隋帝國의 膨脹은 隋의 存立期間이 짧았고, 또 그 軍事力이 遼河 線에서 高句麗에 의해 沮止되었기 때문에, 그 波動이 遼河 以東으로 直接的으로 깊이 波及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7세기 초 이후 新羅에선 縣이 設置되는¹⁾ 등 地方 行政組織의 擴充이 進行되었으

며, 村落社會 內部에까지 中央政府의 支配力이 浸透하여 村落民으로 構成된 法幢軍團이 편성되었다. 新羅의 主要 軍事力인 6停의 하나인 軍師幢이 眞平王 26년(604)에 조직되었다. 軍師幢에선 村主級의 地方 有力者인 軍師가 자신의 影響力 아래에 있는 村落民으로 조직한 部隊를 이끌고 中央官인 軍師幢主의 指揮 하에서 下級 武官으로 복무하였다. 三國 간 抗爭의 激화와 隋帝國의 膨脹에 따른 軍事的 危機 狀況은 人力과 物資에 대한 動員力의 極大化를 要求하였고, 그것은 中央集權化의 進展을 促進시켰다. 百濟에서도 비슷한 狀況을 想定할 수 있겠다.

2. 645年 高句麗와 唐의 戰爭

隋帝國의 滅亡 以後 混亂에 빠진 中國大陸을 唐이 再次 統一한 뒤, 唐 中心의 一元的인 世界秩序 構築을 指向하여 對外的 膨脹을 持續하였다. 唐은 周邊 國家와 種族들을 征服하여 이들의 羈縻州化를 追求하였다.

唐이 628년 突厥의 突利可汗을 擊破하고 蒙古高原을 制壓하자 동부 내몽고 일대의 契丹, 奚 등의 유목민들이 당에 服屬하였다. 고구려의 서북부 국경 일대가 당의 세력 앞에 전면적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이에 631년 2월 고구려는 千里長城을 築造하기 始作하였다. 그러자 이 해 7월에 唐은 官人을 파견하여 隋와의 전쟁 뒤 高句麗가 遼西地域에 세웠던 景觀을 파괴하여,²⁾ 反應을 나타내었다. 이 景觀은 고구려 침공 때 죽은 隋軍의 屍體를 모아 쌓고 그 위에 흙을 덮은 것으로, 고구려에게는 일종의 戰勝記念物의 性格을 지닌 것이었다. 물론 唐 朝廷은 이후에도 隋 末의 戰亂으로 죽은 이들의 白骨을 수습하고 唐 領域 내의 各地에 있던 景觀을 없애는 작업을 행하였다.³⁾ 그런 면에서 요서 지역 景觀의 破壞도 그 일환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요서 지역에 있는 고구려가 세운 경관을 파괴하는 조치는 명백히 고구려에 대한 威脅이며 挑發이었다. 이에 兩國 간에는 緊張이 高潮되었으나, 아직 流動的인 中央아시아 地域의 情勢로 인해 直接的인 衝突은 뒤로 미루어지고, 당과 고구려 간의 不安한 平和가 당분간 維持되었다.

그러던 중 唐은 640년 高昌國을 滅하고 郡縣을 설치한⁴⁾ 뒤, 641년 5월 兵部郎中 陳大

1) 金昌錫, 2007 <新羅 縣制의 成立과 機能> 《韓國古代史研究》 48

2) 《舊唐書》 3, 太宗 貞觀 5년 8월 甲辰

3) 《唐大詔令集》 114, 貞觀 5년 2월, “剗削景觀詔”; 貞觀 19년 4월, “收葬隋朝征遼軍士骸骨詔”
[《唐大詔令集 卷5(中華文史叢書 1)》 (華文書局, 臺灣)]

德을 고구려에 派遣하였다. 고창국의 멸망 소식을 접한 고구려의 上下에선 戰爭에 대한 危機意識이 高潮되었고, 對唐 政策을 둘러싸고 貴族 간의 葛藤이 激化되었다. 陳大德의 報告를 받은 唐 太宗은 고구려에 대한 侵攻 意志를 분명히 하였다.⁵⁾

한편 이 해(641) 3월에 百濟에선 義慈王이 卽位하였다. 이어 11월에는 큰 규모의 政變이 있었고, 이를 통해 의자왕은 王權 強化를 도모하였다. 나아가 이듬해인 642년 여름 신라를 공격하여 大耶城 등 40여 성을 빼앗았다. 10월에는 高句麗에서 大規模 流血政變을 통해 淵蓋蘇文이 執權하였다. 이 해 末, 百濟의 攻擊을 받아 窮地에 처한 新羅에서는 金春秋가 平壤行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淵蓋蘇文과 金春秋의 평양성 談判은 無爲로 끝났다. 신라의 평화 제의를 연개소문이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집권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외 강경책을 추구하였다. 이는 이후 兩國 關係에서 하나의 分水嶺이 되었다.

643년, 高句麗와 百濟는 協力하여 新羅에 대한 攻擊을 圖謀하였다. 이에 新羅는 唐에 請兵을 거듭하였다. 고구려 침공의 기회를 노리던 唐은 일단 外交的 壓力을 가했으나, 高句麗가 拒否하자 644년 高句麗 攻擊을 위한 動員에 들어갔다. 그리고 645년 2월 新羅와 百濟에 使臣을 보내어 對高句麗戰에 參戰할 것을 促求하며, 참전한 병력은 唐의 海軍 司令官인 大總管 張亮의 指揮를 받을 것을 要求하였다.⁶⁾

대략 20萬 以上으로 算定되는⁷⁾ 唐軍은 645년 봄 고구려 침공에서 初盤戰에서는 승리할 거두었다. 이 해 5월 3만의 新羅軍이 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신라군의 北進을 틈타 百濟軍이 東으로 新羅를 攻擊하자, 신라군이 급히 後退하여 歸還하였다.⁸⁾ 이제 고구려와 당의 대결에 따른 戰火가 韓半島 內에까지 擴散되었다.

한편 이 해 6월 倭國에서 政變이 일어나, 執權貴族인 蘇我氏 세력이 제거되고, 中大兄 王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勢力이 執權하였고, 이어 大化改新이 단행되었다. 이 政變에는 蘇我氏 세력의 專橫이라는 對內的 要素 외에도, 高句麗와 唐 간의 戰爭에 따른 緊迫한 國際情勢와 渡唐留學生을 통한 새로운 文物에 대한 知識이, 倭國 朝廷의 上下에게 새로운 變化를 追求하는 改革의 必要性을 切感케 하는 要素로 作用하였던 것 같다.

요동 전선은 安市城 郊外の 會戰에서 唐軍이 大勝을 거두고, 安市城 包圍戰이 시작되

4) 《資治通鑑》 195, 唐 太宗 貞觀 14년 9월조

5) 《資治通鑑》 195 唐 太宗 貞觀 15년 8월 己亥

6) 《文館詞林》 364, “貞觀中撫慰百濟王詔”, “貞觀中撫慰新羅王詔”

7) 盧泰敦, 2009 《三國統一戰爭史》 (서울대학교출판부) 82, 94

8) 《三國史記》 新羅本紀 善德王 14년 5월

었다. 그러나 안시성을 둘러싼 공방전은 長期化되었고, 그와 함께 점차 高句麗軍의 戰列이 再整備되어 갔다. 그런 가운데서 가을철이 깊어지고, 북방의 遊牧民 國家인 薛延陀와 高句麗 간의 同盟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具體化되자,⁹⁾ 唐軍은 마침내 9월 말 撤收하였다.

3. 新羅·唐 同盟 對 高句麗·百濟·倭 連繫의 形成

(1) 戰後 各國의 動向

① 高句麗

對唐 防禦에 對外關係의 焦點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唐을 側面에서 威脅할 수 있는 勢力과의 同盟을 摸索하였는데, 몽골고원의 유목민 집단이 당에 굴복함에 따라 더 서쪽으로 나가 교섭 대상을 찾았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시 교외에 있는 아프라시얏 宮殿遺跡에서 발견된 宮殿 壁畫에 그려져 있는 高句麗人으로 여겨지는 두 명의 鳥羽冠을 쓴 使節의 모습은¹⁰⁾ 그러한 高구려 조정의 切迫한 努力의 한 證據이다. 그리고 645년 敗戰以後 唐의 勢力이 萎縮됨을 이용해 다시 遼河 上流地域으로 세력을 뻗치어, 契丹族을 둘러싸고 唐과 角逐을 벌였고,¹¹⁾ 한편으로는 新羅를 牽制하기 위해 百濟와의 結束을 強化하고, 倭國과의 交流에 힘을 쏟았다.

② 唐

646년 薛延陀를 攻撃하여 服屬시킨 뒤, 高구려에 대해 小規模 兵力을 수시로 投入하여 치고 빠지는 長期 消耗戰을 진행하여 高句麗를 疲弊하게 할 것을 도모하였다. 그런 뒤 다시 高句麗를 大規模 侵攻하는 方策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唐軍이 지닌 긴 補給線의 弱點을 補完하고 高句麗의 防禦力을 分散시키기 위해, 高句麗 南部에 第2戰線을 構築하

9) 《新唐書》 高麗傳

10) L. I. Alibaum, 1975 *Zivopisi Afraciaba*, Tashikent, 75 ; 穴澤和光·馬目順一, 1976 <アフラムヤブ都城址出土壁畫に見られる朝鮮人使節について> 《朝鮮學報》 80 ; 金元龍, 1976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얏 宮殿壁畫의 使節圖> 《考古美術》 129·130 ; 1984 <古代韓國과 西域> 《美術資料》 34 ; 박진욱, 1988 <조선 사마르칸트 아흐라샤브 궁전지 벽화의 高구려 사절도에 대하여> 《조선고고 연구》 1988년 3기 ; 노태돈, 1989 <高句麗·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관한 研究> 《大東文化研究》 23 ; 1999 《高구려사연구》 (사계절) 재수록.

11) 《舊唐書》 77, 韋挺 子 待價傳 ; 盧泰敦 《위 책》 118~119

는 것에 留意하였다. 따라서 자연히 新羅의 戰略的 位置에 새삼 注目하게 되었다.

③百濟

高句麗·唐 戰爭에서 實際 行動으로 高句麗를 지원하였다. 唐과 高句麗의 戰爭은, 隋와 高句麗의 戰爭이 그러하였듯, 後者에 勝算이 있다고 判斷하였던 것이다. 이번에도 645년 戰爭의 結果가 그러하였던 만큼,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確信하고, 戰後에도 해를 이어 新羅를 공격하였으며, 高句麗 및 倭와의, 특히 후자와의 友好關係 維持에 注力하였다.¹²⁾ 하지만 唐과의 關係 破綻은 피하려 하여, 表面的으로는 朝貢 關係를 維持하였다. 그러나 이미 對外政策의 基本 方向을 百濟는 選擇하였으며, 그 점을 新羅와 唐은 익히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신라와 당의 對應만 남아있는 狀況이 되었다.

④新羅

唐의 東進이 沮止된 상황에서 신라는 高句麗와 百濟의 挾攻에 시달리는 형편이었으며, 百濟와 連結된 倭의 動向도 憂慮의 對象이었다. 아울러 신라 내부에선 645년 전쟁에 직접 參전하였다가 실패로 끝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조정 내에서 있었던 것 같고,¹³⁾ 後嗣가 없는 여왕의 후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어 646년 9월 왜국이 高 向玄里를 신라에 倂呑하여 양국 간의 懸案을 논의하기 위해 ‘質’의 倂呑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안팎의 난제가 중첩된 상황에서 647년 正初, 首都에서 ‘女主不能善理’를 내세운 昆蟲의 亂이 勃發하였다. 亂은 貴族會議 勢力 對 金春秋·金庾信 勢力의 對決로, 後者의 勝利로 종결되었다. 새로 翁립된 眞德女王 하에서 金春秋·金庾信 勢力이 政局의 主導權을 잡았고, 이후 中央集權化가 급속히 推進되었다. 對內的인 問題가 한 단락이 지워진 후, 對外的 危機 局面을 打開하기 위해, 倭國의 要請에 應해 647년 金春秋가 倭國에 倂呑 되었다. 兩國 간의 關係 改善을 追求하고, 倭와 唐 간의 通交를 위한 新羅의 仲介 役割도 論議되었는 듯하다.¹⁴⁾ 金春秋로선 倭國을 親新羅·唐으로 旋回할 수 있도록 努力하였을

12)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 13년 8월조에 “王與倭國通好”라 한 것은 그런 면을 나타낸다.
13) 선덕여왕 14년(645) 11월 水品을 교제하여 비담을 상대등으로 삼은 것은 이 해 5월에 행한 고구려 공격의 실패에 대한 귀족층들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이었다고 여겨진다(《三國史記》 5, 선덕여왕 14년 11월조). 朱甫墩, 1993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 內政> 《韓國學論集》 20
14) 《舊唐書》 倭傳. 648년 신라 사신이 3차례 당에 倂呑되었는데, 그 중 한 사신을 통해 倭國이 唐 에 國書를 전달하였다(附新羅奉表 以通起居). 이런 일이 前年 왜국을 방문하였던 金春秋와 倭國 關係者 間に 論議되었을 수 있다. 적어도 新羅가 積極的으로 唐과 倭國 간의 關係改善에 一定한 役割을 하였음은 확인할 수 있다.

것이다. 그러나 양국 간의 협의는 별다른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648년 金春秋는 새로운 突破口를 찾기 위해 唐으로 건너 갔다.

⑤倭國

645년 이후 改新政權은 對外政策에서 새로운 摸索을 하였다. 新政權이 親百濟的이었던 蘇我氏 勢力을 打倒하고 執權하였으며, 渡唐留學生 출신으로서 新羅를 거쳐 歸國하였던 高向玄理와 僧 旻 등이 國博士가 되어 改新政權의 브레인으로서 參與하였던 사실 등은 政策 方向을 둘러싸고 새로운 摸索을 할 수 있는 客觀的 條件이 되었다. 이런 摸索의 一環으로 646년 9월 新羅에 高向玄理를 派遣하여 ‘質’의, 사실은 高位 貴族의 派遣을 要請하였다. 그에 응해 647년 金春秋가 渡倭하였다.¹⁵⁾ 이 때 양국관계와 그리고 唐과 倭의 國交 再開 등을 포함한 여러 懸案을 둘러싼 意見交換이 있었던 같다. 특히 後者에 대해 新羅의 役割이 論議되었던 것 같다. 이는 648년 唐에 파견된 新羅使를 통해 倭의 國書가 傳達된 사실, 金春秋를 이어 649년 倭에 金多遂가 派遣되었던 事實 등을 통해서 推測할 수 있는 바이다. 金多遂는 644년 唐에 使臣으로 派遣되었다가, 新羅의 對高句麗戰 參戰을 要求하는 唐太宗의 璽書를 받아 歸國하였던 일이 있다. 이 시점에 新羅와 唐의 對外關係에 깊은 理解를 지녔을 수 있는 金多遂를 倭國에 派遣한 것은 곧 倭國을 新羅-唐 路線에 끌어들이려는 신라의 意圖를 담은 措處였다.

아무튼 倭國은 653년과 654년 唐에 使臣을 파견하였다. 654년의 경우 新羅道를 통해 派遣되었다. 이 654년의 遣唐使가 귀국하는 편에 新羅를 支援하라는 唐 高宗의 詔書를 받았다. 그러나 倭國은 별다른 反應을 보이지 않았다. 改新政權은 對外政策에서 새로운 摸索을 하였지만, 급격한 政策 變化를 나타내지 않았다. 新羅와 百濟 중 어느 한 편에 一방적으로 左袒하지 않고, 兩國이 倭國을 大國으로 여겨 서로 競爭的으로 倭國과 交流하려는 것을¹⁶⁾ 보며, 情勢를 觀望하는 姿勢를 持續하였다.

(2) 新羅·唐의 軍事同盟 成立

①唐

649년 唐 太宗 李世民이 죽음으로써, 그가 계획하였던 高句麗 遠征 計劃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唐의 東北方 政策의 最大 目標가 高句麗의 滅亡임은 여전하였다. 그런데 長期

15) 《日本書紀》 25, 孝德紀 大化 2년 9월조, 3년 是歲條

16) 《隋書》 倭國傳

戰이 要望되는 대고구려전의 遂行을 위해선 두 가지 條件의 解決이 必要하였다. 하나는 西方 中央아시아 地域에서 唐의 支配力 確立이고, 다른 하나는 東北方에서 高句麗에 대한 挾攻과 軍糧 조달을 해줄 수 있는 同盟勢力의 確保였다. 唐 太宗은 죽기 전 해에 당에 온 金春秋와 만나 논의하여, 新羅와 具體的인 軍事同盟을 맺었다. 이는 唐 高宗에 의해서 繼承되었다. 對高句麗戰에서 新羅의 積極的인 參與와 活動을 위해서, 新羅軍의 움직임을 牽制하는 百濟의 滅亡을 먼저 도모한다는데 양국이 同意하였던 같다. 아울러 新羅의 背後에 있는 倭를 牽制할 必要性이 있었다. 新羅가 倭와의 關係를 改善하려는 努力을 繼續한 것이나, 654년 唐 高宗이 倭의 사신 편에 보낸 詔書에서 新羅를 支援할 것을 要求한 것은 그러한 면을 나타낸다. 이런 가운데서 蘇定方이 이끈 唐軍이 657년에서 659년 사이 中央아시아 方面에서 西突厥을 完全 制壓하였다.¹⁷⁾ 이에 당은 660년 蘇定方을 司令官으로 百濟 侵攻을 敢行하였다.

②新羅

648년 金春秋가 唐으로 건너가 李世民과 新·唐 軍事同盟을 맺었다. 이후 新羅는 기존의 獨自的인 年號를 폐지하고 唐의 年號를 채택하였으며, 아울러 官服도 당의 것을 채택하는 등 급속한 親唐 政策을 推進하였다. 한편 650년에서 656년까지 新羅는 每年 倭國에 使臣을 派遣하여, 關係改善을 追求하였으며, 倭를 新羅-唐 軸으로 끌어들이려 努力하였다. 하지만 倭國의 反應이 여의치 않자, 651년에는 唐式의 官服을 입은 新羅 使臣을 倭國에 파견하여, 唐과 新羅의 結束을 誇示하는 衝擊 療法을 驅使해 倭國과의 關係에 突破口를 마련하려는 試圖을 하기도 하였다.¹⁸⁾ 653년에는 倭國이 제2차 遣唐使를 파견하였으며, 654년에는 제3차 遣唐使를 派遣하였다. 後者は 新羅道를 거쳐 山東반도의 萊州로 건너갔다. 즉 신라의 協助를 얻어 파견한 것이다. 이는 倭와 關係改善을 하려는 新羅의 政策的 意圖와 無關한 것은 아닐 것이다.¹⁹⁾

그러나 倭와의 關係進展을 더 이상 期待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이상의 교접 시도는 對 百濟戰 準備에 阻害가 될 수 있다고 判斷함에 따라, 신라는 657년 倭의 遣唐使와 留學生이 新羅를 거쳐 唐으로 가려는 것을 되돌려 보냄으로써, 倭와의 關係를 사실상 斷切하는 措處를 취하였다.

17) 《舊唐書》 83, 蘇定方傳

18) 《日本書紀》 25, 白雉 2년 是歲條

19) 井上光貞, 1973 <大化改新と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歷史 2》(岩波書店)

③百濟

651년 唐 高宗이 百濟 使臣에게 新羅와의 友好關係를 當부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당이 直接 介入할 것임을 通報하였다. 그러나 百濟는 新羅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여 이에 대한 拒否意思를 表明하였다. 百濟는 652년을 끝으로 이후 唐에 대한 使臣 派遣을 中斷 하였으며, 반면에 650년부터 656년까지 每年 倭에 使臣을 派遣하여 倭와의 關係에 크게 依存하는 政策을 취하였다.²⁰⁾ 즉 高句麗-百濟-倭를 連結하는 協力 路線을 표명하였다. 당이 공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百濟는 想像力 貧困으로 海路를 통한 侵攻 可能性에 대한 별다른 對應策을 講究치 않았다.

④倭國

大化改新 이후에도 既存의 百濟와의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新羅와의 關係를 維持하였고 唐과의 關係 改善도 도모하였다. 651년 唐服을 着用한 新羅 使臣에 대해 接見을 拒否하고 激한 反應을 보였지만, 倭는 분명하게 新羅-唐 軸과 高句麗-百濟 軸 중 어느 한편에 左袒하러 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堅持하였다. 이는 實際에 있어 後者에 기울어져 왔던 既存의 立場을 維持한 것이 되었다. 659년 唐에 파견된 倭國 使가 歸國하러 하자, 機密 漏泄을 우려한 唐이 이들을 對百濟戰이 終結될 때까지 抑留하는 狀況이 일어났음에서 보듯, 왜국은 상대적으로 國際情勢에 無心한 면을 露出하였다.

제2절 百濟의 滅亡과 百濟復興戰爭

1. 百濟의 滅亡

660년 7월 新羅·唐 동맹군은 水陸 兩面으로 百濟를 공격하여, 단기간의 전투 끝에 泗沘城과 熊津城을 陷落하고, 百濟를 멸망시켰다. 곧 이어 9월 초, 당군 1만과 新羅군 7천을 주둔시키고, 양군의 주력은 百濟로부터 철수하였다. 수도권이 공략되었지만, 그 외 지역의 百濟 軍事力量은 保存되어 있어, 泗沘城 陷落 直後부터 각지에서 百濟復興運動이 전개되었다. 초기의 유력한 움직임은 任存城(忠南 禮山 大興山城)을 중심으로 한 抵抗이 있었다. 당군과 新羅군은 수차례 이들 百濟復興軍을 공격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점차

20) 註 12)와 同

각지의 부흥운동 세력이 연합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중심 인물로 福信이 두각을 나타내었다. 복신은 660년 10월 왜국에 청병하고, 扶餘豊을 王으로 擁立하려 한다며 그의 歸還을 要請하였다. 이에 왜국은 백제부흥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한편 당과 신라는 百濟復興運動에 대해 적극적인 對應을 하지 않은 채, 백제를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高句麗 攻滅戰에 착수하였다. 당은 660년 12월 高句麗 遠征을 선언하고, 661년 1월부터 動員에 들어갔다.

한편 고구려는 658~9년에 걸친 唐의 요동 방면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견제로, 660년에 있었던 신·당군에 의한 百濟 攻滅戰에 별다른 對應을 하지 못하였다.²¹⁾ 이어 661년 唐軍은 百濟 攻滅戰처럼 水陸 兩 方面으로 대거 高句麗 侵攻을 감행하였고, 신라군 역시 이에 동참하였다. 이 전쟁은 662년까지 전개되었다. 자연 신라군과 당군은 백제부흥군을 공략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백제부흥군은 軍事的·時間的 餘裕를 가지게 되었고, 나아가 唐의 駐留軍과 新羅軍의 攻擊을 阻止하면서 錦江 以南 地域으로 세력을 擴大하였다. 倭國은 高句麗를 支援하겠다는 意志를 表明하였으나²²⁾ 實際的 介入은 못하였고, 百濟復興軍 지원에 集中하였다.

2. 周留城 攻略戰과 白江口 戰鬪

백제부흥군은 661년 3월 경 周留城으로 중심지를 옮겼으며,²³⁾ 당의 駐屯軍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였다. 그리고 661년 9월 扶餘豊이 귀국하여 백제왕위에 취임하였고, 이 때 倭軍 5千이 그를 옹위하여 백제에 도착하였다. 왜국은 662년 정월 다량의 화살 등 물자를 지원하였다. 이어 扶餘豊은 중심지를 周留城에서 금강 남쪽의 避城(全北 金提)으로 옮겼다. 避城은 平野地帶로, 이곳으로의 遷都는 長期的으로는 부흥군 세력 기반의 확대에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防禦에 脆弱한 점이 지적되어 반대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1) 高句麗軍이 660년 11월 1일 臨津江 기슭 新羅 七重城에 대한 공격을 하였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武烈王 7年 11月 1日) 이는 때늦은 대응이라 하겠는데, 658~9년에 걸친 당군의 요동 공격으로, 당의 진정한 군사적 의도를 파악치 못한 채 방어책에 치중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 전투 역시 단기적인 것이었고, 이어 당군의 대규모 침공으로 南顧할 여력이 없었다.

22) 《日本書紀》 27, 天智 元年 3월조

23) 복신은 661년 3월에 있었던 신라군의 주류성 공격을 격퇴하였고, 그 세력을 금강 남쪽으로 확대하였다. 이 무렵에 중심지를 주류성에 두었던 것 같다.

《三國史記》 文武王 11년조, ‘答薛仁貴書’ “熊津請兵 日夕相繼 新羅多有疫病 不可徵發兵馬 苦請難違 遂發兵衆 往圍周留城 賊知兵小 遂即來打 大損兵馬 失利而歸 南方諸城 一時總叛 并屬福.”

그러나 이를 강행하였는데, 그 후 新羅軍이 인근까지 壓迫을 가해오자, 백제부흥군은 다시 周留城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이후 정치적 기반을 달리하였던 扶餘豊과 福信 간의 軋轢과 對立이 심해졌다.²⁴⁾

백제부흥군은 신라군의 공세에 직면하자 倭國에 援兵을 要請하였고, 倭國은 663년 3월 2차 원병으로 2萬 7千을 派遣하여 新羅를 攻擊케 하였다. 악화되는 주변 상황 속에서 福信과 扶餘豊 간의 葛藤이 激化되어, 이 해 6월 마침내 扶餘豊이 福信을 處刑하는 사태에 이르렀다.²⁵⁾ 이런 상황 전개는 復興軍 내부의 결속을 크게 약화시켰고, 이런 百濟復興軍의 內紛을 포착한 신라군과 당군은 이를 好機로 삼아 攻勢를 展開하였다.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扶餘豊은 高句麗와 倭國에 救援을 要請하였다.

이 때 熊津城에 주둔하고 있던 唐軍은 孫仁師가 이끄는 7천명의 支援軍을 맞이하여 사기가 한껏 올랐다. 孫仁師의 부대는 山東 海岸地域 出身이며, 다수가 海軍으로 여겨진다. 신라의 문무왕이 28명의 將帥와 大兵을 이끌고 熊津城에 合流하였다. 웅진성에서 열린 戰略會議에서 周留城을 향해 두 방향으로 進軍하기로 하였다. 陸軍은 周留城으로 향하는 進擊路上에 있는 험준한 加林城(忠南 扶餘郡 臨川面 聖興山城)은 건너뛰고 周留城을 直攻하기로 하고, 海軍은 熊津(江)에서 江을 따라 내려가 白江口로 가 그곳에서 陸軍과 만나기로 하였다. 陸軍이 主力이고 이를 海軍이 補助하는 形勢였다. 그 점은 양 방면군의 將領의 構成에서도 確認된다. 陸軍의 指揮部는 文武王과 新羅 將帥들 그리고 당시 百濟 駐屯 唐軍 司令官인 劉仁願과 孫仁師 등이고, 海軍의 그것은 劉仁軌와 杜爽·扶餘隆 등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劉仁軌는 당의 추가 지원군 사령관인 熊津道 行軍總管 孫仁師 휘하 幕府의 參謀인 行軍長史였으며, 杜爽도 휘하의 別將이었다.²⁶⁾ 육군은 신라군이 중

24) 避城 遷都를 왜국의 지원에 세력 근거를 두었던 부여풍이 주도하였다고 보지 않고, 土着 基盤을 지니고 있던 복신이 長期的인 觀點에서 세력 확대를 추구하기 위해 주도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鈴木英夫, 1997 <百濟復興運動と倭王權-鬼室福信斬首の背景->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 그러나 扶餘豊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日本書紀》 天智 元年 12月の 기사가 전해주는 바에 따라 부여풍이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여풍이 백제부흥운동 초기부터 복신의 세력 근거지였던 주류성 등 금강 이북 지역에서 벗어나, 금강 이남 지역에 새로운 근거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25) 《日本書紀》 天智 2년 6월

26) 劉仁軌가 그 뒤 크게 出世하여 《新·舊唐書》에 立傳되어 있으나,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시기의 劉仁軌에 관한 기록 중에는 여러 곳에서 불확실한 점이 보인다. 그 점과 그와 劉仁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拜根興, 2003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152~160 참조. 백제부흥군을 진압한 뒤 세워진 것이 “劉仁願 紀功碑”였다는 사실은 당시 당군의 總帥가 劉仁願이었음을 말해준다.

심이었고, 해군은 당군이 주력이었다. 海軍은 白江 河口로 陸軍에 소요되는 軍糧을 運送하고, 白江口를 방어하여 바다에서 오는 援兵(倭兵)을 沮止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듯하다.

陸軍은 먼저 豆良尹城(忠南 靑陽郡 定山面 鷄峯山城)을 攻略한 뒤, 8월 13일 周留城에 도착하였다. 마침 倭의 支援軍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여풍은 일부 倭軍과 復興軍을 끌고 8월 13일 白江口 方面으로 이를 맞이하러 갔다.²⁷⁾ 倭의 支援軍과 합류하여 周留城을 공격하는 新·唐軍을 안팎에서 협공하겠다는 목적과 함께, 最惡의 경우 退路를 確保하려는 意圖도 있었을 것이다. 이어 新·唐軍이 17일 周留城을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白江口에 8월 17일 唐의 海軍이 도착하여 陣을 치고 대기하였다. 8월 27일에 倭의 海軍이 도착하였다. 兩側 사이 交戰의 序章은 강 기슭에서 百濟復興軍의 騎兵과 新羅 騎兵 사이에서 벌어졌다. 이윽고 이틀간에 걸쳐 唐과 倭의 海軍 사이에 戰鬪가 전개되었다. 전투는 倭軍의 敗北로 끝났고, 扶餘豊은 高句麗로 달아났다.

白江口 戰鬪의 結果는 戰艦의 性能과 戰術 등에서 보인 兩側 간의 軍事力量의 差異인²⁸⁾ 동시에, 兩側 執權體制의 成熟度 差異가 反映되었다는 解析이 一般的이다.²⁹⁾ 단, 당시 倭軍 兵士의 出身地域이 廣範圍하여 將帥와 兵士의 出身地가 一致하지 않은 사실이라든가,³⁰⁾ 倭軍의 ‘前·中·後軍’體制가 普遍的인 軍隊編制 樣式이라는 점과 ‘大將軍’의 存在를 전하는 記錄 등을 重視하여야 한다는 指摘이 있다. 즉 倭軍의 性格이 지방 유력자의 휘하 軍事力을 糾合해 臨時的으로 編成한 軍隊로서 上下 指揮體系가 確立되어있지 않았다는 解析은 結果論的인 것에 불과하다는 批判이다. 이런 점은 앞으로 더 檢討의 餘地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 왜국이 아직 律令에 입각한 國家體制가 成立되기 전이었다는 점은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白江口戰鬪에 대해 한번쯤 考慮하여야 할 점은 이 戰鬪가 지닌 比重과 그 意義에 대한 理解이다. 백강구전투의 의의를 당시 東아시아 國際情勢를 判가름하는 決定的인 會戰이었다고 이해하려는 시각은 지나친 誇張이라는 사실이다. 이 戰鬪의 主力이 唐軍과 倭軍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意識하여, 마치 뒷날 壬辰倭亂이나 淸日戰爭과 대비하여 古代

27) 《日本書紀》 天智 2年 8월 甲午

28) 卞麟錫, 1994 《白江口戰爭과 百濟·倭 關係》 (한울) 170~185

29) 八木充, 1970 <百濟の役と民衆> 《國史論集》 (小葉田淳教授退官紀念會出版); 鬼頭淸明, 1976 <白村江の戰いと律令制の成立> 《古代日本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158~171; 森公章, 1998 《『白村江』以後》 (講談社) 149~152

30) 森公章, 1992 <朝鮮半島をめぐる唐と倭-白村江 會戰前夜> 《古代を考える 唐と日本》 (吉川弘文館)

中國勢力과 日本勢力이 韓半島에서 雌雄을 決한 戰鬪인 것처럼 認識하려는 것은 實相과 符合하지 않는다. 물론 이 전투가 百濟復興戰爭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다. 그리고 이를 고비로 倭의 勢力이 韓半島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니, 이는 古代 韓日關係史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 이 戰鬪에서의 敗北 以後 日本은 中央集權的 國家體制인 ‘律令體制’를 形成하였던 만큼, 이 戰鬪가 日本史의 展開에 한 단락을 짓는 契機가 되었던 것이 事實이다. 그런 면에서 백강구 전투가 지니는 歷史的 意味는 重視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전투는 당의 입장에서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투는 아니었으며,³¹⁾ 新羅에게도 주된 戰鬪는 아니었다. 戰鬪 規模도 양측 모두 실제 동원한 병력이 각각 萬 數千名 線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였다. 무엇보다 이 해에 벌어진 百濟復興戰爭의 主 戰場이 周留城攻略戰이었다는 사실과 新羅軍의 存在를 忽視하게 되고, 나아가 新羅는 被動的인 存在로 把握하는 歷史 이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그 뒤의 歷史 展開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포위된 周留城은 백강구 전투의 결과가 알려진 후, 9월 7일 降服하였다. 아직 任存城이 저항을 계속하였지만, 이로써 百濟復興戰爭은 사실상 終結되었다.

3. 百濟復興戰爭 以後 各國의 動向

唐의 東方政策의 最優先 課題는 高句麗攻略이었다. 唐은 이를 위해 百濟地域에 대한 安定的인 支配權 確立에 注力하였다. 熊津都督府는 안으로는 戰後 復舊策을 통해 百濟遺民들을 懷柔하여 安定시키려 노력하였으며, 밖으로는 新羅 勢力의 浸透을 阻止하기 위해 新羅王과 熊津都督 扶餘隆의 會盟을 強要하여 實行하였다. 그리고 倭國과 몇 차례 交涉을 試圖하였는데, 이는 倭國을 唐의 勢力 하로 끌어들이려는 목적과 함께 新羅에 대한 牽制策이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서 新羅와 唐 간에는 戰後 百濟 地域의 支配權을 둘러싸고 葛藤이 內燃하였다. 신리는 唐과 倭의 交通에도 疑惑의 눈길을 보냈으나, 이 모든 것을 對高句麗戰 以後로 미루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倭國에선 新羅軍과 唐軍의 日本列島 侵攻 可能性에 대한 憂慮가 高潮되어, 그 對 備策에 腐心하였다. 百濟 遺民들의 助力을 받아 이른바 朝鮮式山城을 西部 日本 各地에

31) 韋蘭春, 2000 <‘白村江의戰’と戰後의唐·日關係>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紀要》 85

築城하였던 것도 그 一環이었다. 唐의 交涉 試圖에 대해서 왜국은 이에 消極的으로 對應 하되, 唐을 刺戟하려 하지 않으면서 情勢의 推移를 注視하는 慎重한 姿勢를 堅持하였다.

高句麗는 백제의 멸망으로 그 戰略的 位置가 크게 弱화되었다. 이런 상황에 처해, 淵蓋蘇文은 後繼 構圖를 具體化하는 作業을 서둘렀다. 그는 일찍부터 아들들에게 兄系 官等을 授與하였는데, 당시 地方長官이나 軍의 各級 部隊長은 兄系 官等を 지닌 이들이 就任하였다. 즉 아들들에게 일찍부터 單位 機關이나 部隊의 指揮官職을 歷任케 하였던 것이다.³²⁾ 그의 長子인 男生은 15세에 中裏小兄, 18세에 中裏大兄, 23세에 中裏位頭大兄, 그 이듬해에 將軍職을 받았으며, 28세에(661년) 莫離支 三軍大將軍, 32세(665년, 寶藏王 24년)에 太莫離支가 되어 軍國의 機務를 總括하였다.³³⁾ 그가 莫離支 三軍大將軍이 된 해가 백제 멸망 이듬해인 661년이었다. 이 해에 연개소문은 男生에게 사실상 軍事權을 대폭 移讓하였던 것이다. 男生은 實際 이 해에 있었던 唐軍의 侵攻에 맞서 鴨綠江 防禦戰을 主導하였다. 그런데 男生의 동생인 男產도 15세에 小兄을 제수받았으며, 18세에 大兄을, 21세에 中裏大活, 23세에 位頭大兄을 받은 뒤 陞差하여 中軍主活을 역임하였고, 30세에 太大莫離支가 되었다.³⁴⁾ 그가 歷任한 中裏大活과 中軍主活은 具體的인 性格을 알 수 없으나, 官等이 아니라 官職으로 여겨진다. 그 역시 軍權을 分占하였던 것이다. 墓誌銘이 전해지지 않는 男建의 경우도 비슷한 過程을 거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연개소문은 아들들에게 軍權을 나누어 주어 자신의 死後 安定的인 權力承繼가 이루어지도록 企圖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內紛을 觸發하는 要素가 되었다.

제3절 高句麗 滅亡

666년 兄弟 간의 權力鬭爭에서 밀려난 男生이 國內城을 근거로 하여 唐에 投降하였다. 絶好의 機會를 포착한 唐은 大兵을 동원하여 高句麗를 侵攻하였다. 오랜 戰亂으로 疲弊해진 狀態에서 最高指揮部에서 일어난 內紛과 投降은 高句麗의 抵抗力을 크게 弱化시켰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高句麗는 倭國에 사신을 보내³⁵⁾ 아마도 請兵을 하였던 듯 하나, 倭國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唐軍에 軍需品을 공급하며 助戰하던 新라는 668년 최종

32) 盧泰敦, 1999 《앞 책》 476~8

33) 朴漢濟, 1992 <泉男生墓誌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493~494

34) 朴漢濟, 1992 <泉男產墓誌銘> 《위 책》 529

35) 《日本書紀》 27, 天智 5년 정월, 7년 7월

적인 平壤城 攻略戰에 文武王이 직접 대군을 끌고 參戰하였다. 이 때 金庾信은 首都에 머물며 後方의 業務를 總括하였다. 마침내 668년 9월 초 平壤城이 陷落되었다.

제4절 新羅·唐 戰爭과 新羅·倭(日本) 關係

1. 新羅·倭 國交 再開와 新羅·唐 開戰

668년 9월 12일 新羅使 金東巖이 倭國에 도착하였다. 이 해는 657년 兩國 간의 國交가 斷切된지 11년 만이며, 平壤城이 陷落되기 直前이었다.³⁶⁾

新羅 朝廷이 金東巖을 倭國에 派遣한 것은 눈앞에 다가온 高구려 멸망 이후 必然적으로 치루어야 할 唐과의 戰爭에 對備기 위해, 背後의 安全을 圖謀하려는 事前 措處였다.³⁷⁾ 新羅 朝廷은 倭國과의 和解와 國交 再開를 희망하였던 것 같고, 高구려 멸망 후 豫想할 수 있는 新·唐軍의 侵攻을 憂慮하던 倭의 朝廷은 이 提議에 友好的인 반응을 보였다. 新羅使를 歡待한 것이나, 倭王 天智와 重臣 中臣鎌足이 文武王과 金庾信에게 각각 배 1隻을 선물하는 등의 反應은 그러한 면을 말해준다. 이 이후 兩國 關係는 급속히 好轉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있는 뒤 新라 조정은 669년 5월 이전에 唐과 開戰하였다. 670년 3월 新羅軍과 高句麗遺民軍의 聯合軍이 鴨綠江 넘어 遼東地域에 共同作戰을 벌였으며, 唐軍이 遼東方面에서의 戰鬥에 注力하는 동안 文武王이 직접 이끈 新羅軍의 主力은 옛 百濟地域의 唐軍에 대한 全面的인 攻擊을 敢行하여 이를 制壓하고, 672년 泗泚城에 所夫里州를 設置하였다. 이에 앞서 670년 寶藏王의 사위이고 淵淨土의 아들인 安勝이 이끈 高句麗遺民集團을 金馬渚에 安置시키고, 安勝을 高句麗王으로 封하였다. 일단 開戰한 뒤, 新羅는 政治·軍事的인 면에서 성공적으로 緒戰을 장식하였다. 그렇게 전쟁이 진행된 데에는 唐이 吐蕃과의 전쟁에 주력하여야 하는 周邊 狀況이 일정하게 작용하였다.³⁸⁾

36) 9월 12일은 《三國史記》에 따르면 평양성이 함락되기 9일 전이며, 《資治通鑑》에 의하면 陷落 當日이다.

37) 松田好弘, 1980 <天智朝の外交について> 《立命館文學》 415·416·417 ; 直木孝次郎, 1985 <近江朝末年における日唐關係の一考察 - 唐使郭務悰の渡來を中心に -> 《末永先生米壽紀念獻呈論文集》 ; 鄭孝雲, 1993 <天智朝 對外關係에 대한 一考察 - 백강구전후의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 《韓國上古史學報》 14 ; 金恩淑, 1996 <百濟復興運動 以後 天智朝의 國際關係> 《日本學》 15 ; 盧泰敦, 1997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 《軍事》 34

이 무렵 倭國은 669년 末唐에, 그리고 670년 9월에는 新羅에 各各使臣을 파견하여, 高句麗 滅亡以後 唐의 對外政策과 新·唐 戰爭의 狀況 등 새로운 情勢의 把握에 주력하였다. 한편 孤立無援에 빠진 熊津都督府는 活路를 찾기 위해 日本³⁹⁾과의 交渉에 힘을 기울여 그 軍援을 얻으려 노력하였다. 671년에는 唐人 官吏를 파견하였을 뿐 아니라, 百濟 遺民集團으로 하여금 日本에 使臣을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미 新·唐 戰爭의 進行 狀況을 알고 있던 日本으로서 唐에 協力하여 新羅와의 戰爭에 介入할 意思는 없었다. 그렇다고 唐에 敵對的인 態度를 굳이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671년 11월 唐人 郭務悰이 이끈 600여명과 百濟人 沙宅孫登 외 1400명 등 2000여명을 태운 대규모 船團이 日本에 왔다. 이들 중 沙宅孫等 외 1400여명은 白江口 戰鬪 때 捕虜가 된 日本人과 百濟人으로 여겨지며,⁴⁰⁾ 이들을 送還하는 대신 軍事援助를 獲得하려는 企圖였던 것 같다. 이 때 마침 天智王이 죽고 繼承紛爭(壬申의 亂)을 거쳐 天武가 즉위하는 王位交替期여서, 해결에 시간을 끌다가 이듬해 日本 조정은 兵力이 아닌 軍需物資를 支給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그러면서 이 해 日本을 방문한 新羅使에게 배 1隻을 주어, 신라에 대한 日本의 우호적 입장을 표시하였다. 郭務悰 一行이 돌아간 이후, 702년 再次 遣唐使를 파견할 때까지 日本과 唐 간의 交渉은 杜絶되었다.

한편 671년에 高句麗使가 日本을 방문하였다. 이 高句麗使는 金馬渚에 있는 安勝의 高

38) 陳寅恪, 1944 <外族盛衰之連環性及外患與內政之關係> 《唐代政治史述論考》(1982, 上海古籍出版社); 黃約瑟, 1997 <武則天與朝鮮半島政局> 《黃約瑟隋唐史論集》; 徐榮教, 2002 <羅唐戰爭과 吐蕃> 《東洋史學研究》 79

39) 왜가 국호를 일본으로 정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선 그간 논의가 분분하였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10년 12월조에, “이 때 처음으로 倭에서 日本으로 국호가 변경하였다. 해가 솟아오르는 곳에 근접해 있어 그렇게 이름 지었다(自言近日所出 以爲名)” 하였다. 만약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이 해 9월에 신라에 파견된 日本 사신 阿曇連類垂를 통해 국호 변경이 신라에 알려졌던 것 같다. 그런데 이 부분의 기사가 《新唐書》 日本傳의 기사와 일치하여, 그것을 전제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秦政明, 2000 <『三國史記』 倭國更號日本の史料批判> 《日本書紀研究》 23). 사실 위의 《三國史記》 기사는 《新唐書》 日本傳의 기사를 전제한 듯하다. 그런데 왜 《三國史記》 찬자가 이 기사를 하필이면 文武王 10년 12월조에 轉載하였을까? 표현 字句는 《新唐書》의 그것을 전제하였지만, 이 기사를 文武王 10년 12월조에 기술한 것은 신라 자체의 전승에 그 해에 무엇인가 이와 연관되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를 압축해서 기술하는데 《新唐書》 日本傳의 기사를 援用한 것은 아닐까? 아무튼 이러한 추정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만큼, 670년에 국호개정이 있었다고 단정키는 어렵다. 다만 이 글에선 잠정적으로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라 670년 12월 이전의 경우는 倭로, 이 이후는 日本으로 표기하겠다. 그리고 천황 칭호의 경우도 그 사용 시점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데, 일단 天武 이후부터는 천황 칭호로 표기하고 그 이전은 왕이라 기술한다.

40) 松田好弘, <앞 논문>; 直木孝次郎, <앞 논문>

句麗였다. 新羅의 愆憑과 支援下에 이루어진 使臣 派遣이었다. 이 이후에도 金馬渚의 고구려국에서 일본으로의 사신 파견은 680년대 초까지 행해졌다. 唐과 新羅는 日本의 向方に 神經을 곤두세우고, 각각 百濟遺民과 高句麗遺民을 동원하여 日本을 자기편에 有利한 쪽으로 이끌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新·唐 간의 開戰으로, 白江口 戰鬪 이후 계속되던 安保 危機에서 벗어난 日本 朝廷으로선 어느 편에 가담하여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고 情勢를 觀望하는 姿勢를 堅持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정세를 적극 활용하여 대내적으로 中央集權의 強化와 體制整備에 拍車를 가하였다.

2. 新羅·唐 戰爭의 推移와 新羅·日本 關係

唐과의 戰爭이 加熱될수록 日本의 動向이 新羅의 安危에 重大한 要素가 되었다. 新羅는 많은 物品을 日本에 보내었다. 그에 비해 日本은 新·唐戰爭 初期에는 신라에 物資를 提供하였으나, 그 뒤 이런 면을 보이지 않았다. 使臣 派遣도 新羅가 더 빈번히 하였다 (<표 1> <표 2>). 이는 보다 다급한 쪽이 新羅였다는 客觀的 狀況에 따른 結果이며, 그에 비해 新·唐戰爭이 되돌릴 수 없게 進展됨에 따라 보다 느긋해진 日本 朝廷의 反應이라 하겠다.

특히 唐軍의 攻勢에 밀려 新羅가 危機에 處했을 때는 더욱 그러하였다. 예컨대 674년 唐이 文武王의 冊封을 취소하고 왕의 동생인 金仁問을 新羅王으로 封한 뒤, 대규모 軍事的 攻勢를 취하자, 新羅는 675년 2월 日本에 倂격적으로 王子 忠元和 級滄 金比蘇 등 大監 2명과 大奈麻 朴務摩 등 弟監 2명 등을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그전까지 日本에 보낸 使臣의 官等은 주로 級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王子를 보내고 武官인 大監과 弟監을 각각 2명씩 보낸 것은 新羅 朝廷이 느끼고 있는 危機感을 反影한 것이다. 곧 唐의 政治·軍事的 攻勢에 對應하여 日本의 動靜을 살피고 변함없는 新羅 支持를 說得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혹 軍事的 助力을 要請하였을 可能性도 있다. 이어 이 해 4월에 新羅가 다시 급찬 朴勤修와 대나마 金美賀를 고구려의 大兄 多武 등과 함께 日本에 파견하였다. 急迫한 狀況展開를 느끼게 한다. 이는 675년 2월 劉仁軌의 唐軍이 七重城 지역에서 新羅軍을 擊破하는 등 攻勢를 強化하는 狀況과 有關한 것이다.

이 때 新羅 使臣을 맞이한 뒤 日本 朝廷은 특별한 反應을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 같다. 觀望 姿勢를 계속 維持하였다. 그러면서 7월 新羅에 使臣을 派遣하여 情勢 探索을 하였

다. 결국 事態를 판가름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新羅軍과 唐軍 간의 戰況이다. 窮極적으로 그것에 의거하여 日本의 向背를 決定하는 政策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新羅는 戰爭 중에도, 唐과 朝貢册封關係를 유지하였다. 이를 활용해 당에 대한 強穩 兩面의 對應을 하였다. 四天王寺와 望德寺 說話는 당시 신라가 처한 어려움과 唐에 대한 兩面 對應의 斷面을 전해준다.⁴¹⁾ 또한 唐과의 外交關係를 維持한 데에는 日本에 대한 考慮도 作用하였던 듯하다. 즉 언제든 다시 唐과 再結束을 할 수 있다는 餘地를 남겨 두어, 日本의 政策 變更 可能性을 牽制하려는 意圖가 그것이다. 唐도 吐蕃의 公세에 직면하고 있었던 관계로, 軍事的 餘力이 별로 없었으므로, 사태가 급박해지면 新羅와 朝貢册封關係를 통한 折衷을 하는 등 軍事면에서의 緩急을 調節하였다. 對唐 戰爭期間中에도 新羅가 唐의 年號를 계속 사용하였음은 경주에서 발굴되는 銘文瓦片이나 塼片과 石刻 등을 통해 確認된다.⁴²⁾

現實적으로 唐과 對決하는 狀況에서 新羅로선 日本과의 外交에서 어려움을 堪耐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671년 6월 이후 ‘別獻物’이라 하여 大臣과 君卿에게 따로 物品을 보내는⁴³⁾ 등 對日 外交에 盡力하게 되었다. 그에 반해 戰爭이 長期化하여 安保 危機에서 벗어난 日本은 新羅에 대해 점차 高姿勢가 되어갔다.

제2장 7世紀 終盤~8世紀代의 新羅·日本 關係

제1절 676年 이후 新羅와 日本의 關係

1. 新羅와 唐의 關係

676년 唐軍이 韓半島에서 撤收한 뒤, 新羅와 唐 간의 表面的인 戰爭狀態는 終結되었다. 그러나 양국 간에는 裏面的 對立이 持續되었다. 唐은 機會가 오면 再次 韓半島로 侵攻하려는 姿勢를 堅持하였다. 실제 678년에는 대규모 新羅 遠征計劃을 推進하였다. 이

41) 《三國遺事》 2, 文虎王法敏

42) 안압지에서 출토된 ‘調露二年銘 塼’, 蘿井 유적지와 望星里 瓦窯址에서 각각 출토된 ‘儀鳳四年皆土銘 瓦’, 川前里 書石의 ‘上元二年銘’과 ‘上元四年銘’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43) 《日本書紀》 27, 天智 10년 6월

計劃은 마침 吐蕃이 唐에 대해 攻擊을 감행함에 따라, 兩面 戰爭에 부담을 느낀 唐의 朝廷이 實行에 옮기지는 못하였다.⁴⁴⁾ 그러나 이후에도 唐은 高句麗와 百濟의 王孫을 각각 ‘高麗朝鮮郡王’과 ‘百濟帶方郡王’으로 封하여 唐의 首都에 머물게 하고,⁴⁵⁾ 新羅의 韓半島 領有를 認定하지 않았으며, 新羅에 대한 壓迫을 계속하였다. 그에 따라 兩國 間에는 裏面的 對立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680년 신문왕 즉위 초 唐이 太宗武烈王의 諡號가 唐 太宗의 廟號와 같다는 점을 들어 改정을 요구하자 新羅가 이를 거부하는 외교적 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⁴⁶⁾

이러한 唐의 政策에 對應해 新羅는 對唐 防禦策에 注力하지 않을 수 없었다. 王權과 中央集權力의 強化, 軍備 擴充을 도모하였다. 王 直屬의 中央軍團인 9誓幢 중 5個가 676년 이후 編成되고, 9州 5小京 體制가 確立되며, 일부 貴族에 대한 肅清이 행해졌던 것은 그런 면을 말해준다. 대외적 긴장과 위기의식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⁴⁷⁾

2. 新羅와 日本의 相互認識 : ‘隣國’과 ‘蕃國’의 同床異夢

7세기 후반 日本은 新羅가 당의 東進勢를 막아주고 있는 동안, 律令體制의 確立에 주력하였다. 唐의 律令體制를 移植한 日本은 皇帝國으로서 意識과 儀禮를 갖추려 하였다. 對內的으로는 일본에 이주해온 高句麗와 百濟 遺民에게 ‘百濟王’이나 ‘高麗王’이란 姓을 수여하여, 朝廷에 仕宦케 함으로써, 天皇의 位相을 높이는 要素로 활용하였다.⁴⁸⁾ 對外的으로는 帝國으로서의 位相을 具顯하기 위해 蕃國의 존재가 필수적이므로, 新羅를 蕃國으로 자리매김하고 그에 相應한 儀禮를 新羅에 強要하였다. “大唐은 隣國이고, 蕃國은 新羅이다”라는 식의 意識이 그런 면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⁴⁹⁾ 이러한 이 시기의 時代 狀況과 당시 日本 支配層의 三國에 대한 認識이 《日本書紀》의 歷史觀에 反映되었다.

44) 《舊唐書》 85, 張文瓘傳

45) 《舊唐書》 高麗傳, 百濟傳. 이들 양 郡王은 725년 泰山의 封禪 때에 內蕃의 왕으로서 참여하였음을 볼 때, 8세기 전반까지도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舊唐書》 23, 禮儀3 開元 13년 11월 壬辰條).

46) 權惠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 - 遺唐使研究 - 》 (一潮閣) 45 참조.

47) 盧泰敦, 2009 《앞 책》 276~278

48) 算敏生, 1989 <百濟王姓의 成立と日本古代帝國> 《日本史研究》 317, 189

49) 《令集解》 31, 公式令詔書式條

한편 唐과 對立을 持續하고 있었던 新羅는 자국을 朝貢國으로 간주하려는 日本의 주장에 被動的으로나마 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막대한 물자를 일본에 보내었다. 唐과의 開戰 이후 新羅에서 보낸 物品은 주로 고급 비단과 金屬器 및 屏風·깃발(幟) 등의 奢侈品과 佛敎 關聯 物品 및 金·銀 등이 主流를 이루었다. 그 중에는 孔雀·鸚鵡·香藥 등 동남 아시아산과 駱駝와 같은 북아시아산 동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물품은 당과의 교역을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이는 一面에선 高級 文物을 提供함으로써, 이런 物資를 통해 신라국의 文明과 國際的 交易 範圍를 과시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⁵⁰⁾ 근래까지 奈良 등 近畿 지역의 궁터나 절터 고분 등에서 이 시기의 신라 녹유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신라에서도 중앙에서 특별 관리하는 고급 품목인 녹유토기의 일본 유입은 양측 간의 국가적 교섭을 통해서일 것이다.⁵¹⁾ 이 시기 唐의 侵攻 可能性에 대비한 軍備擴充과 함께 日本에 대한 物資 供與는 新羅에 막대한 財政 負擔이었다.

新·唐 간의 戰爭과 對立에 따른 最大 受惠國이면서도, 困境에 處한 新羅를 壓迫하는 日本에 대해 新羅 朝廷은 적어도 表面的으로 不滿이나 敵對感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明示的으로 日本의 新羅蕃國觀을 받아들인 것 같지도 않다. 이 시기 日本 朝廷의 要求에도 不拘하고 新羅使는 ‘表文’을 携帶치 않았으며,⁵²⁾ 新羅 자체에선 계속 唐의 年號를 사용하였다. 이런 사실은 곧 新羅人의 對外意識과 政策의 斷面을 나타낸 것이다. 표면적인 緊密한 交流에도 불구하고, 裏面的으로는 日本에 대한 警戒과 對立意識을 堅持하였던 것이다. 文武王의 海中陵 說話와 感恩寺(鎮國寺) 創建 緣起說話는 이 시기 新羅人의 對日意識의 內面을 말해주는 바이다.⁵³⁾

相對에 대한 서로 다른 認識이 潛伏된 채로 表面上의 緊密한 交流를 持續하였는데, 이는 對外的 與件의 變動에 따라, 즉 新羅와 唐의 關係가 變化할 때 早晚間 破綻할 수밖에 없는 性格을 지닌 것이었다.

50) 新川登龜男, 1988 <日羅間の調(物産)の意味> 《日本歴史》 481 ; 1999 <日羅間の調> 《日本古代の對外交渉と佛敎-アジアの中の政治文化》 (吉川弘文館) ; 金昌錫, 2004 <8세기 신라 일본 간 외교관계의 추이-752년 교역의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84

51) 洪普植, 2004 <日本出土 新羅土器와 羅日交涉> 《韓國上古史學報》 46

52) 일본에 파견된 신라사가 表文을 휴대하였음을 나타내는 예로 거론되는 유일한 것이 703년의 “新羅國使薩浪金福護表云 寡君不幸 自去秋疾 以今春薨 永辭聖朝 朕思 其蕃君雖居異域 至於覆育 允同愛子 雖壽命有終 云云”한 기록이다. 그런데 이는 신라왕의 국서가 아니다. ‘寡君’으로 시작되는 표문은 그 문투로 보아 신라의 공적 기관에서 작성한 것이라기보다 신라사신의 口奏를 일본인이 중국 고전을 인용한 이른바 율령적 필법으로 작성한 것이거나, 신라사신의 그것을 개작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延敏洙, 2003 《古代韓日交流史》 (혜안) 244~245

53) 《三國遺事》 2, 萬波息笛

제2절 8世紀 新羅와 日本의 關係

1. 渤海의 發興에 따른 國際情勢의 變動

8세기에 들어 日本은 大寶令을 撰修한 직후인 702년 遣唐使를 보내 唐과의 國交를 再開하였다. 이어 703년 신라에 204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율령체제의 기본 틀을 수립한 뒤 이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이를 당과 신라에 알려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로 여겨진다.⁵⁴⁾ 아울러 대보령의 내용을 適用, 點檢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探索하려는 면도 있었던 것 같다. 新羅 또한 703년 唐에 사신을 보냈고, 이후 거의 每年 使臣을 파견하였다. 이에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가 7세기 후반과는 판이한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8세기 이후 국제정세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이 발해의 발흥이었다. 698년 건국한 直後 渤海는 突厥과⁵⁵⁾ 新羅⁵⁶⁾에 使臣을 보내 建國을 通報하였고, 急速한 勢力 擴大를 해 나갔다. 발해의 세력이 남으로 세를 확장하자, 신라는 718년 漢山州 管内에 여러 성들을 축조하였고, 721년에는 阿瑟羅道の 壯丁 2천을 징발하여 북쪽 경계에 장성을 축조하였다.⁵⁷⁾ 북방의 새로운 정세에 대응한 조치였다. 발해의 발흥은 신라 조정에 안보상의 문제에 새롭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다. 북으로부터의 위협은 남으로부터의 위협 가능성에 다시 留意하게 하였다. 양 방향의 상황은 신라의 국가 안위에 직결되며 상호 連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22년 聖德王은 수도의 남쪽 出口인 崑山嶺과 통하는 길목인 毛伐郡에 關門城을 축조하여 일본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⁵⁸⁾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였다.⁵⁹⁾ 당도 발해를 견제할 필요성에서 신라에 대한 기존의 적대적 정책을 바꾸게 되니,⁶⁰⁾ 신라와 唐은 급속히 관계 개선을 하게 되었다. 이에 日本에 대한 新羅의 戰略的 位置는 크게 改善되었다.

54) 石母田正, 1989 <天皇と諸蕃> 《石母田正著作集 4》

55) 《舊唐書》 渤海靺鞨傳

56) 崔致遠, <謝不許北國居上表> 《崔文昌侯全集》

57) 《三國史記》 성덕왕 17년, 20년조

58) 《三國史記》 성덕왕 21년조

59) 聖德王 3년(703)에서 성덕왕 36년(737) 사이에 신라는 당에 46차례 사신을 파견하였다.

60) 714년 唐 玄宗이 內殿에서 신라사신에 대한 饗宴을 베풀고 宰臣과 4품 이상 淸官들을 연회에 참석하게 한 것은 이 무렵 당의 대 신라정책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三國史記》 聖德王 13년 10월).

일본은 720년 渡嶋津輕津司의 諸君鞍男 등 6명을 ‘말갈국’에 파견하여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한 탐색을 하게 하였다.⁶¹⁾ 이 ‘말갈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뜻하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를 발해로 보는 견해도 있다.⁶²⁾ 아무튼 이는 발해국의 勃興에 따라 일어난 현상의 하나라 볼 수 있겠다. 이어 727년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양국이 통교하게 되었다. 흑수말갈을 둘러싸고 당과 대립하고 있으며, 또 당과 신라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발해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일본과의 연결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733년의 渤海에 대한 新·唐軍의 挾攻이 실패로 끝난 뒤인 734년, 唐은 大同江 以南을 新羅가 統合한 것을 정식으로 承認하고, 渤海와 新羅 간의 대립과 勢力均衡을 통한 동북아 정세의 現狀維持를 指向하는 쪽으로 政策 轉換을 하였다. 신라 또한 발해에 대해 더 이상 공세를 취하지 않았다. 당과 발해 간의 관계도 곧 정상화되었다. 그에 따라 新羅·唐·渤海의 關係가 構造的으로 安定化되어 갔다.

한편 渤海는 734년 이후에도 日本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에 日本은 新羅와 渤海의 對立相을 活用할 수 있는 位置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新羅와 渤海 關係는 더 이상 惡化되지 않고, 現狀 維持를 나타내었다.

이런 狀況 變動은 既存 新羅의 對日本 政策에 根本的인 轉換을 可能하게 하였다. 그것은 외교 儀禮上의 마찰로 表面化되었다.

2. 新羅·日本 間의 外交 紛爭

735년에 일본에 온 新羅使 金相貞이 自國을 王城國이라 稱한 것을 문제로 삼아 日本 朝廷이 接見를 拒否하고 歸國시켰다.⁶³⁾ 이어 신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737년 2월 귀국한 일본사신이 復命하기를 “新羅失常禮 不受使旨”라 하였다. 그 구체적인 事端의 내용은 전하지 않으나, 이 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上·下位 官人 45인의 意見 開陳을 듣는 일이 이어졌고, 이어 諸司에서 抗議使를 파견하자거나 軍을 派兵하지는 등의 對策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4월에는 伊勢神宮 등 5곳의 神社에 이 사건을 告하는 儀式이 베풀어졌다.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었다.⁶⁴⁾ 이어 일본

61) 《續日本紀》 8, 元正天皇 養老 4년 정월 丙子

62) 鳥山喜一, 1968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232~5

63) 《續日本記》 12, 天平7년 2월 癸丑

은 738년 6월 來日한 신라사의 入京을 거부하였으며, 742년 2월에도 신라사의 入京을 거부하고 歸國케 하였다.⁶⁵⁾

742년(景德王 원년) 10월 신라는 日本使臣의 接見을 拒否하고 되돌려 보냈다.⁶⁶⁾ 이 역시 구체적인 理由는 전해지지 않는데, 아마도 外交儀禮를 둘러싼 마찰에서 起因한 것 같다. 이어 743년 新羅使가 日本에 가져간 物資를 新羅使가 口頭로 ‘土毛’라 한 것을, 일본 측이 服屬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은 ‘調’라 하지 않았다고 是非하여 되돌려 보냈다.⁶⁷⁾ 前年에 있었던 新羅 朝廷의 措處에 대한 報復的인 性格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土毛’라는 말의 의미를 살린다면, 그간 신라가 일본에 보내는 物品 중 土產品은 계속 보내고, 그 외의 것으로서 新羅가 對外 交易을 통해 확보한 唐 및 東南아시아產 物品은 이제 交易品으로 轉換하려는 試圖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라는 推論을⁶⁸⁾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런 양국 간에 벌어진 상대국 使臣의 接受를 拒否한 사건은 변화된 國際 情勢 하에서 兩國關係를 새롭게 設定해보려는 新羅의 企圖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743년 이후 751년까지 兩國 간의 交渉은 없었다. 그 뒤 752년 新羅 使節 700여명이 日本을 訪問하였다. 그 중 370명이 日本 首都에 갔다. 兩國 間의 關係改善을 摸索하고, 交易하려는 目的이었다. 현재 正倉院 等に 所藏되어 傳해지는 ‘買新羅物解’는 이 때 新羅使가 交역을 目的으로 가져온 物品 중에서 일본 貴族家에서 購買하려 하는 物品의 種類와 價格을 記錄하여 內藏寮에 報告한 文書로 여겨진다.⁶⁹⁾ 즉 外國使臣이 가져온 物品은 官廳에서 먼저 購買한다는 ‘官司先買’의 原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物品 購買 希望書를 官에 제출한 뒤 기다렸던 것이다. 이 때 수도에 가지 않은 신라 사절 3백 수십 명은 아마도 大宰府 등지에 머물며 交易하였을 것이다. 이는 곧 이 신라사절단의 주요 목적이 외교에 못지않게 交역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들이 가져온 물품에는 귀족들의 工房에서 만든 것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正倉院 所藏 新羅氈의 貼布記 分析을 통해 그 점이 구체적으로 논해졌는데,⁷⁰⁾ 正倉院 소장의 ‘新羅楊家上墨’·‘新羅武家上墨’ 역시 그러한

64) 《續日本記》 12, 天平 9년 2월 己未, 3월 壬寅, 4월 乙巳

65) 《續日本記》 13, 天平 10년 6월 辛酉 ; 《같은 책》 권14 天平 14년 2월 庚申

66) 《三國史記》 경덕왕 원년 10월

67) 《續日本紀》 15, 天平 15년 4월 甲午 무

68) 金昌錫, <앞 논문>

69) 東野治之, 1977 <鳥毛立女屏風下貼文書の研究>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塙書房)

70) 李成市, 1998 <正倉院所藏新羅氈貼布記の研究-新羅·日本間交易の性格をめぐって->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岩波書店)

제품으로, 신라에서 대외교역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⁷¹⁾ 이 752년의 신라사절을 통해 볼 때 兩國 간의 交涉에서 交易이 차지하는 比重이 커진 듯하나, 政治的인 相互 認識의 差는 如前하였다. 그 면은 뒤이어 事端을 惹起하였다.

753년 8월 景德王은 新羅에 온 日本使臣을 傲慢無禮하다고 接見을 거부하고 되돌려 보냈다.⁷²⁾ 한편 唐에 간 新羅使와 日本使가 753년 正月 唐 朝廷의 新年 儀禮에 참석하였는데, 日本使臣은 吐蕃 使臣 아래의 西畔 제2위로, 신라는 아랍국 위의 東畔 제1위에 位置케 하였다. 이에 日本使가 抗議하여 序列 調整을 요구하는 이른바 爭長事件이 發生하였고, 이 사건은 이듬해인 754년 정월 일본사신이 歸國한 뒤 일본 조정에 報告되었다.⁷³⁾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는 뒤, 758년 9월 渤海에 파견된 일본 사신 小野田守가 귀국하였는데, 그는 발해를 통해 들은 安祿山의 亂에 관한 소식을 전하였다.⁷⁴⁾ 이 정보에 접한 일본조정은 唐이 內亂으로 신라에 대한 支援이 不可能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 같고,⁷⁵⁾ 759년 여름 藤原仲麻呂 등이 중심이 되어 渤海와 연결하여 신라를 侵攻할 計劃을 推進하여 軍備 強化에 나섰다.⁷⁶⁾ 일본은 761년 다수의 新羅語 通譯을 양성하는⁷⁷⁾ 등 新羅 侵攻 計劃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無爲로 그쳤다. 한편 신라는 760년 級浪 金貞卷을,⁷⁸⁾ 763년에는 級浪 金體信 등 211인의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여,⁷⁹⁾ 정세 탐색을 하고,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으나, 徒勞에 그쳤다. 764년에는 渡唐留學僧 戒融의 귀국 여부를 묻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워 金才伯 등 91인을 일본에 파견하였고,⁸⁰⁾ 769년에는 在唐 日本使臣과 留學生의 書狀을 轉送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金初正 등 189명과 送使 39인을 일본에 파견하였다.⁸¹⁾ 774년에 金三玄 등 235명이 大宰府에 到着하여 ‘舊好’를 이어갈 것을 모색하였으나,⁸²⁾ 여전히 신라를 蕃國視하는 일본의 완강한 거부로 兩國 간의 關係改善은 별다른 進展을 보이지 않았다. 惠恭王 15년(779) 10월 귀국 중 조난을 당해 耽羅에

71) 東野治之, 1977 <正倉院麩の墨書と新羅の對外交易> 《알 책》

72) 《三國史記》 景德王 11년 12년 8월

73) 《續日本紀》 19, 孝謙天皇 天平勝寶 6년 정월 丙寅

74) 《續日本記》 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년 12월 戊申

75) 和田軍一, 1924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 《史學雜誌》 35- 10·11

76) 《續日本紀》 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년 6월 壬子, 8월 己亥, 9월 壬午

77) 《續日本記》 23, 淳仁天皇 天平寶字 5년 정월 乙未

78) 《續日本記》 23, 天平寶字 4년 9월 癸卯

79) 《續日本記》 23, 天平寶字 7년 2월 癸未

80) 《續日本記》 23, 天平寶字 8년 7월 甲寅

81) 《續日本記》 30, 神護景雲 3년 11월 丙子

82) 《續日本記》 33, 寶龜 5년 3월 癸卯

漂着한 日本 遣唐使의 일부 인사를 본국으로 歸還시키코자 派遣된 新羅使 金蘭蓀을 끝으로 양국 간의 公式的 交渉은 사실상 杜絶되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일본의 견당사 파견에 따른 협조 요청이나 표창민의 송환 등을 둘러싼 양국 關聯 機關 간의 산발적인 교섭은 있었으나, 양국 조정 간의 사신 파견을 동반한 공식적 접촉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兩國 支配層의 相對에 대한 認識인 ‘隣國과 蕃國’의 同床異夢은 계속 이어졌다. 이 시기 新羅의 對外政策인 事大交鄰은 그 뒤 高麗·朝鮮時代을 이어 對外政策의 基本軸이 되었다.

한편 공식적인 교섭은 8세기 후반 이후 마찰이 심해져 마침내 두절되었지만, 양국 간의 민간 교역은 지속되었다. 외교의례를 둘러싼 갈등이 심하던 시기인 768년 10월 일본 조정은 左右 大臣과 大納言 등의 高位 官人과 貴族들에게 총액 8만 5천 屯의 大宰府綿을 ‘新羅 交關物을 購入하게 하기 위해’ 賜與하였다.⁸³⁾ 이 大宰府綿은 大宰府에 지급되어 비축된 것으로, 이곳에서 신라인과 교역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였다. 즉 신라와 외교 의례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식적인 접촉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면서, 다른 일면에서는 新羅와의 交易을 實際上 許容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綿은 장기간 貯藏하면 腐蝕 毀損되므로, 위의 조처는 언제 올지 불확실한 新羅使節團과의 交易뿐 아니라 私貿易 즉 新羅 私商과의 交易도 사실상 考慮하여 취한 것이라는 解釋도 가능하겠다. 아무튼 760년 金貞卷의 派遣 이후 매년 日本에 派遣한 使節이 外交的 問題로 紛亂을 惹起하였지만, 신라는 763, 764, 769, 774년 등 連續하여 비교적 큰 규모의 使節團을 보냈고, 또 外交 紛爭의 渦中에서도 위 768년의 例에서 보듯 兩國 간의 交易이 行해졌다. 이런 면은 곧 新羅產 物品이나 新羅商人을 통한 外國產 物品에 대한 日本 支配層의 需要가 있었음을 말한다. 나아가 兩國 모두에게 每番 紛糾를 惹起하는 公的 交流를 통하지 않고 私貿易을 통한 交易을 追求하게 하였을 것이다. 실제 9세기 이후 양국 간의 교역은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단 이러한 이해가 이 時期 國際 交易이 順전히 市場 論理에 의해 展開되었다는 것을 主張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 兩國 간의 交易이 私貿易에 依存하였다는 것 自體가 이 時期 兩國 간의 政治的 關係에 따른 樣相이요 그 產物이었던 것이다.

83) 《續日本記》 30, 神護景雲 2年 10월 甲子, 庚午

〈표 1〉 668년~700년 사이 신라와 일본 간의 사신 왕래

	신라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신라로	소고구려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소고구려로
668	o			
669	o			
670		△		
671	o o		☆	
672	o		☆	
673	o		☆	
674				
675	o o	△	☆	
676	o	△	☆	
677				
678	o(海難)			
679	o	△	☆	□
680	o		☆	
681	o	△		□
682			☆	
683	o			
684		△		□
685	o			
687	o	△		
689	o			
692	o			
693	o	△		
695	o	△		
697	o			
700	o	△		

〈표 2〉 新羅·日本 間の 贈與 物品

新羅紀年/西曆 /日本紀年.月	신라→일본	일본→신라	典據
眞平王 20/598 /推古 6. 8	孔雀		《日本書紀》
眞平王 38/616 /推古 24. 7	佛像		《日本書紀》
眞平王 45/623 /推古 31. 7	佛像, 金塔, 舍利, 大觀頂幡, 小幡		《日本書紀》
眞德女王 元年/647 /大化 3	孔雀, 鸚鵡		《日本書紀》

文武王 8/668 /天智 7. 9		-絹, 綿, 韋을 신라왕에게 -신라왕과 김유신에게 각 船 1척	《日本書紀》
文武王 11/671 /天智 10. 6	別獻物 : 水牛, 山鷄		《日本書紀》
文武王 11/671 /天智 10.11	*427) 袈裟, 金鉢, 象牙, 沈水香, 梅檀香, 諸珍財(추정) ⁸⁴⁾	絹, 絁, 棉, 韋을 신라왕에게 보 냄	《日本書紀》
文武王 12/672 천무 1. 12		신라 사신 金押實에게 배 1척	《日本書紀》
文武王 19/679 /天武 8. 10	- 金, 銀, 鐵, 鼎, 錦, 絹, 布, 皮, 馬, 狗, 騾, 駱駝 - 別獻物 : 金, 銀, 刀, 旗		《日本書紀》
神文王 元年/681 /天武 10. 10	- 金, 銀, 銅, 鐵, 錦, 絹, 鹿皮, 細 布 - 別獻物 : 金, 銀, 霞錦, 幡, 皮		《日本書紀》
神文王 5/685 /天武 14. 5	馬, 犬, 鸚鵡, 鵲, 種種物		《日本書紀》
神文王 6/686 /朱鳥 1. 11	- 細馬, 騾, 犬, 鏤, 金器, 金, 銀, 霞錦, 綾羅, 虎豹皮, 藥物 - 別獻物 : 金, 銀, 霞錦, 綾羅, 金 器, 屏風, 鞍, 皮, 絹, 布, 藥物		《日本書紀》
神文王 7/687 /持統 1.	金, 銀, 佛像, 珍寶		《扶桑略記》
神文王 8/688 /持統 2. 2	- 金, 銀, 絹, 布, 皮, 銅, 鐵 - 別獻物 : 佛像, 種種彩絹, 鳥, 馬 - 金霜林 所獻 : 金, 銀, 彩色, 種 種珍異之物 80여종		《日本書紀》
神文王 9/689 /持統 3. 4	金銅阿彌陀像, 金銅觀世音菩薩 像, 大勢至菩薩像, 彩帛, 錦, 綾		《日本書紀》
孝昭王 7/698 /文武 2. 1	貢物		《續日本紀》
孝昭王 9/700 /文武 4. 10	孔雀, 珍物		《續日本紀》
孝昭王 10/701 /大寶 1. 1		- 신라 사신 金所毛의 죽움에 絁, 綿, 布를 내림 - 水手 이상에게 祿을 사여	《續日本紀》
聖德王 2/703 /大寶 3. 10		錦, 絁 (使臣에게는 衾, 衣 사 여)	《續日本紀》
聖德王 5/706 /慶雲 3. 1	貢物	使臣에게 祿 사여	《續日本紀》
聖德王 8/709 /和銅 2. 3	貢物	絹, 美濃絁, 糸, 綿 (使臣에게는 祿을 내림)	《續日本紀》

聖德王 14/715 /靈龜 1. 3		綿, 船 (使臣에게는 祿, 綿을 내림)	《續日本紀》
聖德王 18/719 /養老 3. 7	貢物, 騾馬	祿	《續日本紀》
聖德王 25/726 /神龜 3. 6·7	貢物	- 使臣에게 祿 사여 - 金順貞의 賻物로 黃紵, 綿 증여	《續日本紀》
聖德王 31/732 /天平 4. 5	種種財物, 鸚鵡, 鳩鴿, 蜀狗, 獵狗, 驢, 騾	신라의 왕과 使臣에게 祿을 줌.	《續日本紀》
景德王 11/752 /天平勝寶 4. 7	- 貢物 - 金泰廉의 私獻物 : 土產物	使臣에게 紵, 布, 酒肴를 내림	《續日本紀》
惠恭王 6/770 /寶龜 1. 3	貢物	신라의 왕과 使臣에게 祿으로 紵, 糸, 綿을 줌	《續日本紀》
惠恭王 16/780 /寶龜 11. 1	貢物	- 신라 國王 : 答信物 - 使臣 : 祿, 當色, 履	《續日本紀》
哀莊 5./804 /桓武 23.		黃金	《三國史記》 新羅本紀
憲康 8/882 /元慶 6.		黃金, 明珠	《三國史記》 新羅本紀

제3장 7~9世紀 韓日 間의 文化 交流

제1절 律令文化的 交流

1. 三國의 律令

(1) 그간의 研究

7世紀에 들어 韓半島와 日本列島의 國家들은 政治的·軍事的으로 緊密한 關係를 가졌다. 그와 함께 文化的인 면에서도 相互交流가 깊이 進展되었다. 7世紀 後半 百濟復興戰爭으로 白江口 戰鬪에서 新羅軍과 倭軍이 直接 武力 對決을 벌이는 事態를 겪기도 하였으나, 곧이어 668年 9月 新羅와 倭國이 國交를 再開하였다. 이후 兩國은 오랜 期間 密接한 政治的 關係를 맺었고 그와 함께 兩國間에 頻繁한 交流가 이어졌다. 新羅는 唐과의

84) 이 해 10월에 있었던 法興寺 奉進物을 통한 新川登龜男의 추정에 의하였다.

新川登龜男, 1999 <앞 논문> 11

對決과 뒤 이은 不便한 緊張狀況이 持續되는 가운데서 中央集權的인 國家體制를 擴充해 나갔고, 日本은 ‘律令體制’를 構築하는데 盡力하였다. 이렇듯 새롭게 政治體制를 整備하는 過程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새로운 國家體制的 構築과 運營에 規範이 되는 法令의 制定이었다. 日本에서는 701년 大寶令이 頒布되었다.

律令은 前近代 時期 中國의 法律體系이며, 大寶令은 唐 律令을 典範으로 삼아 編纂된 것이다. 그런데 한 나라의 法律體系는 서로 다른 歷史的 背景과 文化를 지닌 他國의 것을 쉽게 移植하여 形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당 기간 律令文化에 대한 經驗과 檢討를 거친 뒤, 公式的으로 受容되어 法令 編纂이 이루어지는 것이 一般的인 樣相이다. 日本의 경우, 670年代 初 以後 701년까지 唐과의 公式的인 交流가 斷切된 狀況에서 大寶令이 完成되었다. 이런 점을 考慮하여, 日本의 律令編纂에 韓國 古代國家들과의 交流가 상당한 影響을 주었을 可能性이 일찍부터 注目되어 왔다. 물론 이는 7世紀 以前 時期에 韓國의 古代國家들에서 律令이 編纂되어 施行되었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 만약 韓國 古代國家들의 律令 條項이 남아 전한다면 그것과 日本의 律令을 對比하면 바로 그 可否를 點檢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 古代國家들의 그것이 具體的으로 남아 傳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간 古代 韓日間의 律令文化 交流에 대한 關心은 韓國古代國家들에서 과연 律令이 編纂된 事實이 있는지의 與否를 檢討하는데 焦點을 두고 論議되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高句麗는 小獸林王 3년(373)에 ‘처음으로 律令을 頒布’하였다 한다. 이 때의 律令을 泰始律令을 母法으로 한 것으로 推定하는 說이 提起되었는가⁸⁵⁾ 하면, 이 記事의 事實性을 否定하는 見解도 發表되었다.⁸⁶⁾ 이런 高句麗 律令 頒布 與否를 둘러싼 論難은 이어 新羅의 그것에 대한 論議로 이어졌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法興王 7年(520) 正月에 “律令을 頒布하고, 百官의 公服과 그 服色에 따른 序列을 制定하였다(頒示律令始制百官公服 朱紫之秩)” 한다. 그리고 武烈王 元年의 “理方府令 良首 等에게 命하여 律令을 자세히 檢討해 理方府格 60餘條를 修定하였다(命理方府令良首等 詳酌律令 修定里方府格六十餘條)”는 記事와 文武王 21年 遺詔에서 “律令格式에 不便한 것이 있으면 곧 다시 고칠 것이며(律令格式有不便者 即便改張)”라 한 記事가 있다. 이들 記事에 대해서도 그 事實性에 대한 肯·否定論이 이어졌다. 이 記事를 그대로 認定하면서 新羅 律令은 高句麗 律令의 影響을 받아 頒布되었다고 보는 肯定論이⁸⁷⁾ 있었는가 하면, 당시 新羅의 社

85) 田鳳德, 1956 <新羅律令攷> 《서울大論文集》 4 ; 盧重國, 1979 <高句麗 律令에 관한 一試論> 《東方學志》 21

86) 林紀昭, 1994 <高句麗의 律令> 《古代 東亞細亞의 再發見》 (湖巖美術館)

87) 田鳳德, <앞 논문> ; 李基東, 1978 <新羅 官等制度의 成立年代 問題와 赤城碑의 發見> 《歷史

會 成熟과 國家 發達 程度로 볼 때 中國의인 特色을 살린 律令의 施行은 不可能하며,⁸⁸⁾ 太宗 武烈王代 以後 統一期인 中代에 들어서야 비로서 律令이 編纂되었고,⁸⁹⁾ 그것도 唐의 律令을 그대로 使用하면서 施行細則인 格式만을 編纂하였다는 說이 있었다.⁹⁰⁾ 한편 新羅에서 律令制가 施行되지 않았다는 見解도 發表되었다. 즉 新羅와 高麗에서는 國家體制의 基礎가 되는 體系의인 法典으로 律令이 編纂되지 않았고, 中代 이후에도 新羅의 支配體制나 國際關係로 보아 中國의인 律令이 施行되기 어려웠다는 視覺이 그것이다.⁹¹⁾ 또한 蔚珍 鳳坪碑에 ‘杖100’, ‘杖60’과 같은 中國 律令의 痕迹이 보이지만 新羅는 물론 高麗에서도 ‘受入法=律令法’이 支配의인 形態가 되지 못하였고, 新羅의 法制에는 新羅 社會의 獨特한 個性을 反映한 固有法이 强하게 作用하고 있었기 때문에 新羅를 律令制 國家로 볼 수 없다는 見解가 發表되었다.⁹²⁾

이러한 그간의 論議를 一瞥할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이 律令의 存在에 대한 理解에서 서로 다른 概念을 想定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法興王代의 律令 頒布를 肯定하는 論者들은 律令을 中國 法制로 보고, 律令 自體가 存在하였는지의 與否에 焦點을 두었다. 반면에 ‘律令不在說’이나 ‘中代 成立說’을 主唱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律令을 律令制 또는 律令體制와 같은 意味로 設定하였다. 後者は 律令의 完成이라고 할 수 있는 隋·唐代의 律令과 律令制를 그 準據의 基準으로 삼았으며, 다분히 古代 日本의 경우와 같이 律令을 全面的으로 導入한 경우만을 律令 受容이라 理解한 視覺을 堅持하였다. 아울러 新羅 律令의 存否에 대한 論議에서 看過할 수 없는 것은 各國의 律令 頒布 時期와 律令制의 施行 與否를 통해 그 社會의 發展 程度와 優劣을 가름하려는 듯한 認識이 그 裏面に 깔려있음도 否認키 어렵다는 점이다.⁹³⁾

中國 法制로서 律令 自體는 隋唐代 以前에도 他國에 影響을 주었다. 中國 以外 地域에서 古代國家가 成長함에 따라, 그 國家體制의 構築과 運營을 위해 나뉘는 法制가 만들어

學報》 78 ; 金龍善, 1982 <新羅 法興王代의 律令頒布를 둘러싼 몇 가지 問題> 《加羅文化》 1
88) 林紀昭, 1967 <新羅律令에關する二·三의問題> 《法制史研究》 17 ; 武田幸男, 1974 <新羅法興王代의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89) 武田幸男, 1978 <朝鮮의律令制> 《岩波講座 世界歷史 6》 (岩波書店)

90) 石上英一, 1979 <律令法國家(1)> 《歷史研究》 222·223

91) 北村秀人, 1982 <朝鮮における律令制의變質>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 日本古代史講座 7》 (學生社)

92) 李佑成, 1989 <高麗土地·課役關係 ‘判·制’에 끼친 唐令의 影響 - 新羅 律令國家說의 檢討를 兼하여 -> 《大東文化研究》 23

93) 李佑成은 위의 論文에서 新羅의 法制가 固有法的인 要素가 강하였으므로 律令制國家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는 新羅의 後進性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新羅社會의 獨特한 獨自性에 의한 것이라고 強調하였다. 이는 그간의 研究에서 보였던 그러한 傾向을 意識함에 따른 披瀝이라 하겠다.

졌다. 그 과정에서 이리 저리한 國際的 契機를 통해 전해진 律令이 많은 적든 간에 受容되었다. 具體的으로 各國의 法制에서 固有法的인 要素와 律令法的인 要素가 각각 차지하는 程度는 律令 受容國의 歷史的 條件에 따라 그 樣相을 달리하였다. 그것이 律令法的 傳播와 受容을 통해 이루어진 東아시아 各國 文化의 共通性和 差異性的인 具體的인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律令을 통해 그러한 면을 把握하고 各 時期에 이룩된 東아시아 各國 史의 共通性和 差異性을 動態的으로 理解하는 데에는, 律令을 部分的으로 受容하거나 變容시킨 境遇라도 그것을 律令法的인 範疇에 넣고, 그 具體的인 性格에 대한 檢討가 必要한 바이다. 律令制 내지 律令體制라는 概念 대신에 律令型 國家라는 概念이 提示된 것도 이런 視覺에서이다.⁹⁴⁾ 이러한 시각에서의 一次的인 課題는 律令이 언제부터 韓國 古代國家에서 頒布·施行되었는가하는 事實 確認이다.

(2) 新羅의 律令

韓國의 古代國家들에서 律令의 存在와 그 性格에 대한 論議는 1978년 丹陽 赤城碑, 1988년 蔚珍 鳳坪碑 등의 金石文이 發見되고 最近에 多樣한 木簡이 發掘됨에 따라 새로운 段階로 접어들었다. 524년 당시 新羅의 北邊인 蔚珍 地域에 세워진 鳳坪碑에는 紛亂을 일으킨 이들에게 ‘杖 100’, ‘杖 60’ 등의 處罰 措處를 行하였음을 記述하였다. 그리고 ‘種種奴人法’ 이란 言及이 보인다.⁹⁵⁾ 아울러 이 碑에 登場하는 官人들의 官等を 통해, 이 때에는 新羅의 17等 京位의 官等制가 確立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⁶⁾ 碑가 세워진 524年은 三國史記에서 律令을 頒布하였다고 전하는 法興王 7年(520)에서 4년 뒤이다. 이런 점은 당시 新羅에 律令이 存在하였음을 意味한다. 具體的으로 鳳坪碑를 통해, 刑罰을 規定한 刑律과 官等制에 關係된 官位令, 그리고 아마도 새로이 服屬시킨 邊境地域 住民들의 處地를 規定한 여러 종류의 奴人法⁹⁷⁾ 등의 存在가 確認된다. 아울러 三國史記에 전하듯이 520년에 官人의 公服과 官等에 따른 朱紫青黃의 服色을 定하였다는 官服令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어 550년 무렵으로 推定되는 丹陽 赤城碑에는 缺落된 부분이 있어 正確한 意味는 把握되지 않지만, ‘國法’·‘赤城佃舍法’·‘小子’·‘小女子’ 등의 表現이 登場한

94) 山本孝文, 2006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研究》(서경) 54~58

95) 李明植, 1992 <蔚珍 鳳坪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 14~24 참조.

96) 盧泰敦, 1989 <蔚珍 鳳坪碑와 新羅의 官等制> 《韓國古代史研究》 2

97) 奴人法의 性格을 ‘令’이라고 본 見解와[朱甫墩, 1998 <鳳坪碑 段階의 外位制整備>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과 村落》(신서원)], 律로 보는 설이(洪承佑, 2004 <新羅律의 基本性格－刑罰體系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50) 있다.

다.⁹⁸⁾ 佃舍法의 具體的인 內容은 正確히 알 수 없으나, 國法으로 表現된 律令의 한 篇目으로 邊境地域의 土地 運用에 관한 어떤 法이었을 것이다. ‘小子’·‘小女子’ 등은 民을 年齡에 따라 區分한 制度和 聯關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곧 6世紀 中盤 以後에는 이들 事項과 聯關된 田令이나 戶令과 같은 令이 制定되어 行해졌음을 뜻한다. 아울러 金石文의 人物에 대한 표기에서 ‘官職名-部名-人名-官等’의 순으로 記述하는 방식이 6세기 中엽에 確定됨에서 보듯 事項을 記錄하거나, 行政 官署 간에 文書를 受發하는 데 必要한 一定한 書式을 규정한 公式令과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後述). 鳳坪碑의 發見 以後 新羅 律令의 存在를 認定하는 것이 韓國學界의 通說이 되었다.

이러 新羅 律令의 系統과 그 性格에 대한 論議가 進行되고 있다. 新羅는 377년 高句麗를 통해 前秦에 使臣을 派遣한 바 있으나 이어지지 않았고, 521년 南朝의 梁에 使臣을 派遣하였는데 이 때도 百濟 使臣과 同行하였다. 그러나 520년 頒布된 新羅 律令은 中國 王朝로부터 直接 受容한 것이라 할 수 없겠고, 일단 高句麗 律令에 影響을 받았다는 想定이 可能하겠다. 具體的으로 鳳坪碑에 보이는 杖刑의 構成으로 볼 때 新羅律은 北魏律이나 梁律을 母法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見解가 發表된 바 있고,⁹⁹⁾ 아울러 新羅의 連坐罪가 唐律과 差異가 있다는 事實이 指摘되었다.¹⁰⁰⁾ 그리고 三國史記 文武王 9年 條에서 전하는 ‘赦免下教’를 中心으로 新羅本紀에 전하는 事例를 檢討하여, 官人에 대한 刑律과 盜賊과 負債에 관한 刑律 등에서 新羅律이 唐律과 差異가 나는 점을 指摘하면서 新羅律의 淵源이 南北朝時代의 그것으로 溯及됨을 논한 研究¹⁰¹⁾가 나왔고, 村落文書에 보이는 戶口 把握方式이 南北朝時代의 것과 通한다는 主張이 提起되었다.¹⁰²⁾ 또한 新羅 刑罰에서 杖刑의 內容과 死刑의 等級(棄市, 斬首) 등이 唐律과 다르며 또 杖刑과 流配刑이 竝科된 것이 隋律 및 그것의 淵源인 北朝律과 通함을 舉論하면서, 新羅律의 母法이 梁이나 北魏의 律이거나 高句麗律이었을 可能性을 提起하였다. 아울러 ‘奴人法’과 ‘佃舍法’의 例처럼 이를 律이나 令이라 하지 않고 ‘法’이라 하였음을 보아 이들 法은 律令이 아니라 固有法이었을 可能性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¹⁰³⁾ 또한 高麗律은 唐律과 다

98) 朱甫墩, 1992 <丹陽 赤城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 33~40 참조.

99) 朱甫墩, 1989 <蔚珍 鳳坪碑新羅碑와 法興王代의 律令> 《韓國古代史研究》 2

100) 朱甫墩, 1984 <新羅時代의 連坐罪> 《大邱史學》 25

101) 尹善泰, 2003 <新羅 中代의 刑律-中國律令 受容의 新羅의 特質과 關聯하여> 《講座 韓國古代史3》

102) 尹善泰, 2000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新羅 古文書와 木簡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6~169

103) 洪承佑, 2004 <新羅律의 基本性格-刑罰體系를 中心으로- > 《韓國史論》 50

르고 新羅律을, 멀리는 新羅律의 淵源이 된 高句麗律을 繼承한 面이 있음을 指摘하면서, 高麗律은 新羅律, 唐律, 宋刑統 등을 能動的으로 受容하여 變形시킨 것이라는 설이¹⁰⁴⁾ 提起되기도 하였다. 이런 主張들은 좀더 具體的인 檢討를 기다리지만, 일단 新羅 律令이 唐 律令에만 依據하였던 것은 아니며, 時間的으로는 南北朝時代의 律令과 連結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 제시한 武烈王 元年 理方府格 60餘條의 修定措處와 文武王 遺詔에서 不便한 律令格式을 更張할 것을 言及한 것은 新羅 中代 初인 7世紀 後半에는 中國 律令의 受容과 模倣 段階를 넘어 이의 一部를 新羅化하는 面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理解하는 것도 可能하다.¹⁰⁵⁾

하지만 律令과 格式을 制定하였다는 것이 곧 新羅 社會가 全面的으로 律令體制로 轉換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 여전히 律令法的인 要素와 傳統法的인 要素가 함께 存在하고 있었던 같다. 그런 면을 重視하여, 三國의 法制에는 律令法的 要素 못지않게 固有法的인 要素가 있음을 強調하고, 傳統法 體系를 律令的 型式에 맞추어 整備한 것이 新羅律令의 性格이라고 보기도 하였다.¹⁰⁶⁾ 新羅 中代인 7世紀 後半 以後에는 律令格式이 施行되었고, 그에 依據하였을 村落文書와 같은 計帳이 作成되는 등, 中國 律令이 追求하는 바를¹⁰⁷⁾ 신라가 指向하였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면서도 당시 新羅 社會를 規制하는 傳統的인 秩序인 骨品制가 官僚制 運營과¹⁰⁸⁾ 日常生活에서 여전히 강하게 作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律令의 構成과 運營에 中國의 그것과는 다른 新羅 的特性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族降’과 같은 身分刑이 存在하였고 身分에 따른 衣冠制가 實施되는 등 新羅의 特性을 나타내는 固有法이 律令과 함께 存在하였음은 그런 면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3) 百濟의 律令

百濟의 경우, 三國史記에는 律令 頒布나 그와 聯關된 어떤 具體的인 言及은 보이지 않

104) 韓容根, 1999 《高麗律》(서경문화사)

105) 註 101)과 同

106) 註 103)과 同

107) 族制의 이고 分權의인 상태를 止揚하고, 國土와 人民에 대한 齊一의 支配를 追求하여, 中央集權의인 郡縣制와 官僚制, 徵兵制, 良賤制, 國家의 人民과 土地에 대한 稅金賦課와 이를 통한 國家 財政의 運營 등을 指向하였다고 여겨진다.

108) 李基東, 1980 <新羅 中代의 官僚制와 骨品制> 《震檀學報》 50

는다. 그런데 근래 발견된 百濟 木簡은 보다 具體的으로 百濟 律令의 한 면을 전해준다. 2008年 4月 扶餘의 雙北里에서 百濟時期 建物址를 發掘하던 중 그 周邊에서 발견된 ‘佐官貸食記’木簡이 그 한 例이다. 이 木簡은 길쭉한 板型의 木片의 兩面에 글을 쓴 것으로 上段 中央部에 구멍이 있어 이곳에 실을 꿰어 文書로 만든 듯한 編綴木簡이다. 文書의 첫 부분에는 618년으로 推定되는 ‘戊寅年 6월에 作成된 佐官貸食記’라는 題目을 記述하였다. 이 文書에는 10名에게 貸付해준 穀食의 量과, 利息을 포함한 償還(上), 未償還(未)의 穀量이 記述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선 貸付한 糧穀 總量(并)과 償還한 糧穀 總量(得)이 表記되어 있다. 度量衡 單位로 ‘石’과 ‘斗’ 외에도 ‘半’과 ‘甲’이 사용되었다. ‘半’은 5升을, ‘甲’은 2.5升을 나타낸 것이다. 利息率 50%의 高利貸였다.

‘佐官貸食記’는 佐官을 官職名으로 볼 경우 ‘佐官’이 主管하는 ‘貸食事業의 記錄’이란 뜻이 되며, 또는 ‘佐’를 동사로 볼 경우 ‘穀食 貸與를 통해 官의 財政運營을 補佐하는 事業의 記錄’이 될 수도 있다.¹⁰⁹⁾ 이 木簡 文書에 ‘邑佐’가 나오고 또 羅州 伏岩里 목간에도 ‘郡佐’로 여겨지는 글자가 보이므로(後述),¹¹⁰⁾ 佐官은 官職名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佐官貸食記’ 木簡이 出土된 遺蹟에서, ‘外椋部鐵 代綿十兩’이라 적힌 木簡이 함께 발굴되었다. 이 木簡은 外椋部가 鐵의 代價로 받은 綿 10兩을 담은 자루에 붙여둔 荷札木簡으로 여겨진다. 그에 따라 혹 목간이 發掘된 地點이 百濟 22部 官司 중 內官의 하나인 外椋部가 있었던 곳이고, ‘佐官貸食記’의 佐官이 外椋部の 佐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外椋部’ 木簡은 ‘佐官貸食記’ 木簡과 함께 黃褐色 모래층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층은 外部에서 流水의 流入에 의해 形成된 것으로 把握된다. 자연 이들 木簡은 建物址 自體와는 關聯性이 없다.¹¹¹⁾ 문제의 木簡들은 이 遺蹟보다 높은 地點에 있던 官衙에서부터 흘러 들어왔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流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地點에서 發掘된 만큼, 두 木簡은 相互 關聯性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佐官’을 外椋部の 屬司인 官廳으로 보는 見解가 제기되었다.¹¹²⁾ 아무튼 ‘佐官’은 ‘外椋部 소속의 官職’일 가능성이 크다.

穀食을 받은 10명 중 9명에게는 이를 貸付하였는데, 다른 1名인 ‘刀己邑佐’에 대해선

109) 李鎔賢, 2008 <佐官貸食記와 百濟의 貸食制> 《百濟木簡》(國立扶餘博物館) 61~63

110) 國立羅州文化財研究所, 2009 《羅州 伏岩里 遺蹟 出土 木簡》. 4號 木簡 前面에 쓰여진 글자를 “郡仿△△文”으로 판독하였는데, ‘仿’이 아니고 ‘佐’로 여겨진다.

111) 朴泰祐·鄭海濬·尹智熙, 2008 <扶餘 雙北里 280-5番地 出土 木簡 報告> 《木簡과 文字》 2호 ; 朴泰祐, 2009 <木簡資料를 통해 본 泗泚時代의 空間構造 - ‘外椋部’ 銘 木簡을 中心으로 -> 《百濟學報 創刊號》

112) 盧重國, 2009 <百濟의 救恤·賑貸 정책과 ‘佐官貸食記’ 木簡> 《白山學報》 83

그가 받은 穀食 3石을 ‘与’라 表記하였다. 즉 貸付한 게 아니라 그냥 주었다고 表記하였다. 그는 邑佐라는 官職을 지닌 官吏로 여겨진다. 한편 貸付한 9명 중 3명의 이름이 ‘佃目之’, ‘佃麻那’, ‘佃首行’인데, 이 ‘佃’이 國家 土地를 耕作하는 佃戶를 나타내는 表示가 아닐까 하는 推論이 提起되어¹¹³⁾ 留意된다. 丹陽 新羅 赤城碑의 佃舍法の ‘佃’과도 聯關하여 檢討해 볼 점이 되겠다.

이 ‘佐官貸食記’는 播種期나 端境期에 民에게 糧穀을 貸與하는 制度가 백제에서 行하여졌음을 전해준다. 高句麗에서도 3월에서 7월 사이에 百姓들에게 家口의 多少에 따라 差等있게 穀食을 빌려주고 10월에 돌려받는 制度로 賑貸法이 施行되었음을 三國史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¹¹⁴⁾ 百濟의 貸食制가 高句麗의 影響을 받아 成立하였거나 村落共同體의 傳統的인 再分配 機能에 淵源을 둔 百濟 固有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두 可能性 중 어느 것이라면 百濟 貸食法은 傳統的 性格을 강하게 지닌 固有法으로 律令法이 아닌 게 된다. 하지만 百濟의 貸食制와 類似한 日本 出舉制의 法的 根據가 되는 條文이 養老雜令 20條에 있다.¹¹⁵⁾ 비록 이 조문이 唐雜令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진 곡식대부와 유사하다.¹¹⁶⁾ 그렇다면 唐 以前 時期의 律令에 貸食制와 통하는 令이 있었는지 더 檢討하여야 할 것이나, 百濟 貸食制가 中國 律令에 그 淵源을 두었을 可能性이 크다. 구체적으로 ‘貸食’이라는 用語가 後漢代에 사용된 바 있다.¹¹⁷⁾ ‘佐官貸食記’가 百濟의 官制와 文書行政 등 中央集權의 古代國家의 體制整備와 밀접히 聯關된 것으로 여겨지며, 貸食制는 貸食의 利率을 50%로 規定함을 보아 中國 法制의 影響을 받은 律令에 의해 그 運營이 規定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구체적인 百濟 貸食法의 淵源에 대한 檢討가 必要한 바이다.

또 하나 注目되는 木簡이 扶餘 陵山里 寺址 中門址 南쪽에서 발견되었다. 그 記錄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支藥兒食米記 初日食四斗 二日食米四斗小升一 三日食米四

×

113) 李鎔賢, <앞 글>

114)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故國川王 16년조

115) 井上光貞 等校注, 1976 《律令》 (岩波書店) 479~480

116) 三上喜孝, 2009 <古代東アジア出舉制度試論>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 (雄山閣)

117) 後漢代人 鄭玄은 《周禮》에 대한 注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즉 《周禮》 권10에서 地官 大司徒의 職掌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로 凶年이 들었을 때 해야 할 일(荒政)인 ‘散利’를 들었다. 이를 鄭玄은 ‘貸種食也’라 하여, 貧窮民에게 種子와 食糧을 貸與해 주는 것이라고 注하였다. (《十三經注疏》 3 《周禮》 권10 地官 大司徒)

2. 五日食米三斗大升一 六日食三斗大二 七日食三斗大升二 八日食米四斗 ×
3. 食道使△△次如逢使 猪耳其身者如黑也 道使△△彈耶方牟氏牟祿 祿耶 ×
4. × 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

(×는 파손)

이 木簡을 羅城 大門의 禁衛와 關聯된 것으로 보고, 羅城 大門을 統制한 官人들이 藥材를 運搬해온 ‘支藥兒’들에게 食米를 支給하고 그 出納 事實을 整理한 것이라고 본 見解가 발표되었다.¹¹⁸⁾ 이어 이를 批判하면서, 이 木簡은 ‘支藥兒’라는 어떤 建物이나 施設에서 地方官인 道使들에 의해 陵山里 寺址의 建立에 動員되어 力役을 遂行한 地方民들에게 米를 支給한 것을 적은 中間 메모와 같은 帳簿라고 보는 說이 提起되었다.¹¹⁹⁾ 後者에 따르면, 당시 地方民에 대한 行政制度和 地方官을 통한 力役動員이 體系的으로 行해졌음을 말해준다. 이는 律令的 秩序의 樹立과 有關한 것이다.

百濟 律令과 關聯된 다른 主要 資料가 羅州 伏岩里 出土 木簡들이다. 製鐵遺址를 포함한 伏岩里 古墳群 周邊遺跡에서 木簡 31점이 出土되었다. 그 부근에서 ‘豆盼舍’銘土器가 出土되어, 이 地域이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전하는 百濟 豆盼縣이 있었던 곳으로 여겨진다.¹²⁰⁾ 한편 여기에서 나온 11호 木簡에 ‘△午四月’이라 記述되어있는데, ‘△’를 庚으로 본다면, 庚午年은 일단 百濟 武王 11년(610), 또는 新羅 文武王 10년(670)으로 볼 수 있어, 出土 木簡들의 年代를 짐작할 수 있다.¹²¹⁾

이들 목간들 중 2號 木簡은 墨痕이 약하여 判讀이 如意치 않은 字가 많으나, 判讀되는 字로는 “中口四 △二”, “文丁”등이 있다. 이중 前者는 扶餘의 宮南池에서 出土된 “西卍後巷”銘 木簡의 表記方式과¹²²⁾ 같다. 이는 年齡에 따라 人口를 區分한 것이다. 그 區分의 基準에 대해선 三國史記의 記事에 따라 15세를 基準으로 보는 見解가 있고,¹²³⁾ 그와는

118) 尹善泰, 2006 <百濟 泗泚都城과 嶧夷-木簡으로 본 泗泚都城의 안과 밖-> 《東亞考古學論叢》 2 (忠淸文化財研究院)

119) 李炳鎬, 2008 <扶餘 陵山里 出土 木簡의 性格> 《木簡과 文字》 創刊號

120) 《三國史記》 地理志3, “錦山郡 本百濟發羅郡 景德王改名 今羅州牧 領縣三 會津縣 本百濟豆盼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鐵冶縣 本百濟實於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餘鯨縣 本百濟永川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이 곳의 考古學的 環境과 發掘 概要 및 主要 出土 遺物은 金聖範, 2009 <羅州 伏岩里 遺蹟 出土 百濟木簡과 其他 文字 關聯遺物> 《百濟學報》 創刊號에 紹介되어 있다.

121) 金聖範, <羅州 伏岩里 遺蹟 出土 百濟 木簡> 《古代的 木簡, 그리고 山城》 (國立文化財研究所 40年, 韓國博物館開館100周年 紀念 學術심포지움 發表文)

12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9 《궁남지》 78~84. “西卍後巷已達已斯丁依舌△丁” “歸人中口四小口二 邁蘿城法利源 水田五形”

123) 李鎔賢, 1999 <扶餘 宮南池 出土 木簡의 年代와 性格> 《宮南池》

달리 中國 律令의 年齡等級制에서 西魏·隋·唐代에 ‘丁中制’가 서서히 確立되었는데, 그것이 百濟 律令에 그대로 適用되었다고 보는 說도 있다.¹²⁴⁾ 아무튼 이에 대해선 앞으로 새로운 木簡 資料의 發掘을 기다려야겠다. 그 다음 ‘文丁’은 扶餘 雙北里 현대들 遺跡에서 나온 85-8號 木簡의 “△率牟氏丁一 × / △◎隆△丁一× / △酒丁一 / × △”[前面, ◎는 구멍, ×는 破損]와¹²⁵⁾ 그리고 扶餘 陵山里寺址 出土 木簡의 ‘資丁’과 比較가 된다. ‘文丁’을 文翰을 담당하는 職役으로 보는 說이 제기되었는데,¹²⁶⁾ 이 역시 앞으로 좀더 具體的인 檢討를 要한다.

4號 木簡은 地方 官衙에서 米를 거두어들여(“受米”) 바치는(“貢”) 일과 關聯된 事實을 記錄한 行政文書로 여겨진다.

5號 木簡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丁一	中口
前面: 大祀◎村△弥首山△△	牛一
△丁一	

涇 水田二形 得七十二石 △△在月三十日△△
 後面: ◎白田一形 得六十二石
 △耕麥田一形△

이 木簡은 大祀村 內的 土地와 收穫量 및 人力과 畜力에 관한 事項을 記述한 一種의 村落文書이다. ‘中口’, ‘丁’ 등 年齡區分에 따른 人口 編制, ‘水田’·‘白田’·‘麥田’ 등 耕作地의 區分, 宮南池 木簡에서도 보였던 ‘形’이라는 土地 單位, ‘石’으로 表示된 收穫量 등은 당시 村落과 農民生活 및 이들에 대한 國家의 統治 樣態를 理解하는 데 主要한 面을 전해준다.

6號 木簡은 封緘(封檢)木簡으로 表面에 ‘上’ 裏面에 ‘第十一草’라 표기되어 있다. 伏岩里 地域에 있던 地方官衙에서 中央의 上級 官廳에 올리는 機密文書を 담는 木簡으로 여겨진다. 9號 木簡에선 前面에 “麻中練六四斤”이란 글자가 確認된다. 受取關係 文書의 일부로 여겨진다.

12號 木簡은 前面에 “軍那德乎至安(軍那의 德乎가 安全하게 이르렀다)”라 적혀있다.

124) 尹善泰, 2007 《木簡이 들려주는 百濟 이야기》 172~180

125) 李昉燮·尹善泰, 2008 <扶餘 雙北里 현대들·北浦 遺跡 調查成果> 《木簡과 文字》 創刊號

126) 金聖範, <앞 논문>

軍那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熊津都督府 하에 設置된 6州 중의 하나인 帶方州 하의 縣이다.¹²⁷⁾ 신라 武州 咸豐縣이 백제의 屈乃縣이라 하였으므로, 같은 地域이다. 이에 대해, ‘屈奈’라는 地名을 百濟 때 이미 보다 洗練된 形態인 ‘軍那’로 使用하였고, 이것을 熊津都督府에서 襲用하려고 한 計劃案을 三國史記 地理志 末尾에 轉載한 것으로 보아한다고 主張하기도 한다.¹²⁸⁾ 이를 耕作地 獲得 關聯 事實을 記錄한 것인 듯한 10號 木簡에서 “△△州久三十田得”이라고 한 것과 連結해 보면, 伏岩里 木簡의 年代에 주요한 論據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백제 지역 출토 木簡은 百濟 律令에 관한 몇 가지 점을 말해준다. 百濟에서 늦어도 7세기 以後에 民을 나이에 따라 編制하는 戶令, 土地의 單位에 따른 區分과 課稅 등을 규정한 田令, 貸食制에 관한 令, 文書行政과 相關한 書式을 정한 公式令, 度量衡에 관한 令 등이 存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史書에서 전하는 바에 의할 때, 官位令과 中央과 地方 官署의 職員 數와 그 官等を 規定한 職員令 등이 存在하였음을 推定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金石文과 木簡을 통해 新羅와 百濟에서 律令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었다. 律令의 受容은 中央集權的인 國家의 成立과 密接히 聯關된 것이다. 즉 律令은 ‘大王國土’¹²⁹⁾에 있는 人民과 地域을 一元化된 方式으로 支配하려는 指向性을 담은 法律體系였다. 자연 그 안에는 田地區劃, 編戶, 力役動員, 租稅收取, 官職의 數와 그 官等 등에 관한 規定이 包含되기 마련이다. 이런 면을 重視하여, 비록 具體的인 律令 條項이 確認되지 않지만, 高句麗에서 中央集權의 領域國家의 成長 推移와 聯關시켜 關聯 文獻 史料를 통해 律令의 存在를 想定하고 그것의 再構成를 試圖한¹³⁰⁾ 研究와, 新羅史의 發展에서 律令이 지닌 意味를 解釋해 보려 한 試圖,¹³¹⁾ 그리고 百濟 律令의 頒布時期를 그 地方 制度의 정비과정과 連結하여 考察해보려는 논고¹³²⁾ 등은 그 나름의 意味를 지닌 試圖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考古學的 遺蹟·遺物에 대한 分析을 통해, 三國時代 律令의 受容과 施行을 밝혀보려 한 研究도 그러한 視角에서 追求된 論考이다. 즉 遺跡에서 出土된 遺物로 볼 때 어느 시기부터 威信財인 金屬製 裝身具나 武器 등을 통해 權力을 誇示하는 效

127) 《三國史記》 47, 地理志4 帶方州條

128) 金聖範, 2009 <앞 논문>

129) 徐永大, 1992 <中原高句麗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36~53

130) 盧重國, 1979 <앞 논문>

131) 姜鳳龍, 1992 <三國時期的 律令과 民의 存在樣態> 《韓國史研究》 78

132) 洪承佑, 2009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 지배> 《韓國古代史研究》 54

果가 사라지고, 同一한 模樣의 服飾을 着用하면서 색깔이나 材質 差異만으로 政治的 位階의 差異(官位)를 나타내는 方式으로 바뀌었음에 주목하고, 그리고 文書行政 시스템의 發達을 想起시키는 木簡 외에 벼루와 文房具類의 普及을 나타내는 遺物 및 都市遺跡 등에 留意하여, 이런 변화를 律令(制)의 受容과 施行에 따른 樣相으로 解析하였다.¹³³⁾ 그리고 6世紀 中盤 이후 整形化된 帶金具가 各地의 古墳에까지 擴散됨을 중시하여, 일정한 樣式의 帶金具나 冠帽·衣服을 着用한 무덤의 被葬者들은 官人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정한 衣服令이나 喪葬令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³⁴⁾ 이런 研究들은 中央集權的 領域國家 體制와 律令制 研究에 考古學的 遺物 遺跡을 積極活用한 것으로, 그 主張의 具體的인 面에서의 妥當性 與否를 떠나 論議의 幅을 넓힌 새로운 試圖라 할 수 있다.

이어 現在까지의 資料를 통해 韓日 古代國家들 간의 律令文化 交流의 一面을 살펴보자.

2. 古代 韓日 間 律令文化의 交流 事例

(1) 百濟의 貸食制와 日本의 出舉制

百濟 ‘佐官貸食記’ 木簡에서 記述된 利率이 50%인데, 이는 日本 養老雜令에 規定한 公出舉의 利率과 同一하다. 따라서 養老雜令이 唐雜令을 直接 受容한 것인지 百濟의 그것을 受容한 것인지가 일단 問題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日本의 이른 時期 出舉木簡, 가령 7世紀 後半의 福岡縣 大宰府跡 出土 木簡에서 “八月△日記 貸稻數…”式으로 記述되어 百濟 貸食記 木簡의 記載樣式과 相通한다. 다른 出舉木簡에서도 ‘貸稻’라는 用語가 쓰이는 등 百濟의 그것과 통하는 것이 적지 않다. 아울러 ‘末’·‘上’으로 償還與否를, ‘石’과 ‘斗’ 외에 ‘半’과 ‘甲’으로 穀量을 表記한 例도 보인다.¹³⁵⁾ 이런 점에서 日本의 出舉制 運營을 規定한 養老雜令의 淵源을 一次的으로는 百濟 律令文化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日本에서 出舉는 春·夏, 즉 播種期인 3월과 端境期인 5월에 행해졌다. 그런데 貸食記 木簡에서는 6월에 행하였다고 전한다. 이런 兩者 간의 差異에 대해선, 中國의 例를

133) 山本孝文, 2006 《앞 책》

134) 李漢祥, 1997 <5~7世紀 百濟의 帶金具> 《古代研究》 5 ; 山本孝文, 2009 <考古學으로 본 三國時代의 官人> 《韓國古代史研究》 54

135) 三上喜孝, 2009 <앞 논문>

들어 糧穀 貸與가 地域 事情에 따라 差異가 있었음을 指摘한 見解가 留意된다.¹³⁶⁾ 나아가 오히려 日本의 例로 보아 百濟에서도 2次例 行해졌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겠다. 현재 알려진 百濟의 貸食文書는 하나뿐이고, ‘貸食’이란 표현이 6月 端境期에 食糧을 供給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勘案하면 播種期에 種字穀을 貸與하였을 可能性을 想定할 수도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高句麗에서 3月과 7月 사이에 糧穀을 賑貸하였다는 記錄도 參考가 된다.

(2) 日本의 束把制와 新羅의 結負法

다음으로 日本의 出舉木簡에선 糧穀의 量 單位로 ‘石’과 ‘斗’외에도 ‘束’과 ‘把’를 使用하였다. 日本의 束把制는 稻를 ‘束(たば)ねる’ 한 것에서 由來하였다고 하는데,¹³⁷⁾ 束은 韓國語에선 稻 등의 穀食이나 花 등을 묶은 ‘다발’이며, ‘たば’도 ‘다발’과 같은 語源으로 여겨진다. 新羅의 土地 面積 單位는 結·負·束·把이었다. 面積單位로서 結負制는 新羅에서 늦어도 7世紀 中盤에는 成立되었다.¹³⁸⁾ 把는 한 움큼(손으로 잡아 쥘 수 있는 量)의, 束은 한 묶음의, 負는 한 등짐의 稻 줄기를 말한다. 1結은 100負, 1負는 10束, 1束은 10把가 된다. 즉 이런 量이 수확되는 어떤 標準 田土의 面積에 의거해 各 單位의 絶對 面積을 算出한 후, 그것을 全國에 適用하여 土地 面積 單位로 施行하였던 것이다. 일단 정해진 후, 이 單位들은 農地뿐 아니라, 垆地·山林·鹽田 居住地域 등의 絶對 面積을 算出하는 單位로도 使用되었다.¹³⁹⁾ 자연히 이런 結負法은 律令에 依據해 規定되었을 것이다. 結·負·束·把는 이후 一貫된 絶對 面積 單位로 高麗時代까지 使用되었다. 이어 朝鮮時代에는 農地의 肥瘠에 따른 所出의 차이를 반영하여, 300斗의 所出을 내는 面積을 1結로 하는 수확량 기준의 토지 면적 단위가 되었다. 아무튼 거슬러 올라가면 ‘負’ ‘束’ ‘把’의 語源이 나타내는 바에 따라 이것이 절대면적 단위를 나타내는 제도로 정립되기 이전, 즉 糧穀의 所出量 單位로 使用된 것은 늦어도 7세기 중반보다 이른 시기부터였을 것이다. 그 시기에 ‘束’·‘把’가 全國에 걸친 租稅 收取에서 一定한 곡식의 量을 나타내는 單位로 通用되었다면, 負·束·把로 표현되는 糧穀의 絶對量에 대한 規定이 尙으로 定해졌을 것이

136) <위 논문>

137) 井上光貞 等校注, 《律令》 570

138) 663년 11월 百濟復興運動軍을 鎮壓한 뒤 文武王이 金庾信에게 田 500결을 賜與하였다(《三國史記》 金庾信傳 中).

139) 李宇泰, 1989 <新羅時代의 結負法> 《泰東古典研究》 5 ; 2002 <古代度量衡制의 發達> 《講座 韓國古代史》 6

다. 이것을 늦어도 7세기 中葉에는, 앞서 말했듯이 絶對 面積單位로 다시 設定하였던 것이다. 6세기 後半의 城山山城 出土 木簡에서는 糧穀의 量 單位로 石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건대, 이 무렵에는 石斗制가 糧穀의 量單位로 公式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糧穀의 量 單位로서 石斗制와 ‘把·束制’가 병행하여 사용되었던 듯한데, 아마도 把束制가 먼저 행해지다가 어느 시기부터 石斗制와 並行하여 사용되고, 늦어도 7세기 中葉 이후에는 量制로 石斗制만 행해지고, 束把制는 土地面積 單位로만 使用하게 되었다. 日本에서 束把制가 記錄上에 登場한 것은 大化改新詔에서 였다.¹⁴⁰⁾ 大化改新詔에 담긴 내용이 그 당시의 것인지에 대해선 오랜 論難이 있어 왔는데, 아무튼 日本에서 束把制는 8세기대에도 糧穀의 量制로 使用되었다. 일단 그 名稱으로 볼 때, 新羅와 日本의 束把制는 그 淵源에서 相互 密接한 聯關性이 있다. 앞으로 兩國의 束把制의 起源과 그 施行 樣相에 대한 보다 具體的 檢討와 論議가 要望되는 바이다. 이는 兩國의 律令文化 交流에 대한 한 事例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月城 垓子 2號 木簡과 養老書式令

月城 垓子에서 出土된 2號 木簡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大烏之郎足下万拜白之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斤
牒垂賜教在之後事者命盡
使內

(* 判讀者에 따라 몇 字 差異가 있고, 각 行의 順序 配列에서도 差異가 있음)

이 木簡의 作成年代에 대해선 6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大烏之郎의 大烏之를 新羅 官等 중 第15位의 大烏로 보고, 金石文 上에서 이 官等에 대한 表記를 ‘大烏’라 한 것은 南山新城碑 第3碑(591) 以後부터이고, 그 以前인 永川 靑堤碑 丙辰銘(536)에선 大烏第, 丹陽赤城碑(550)에선 大烏之라 하였으므로, 월성 해자 2호 목간은 536년에서 591년 사이인 550년 무렵에 쓰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위 관독문의 第3行을 第1面으로 보아, 文書를 解析한 說이 提起된 바 있다. 이

140) 日本의 束把制에 대한 言及은 《日本書紀》 25, 大化2년 正月條에 실린 大化改新詔에서 보인다. 즉 “長 30步 廣12步를 1段으로하고, 10段을 1町으로 하며, 1段마다에 租로 稻2束2把를 1町마다에 稻 22束을 부과한다”고 하였다. 이에 의할 때 束把는 量單位가 된다.

說은 大鳥之郎이 文書의 受信者이고, 萬引을 그 發信者로 보았다. 그래서 이 文書를 寫經에 필요한 종이 購入을 請求하기 위한 牒式文書로 보았다. 나아가 이런 文書 樣式이 大鳥郎과 萬引이라는 個人과 個人 간의 上申文書로 使用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이 문서 양식이 7世紀 後半 日本의 牒式木簡과 8世紀 養老公式令의 牒式 規定에 影響을 주었을 것이라고 이해하였다.¹⁴¹⁾ 이는 日本 養老公式令의 牒式 規定이 唐 公式令과는 달리 官司의 下達文書가 아니라 官人 個人의 上申文書로 規定되었던 점과 類似함에 着目한 見解이다.

이에 대해, 이 목간의 ‘牒’은 札로서 簡牘을 뜻하며, “牒垂賜教在之後事者命盡”을 “牒함 내리신 敎가 있었습니다. 後事는 命한대로 다하도록”이라 하지 않고, “牒(木簡)을 내리신 命命(敎)이 있었습니다. 뒤의 일(後事)은 命한대로 다 하였습니다”로 해석하여, 이 木簡文書는 牒式 文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說이 提起되었다.¹⁴²⁾ 아울러 이 木簡의 “某足下白之”는 日本 古代의 ‘某前申(白)’ 形式의 文書木簡에서 보이는 ‘白之’와 비슷하며, 그것의 淵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 때 ‘之’는 文章終結詞로서의 ‘之’인데,¹⁴³⁾ 이 같은 ‘之’의 用法은 古代 韓國에서 먼저 사용되었고 이후 日本에 影響을 주었을 것이란 指摘이 앞서 있었다.¹⁴⁴⁾

月城 垓子 2號 木簡文書가 新羅에서 令으로 規定한 文書樣式인지, 또 이것이 養老公式令과 直接 聯關되는지 與否는 앞으로 좀더 具體的 事例 檢討와 論議가 必要한 問題이다. 그러나 일단 新羅 또는 百濟의 書式과 日本의 그것 간에는 聯關이 있을 蓋然性은 充分히 있는 만큼, 이 또한 兩側 간의 律令文化 交流의 한 例로 考慮 對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日本의 地方 各地에서 出土되는 出舉木簡과 各種 文書木簡이 말해주

141) 위에서 提示한 文書에서 第1行의 ‘萬拜’를 ‘萬引’으로 읽고 이를 人名으로 본 견해이다.

李成市, 2005 <朝鮮의 文書行政> 《文字と古代日本 2》 吉川弘文館; 三上喜孝, 2006 <文書樣式 ‘牒’의 受容을めぐ어一考察> 《山形大學 歷史·地理·人類學論集》 7

142) 李京燮, 2009 <新羅 月城 垓子에서 出土한 ‘2號 木簡’에 대하여> 《韓國古代史 研究의 現段階 - 石門 李基東教授 停年 紀念 論叢 -》

143) 南豐鉉, 2005 <韓國古代史讀文의 文末語助辭 ‘之’에 대하여> 《口訣研究》 15; 李宇泰, 2005 <金石文을 통하여 본 漢字의 導入과 使用> 《韓國古代史研究》 38

144) 藤本幸夫, 1996 <古代朝鮮의 言語と文字文化> 《日本の古代 14》(中央公論社); 犬飼隆, 2006 <日本語を文字で書く> 《列島の古代史 6 - 言語と文字 -》 6 (岩波書店)

한편 終結詞 ‘之’가 古代 韓國에서 비롯된 것(吏讀)이 아니라, ‘之’의 그런 用例는 秦·漢의 簡牘에서도 確認됨을 밝힌 연구가 발표되었다.[金秉駿, 2009 <樂浪의 文字 生活> 《古代 文字資料로 본 東亞細亞의 文化交流와 疏通》(동북아역사재단)] 그런데 古代 中國 내에서 행해진 ‘之’의 다양한 用例 중 그런 것이 있음은 同意하지만, 終結詞로서 ‘之’가 많이 사용된 것은 역시 古代 韓國의 漢文 敍事에서의 特性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는 文書行政의 普及과 文字生活의 成熟이 律令制 施行의 土臺가 되었다는 事實이 留意된다. 이런 文字生活의 活性化에는 百濟나 新羅의 木簡使用을 포함한 文字生活文化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도¹⁴⁵⁾ 좋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國家間 交流의 產物인 동시에 移住를 포함한 兩側 住民間 交流의 結果라고 여겨진다. 앞으로 이런 면에 좀더 留意할 必要性이 提起되는 바이다.

제2절 佛敎文化의 交流

1. 僧侶와 制度의 交流

6世紀 中葉 百濟에서 倭國으로 佛敎가 傳해진 以後, 兩國間에는 緊密한 佛敎文化의 交流가 있었다. 552년 12월 釋迦佛金銅像과 幡蓋 및 약간의 經論이 百濟에서 倭國으로 보내졌으며, 이어 554년에는 百濟가 曇慧 등 9인의 僧侶를 왜에 派遣하여 이미 가있던 僧侶 道深 등 7人和 交代케 하였다. 이 시기 百濟와 倭國 間 佛敎文化의 交流는 軍事적·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한 바가 컸다. 즉 百濟가 倭國의 軍事援助를 獲得하기 위해 5經博士와 여러 분야의 전문가인 師와 工 등을 보내었고 불교의 전파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당시 百濟와 倭國 間 文化交流 樣相의 一面을 보여준다. 아무튼 이후 百濟와 倭國 間에 佛敎文化의 交流가 進展되었으며, 兩國 佛敎界 間의 人的 交流도 增大되었다. 577년에는 百濟에 使行하였던 大別王이 귀국할 때, 百濟가 經論 約간 卷과 아울러 律師·禪師·比丘尼·呪禁師·造佛工·造寺工 등을 함께 파견하였고, 倭國은 이들을 難波의 大別王寺에 安置하였다.¹⁴⁶⁾ 587년에는 百濟가 惠總 등의 僧侶들과 佛舍利를, 그리고 數名의 僧侶 律師와 寺工·鑪盤博士·瓦博士·畫工 등 技術者들을 倭國에 보냈다. 이 해에 시작한 法興寺의 創建은 이들 百濟 僧侶와 技術者들에 의해 主導되었을 것이다. 또 이 해에 왜국은 司馬達等의 딸인 善信尼 등 3명의 比丘尼가 歸國하는 百濟國使를 따라 百濟로 가 修學케 하였다.

高句麗는 570년에 倭에 使臣을 派遣하여 兩國間에 國交가 열렸다. 아마도 韓半島 中部 地域을 차지하며 强盛해진 新羅가 中國의 南朝와만 交流하던 데서 벗어나 高句麗의 背

145) 三上喜孝, 2008 <日本 古代의 木簡의 系譜> 《木簡과 文字》 創刊號

146) 《日本書紀》 敏達紀 6년 11월조

後에 있던 北齊와 交流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에 대한 對應으로 高句麗도 新羅의 背後에 있는 倭國과 通交하는데 熱意를 보이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¹⁴⁷⁾ 高句麗에서 倭國으로 佛敎文化의 傳來도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570년 이후 兩國 간의 佛敎文化와 僧侶의 交流도 이어졌다. 倭國 僧侶 鞍作得志, 道登, 行善 등이 高句麗에 留學하였다.¹⁴⁸⁾ 新羅도 579년 倭國에 佛像을 보냈다.¹⁴⁹⁾ 이런 周邊 狀況의 進展은 百濟가 倭國과의 佛敎文化 交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였던 한 要因이 되었던 것 같다.

한편 倭國에서는 587년 蘇我馬子が 佛敎 受容에 反對하던 物部守屋을 除去한 뒤, 佛敎가 本格的으로 受容되었다. 593년 法興寺塔의 刹柱를 세울 때, 蘇我大臣 등 100餘人이 함께 百濟服을 입고 佛舍利 奉安式에 參席하였다. 596년 11월 法興寺가 完工되자, 百濟인 慧聰, 고구려인 慧慈를 이곳에 駐錫케 하였다.¹⁵⁰⁾ 이 두 승려는 당시 國政을 主導하던 聖德太子의 스승이 되었으며, “佛敎를 弘演하여 三寶의 棟樑이 되었다”고 한다.¹⁵¹⁾

百濟에서 608년 曆法과 天文에 관한 書籍과 함께 觀勒이 보내졌고, 고구려 승려 僧隆과 雲聰이 倭國에 갔다. 觀勒은 624년 倭國 最初의 僧正이 되었다.¹⁵²⁾ 625년 高句麗가 僧侶 慧灌을 파견하니 倭國 朝廷이 그를 僧正으로 삼았다.¹⁵³⁾ 그는 隋로 건너가 吉藏에게 三論學의 宗旨를 배웠으며, 倭國에서 三論學을 弘布해 日本三論宗의 始祖가 되었다. 이 시기 倭國에서 活躍한 高句麗人 慧慈와 慧灌, 百濟人 慧聰과 觀勒은 모두 三論學에 깊은 造詣가 있었으며 成實論에도 通達한 僧侶로서 聖德太子와 깊은 關係를 가졌다.¹⁵⁴⁾ 이러한 倭國과 百濟 및 高句麗 간의 佛敎文化와 僧侶의 交流는 이 시기 이들 國家들 간의 密接한 政治的 友好關係에 肯定的으로 作用하였을 것이다.

한편 607년(推古 15년) 倭國은 隋와 通交하였으며, 608년에는 遣隋使와 함께 高向玄理 등 4명의 留學生과 旻 등 4명의 學問僧이 파견되었다. 623년 신라는 왜국에 불상과 金塔·舍利 등을 보내면서 왜의 渡唐留學僧인 惠光, 惠齋과 醫師 惠日, 福因 등을 新羅使와 함께 귀국하게 하였다.¹⁵⁵⁾ 이들의 歸國 루트는 從前의 百濟路를 택하였던 것과는 다른

147) 李成市, 1990 <高句麗と日隋外交> 《思想》 795 ;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岩波書店) 재수록

148) 中井眞孝, 1994 <高句麗佛敎と日本の古代> 《朝鮮と日本の古代佛敎》(東方出版) 45~49

149) 《日本書紀》 20, 敏達紀 8년 10월

150) 《日本書紀》 22, 推古 4년 11월

151) 《日本書紀》 22, 推古 3년 5월 丁卯

152) 《日本書紀》 22, 推古 32년 4월 壬戌

153) 《日本書紀》 22, 推古 33년 정월 戊寅

154) 《三國佛法傳統緣起》 卷中, 成實

155) 《日本書紀》 22, 推古 31년 7월

것이였다. 以後 632년과 639년, 640년 唐에 갔던 新羅使가 歸國 할 때 倭國의 入唐 留學僧과 學生들이 함께 돌아왔고, 이들은 신라에서 왜국으로 돌아가는 루트를 취하였다 (<표 3>참조). 그리고 654년에 智宗, 658년에 智通 등이 入唐할 때 新羅를 통해 갔다. 이런 일들이 당시 兩國의 關係 進展에 어떠한 影響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論議가 있었다. 690년에도 渡唐留學僧인 智宗 등이 신라를 거쳐 귀국하였다.¹⁵⁶⁾ 아무튼 이는 新羅와 倭國 간 佛敎文化 交流에 肯定的인 影響을 주었을 것이라고 推測할 수 있겠다.

<표 3> 日本의 新羅留學僧과 唐留學僧 (歸國年 基準)¹⁵⁷⁾

	新羅 留學僧	唐 留學僧
文武王 以前(~660)		福仁(623), 惠齋(623), 惠光(623), 僧旻(632), 靈雲(632), 惠隱(639), 慧雲(639), 請安(640), 道昭(651)
文武王代(661~680)	道行(668)	定惠(665), 妙位(668), 法勝(668),
神文王代(681~691)	觀常(685), 雲觀(685), 行心(686), 智隆(687), 明聰(689), 觀智(689)	
孝昭王代(692~701)	辨通(696), 神叡(693 ?)	智宗(690), 義德(690), 淨願(690)
聖德王代(702~736)	義法(707), 義基(707), 忽集(707), 慈定(707), 淨達(707), 行善(718)	道慈(718), 智鸞(703?), 智雄(703?)

8세기 중반 화엄 전적을 일본에 가져온 審祥의 경우, 그가 留學한 나라가 唐이라는 說과 新羅라는 說이 있는데, 그가 新羅에 다녀간 것은 확실하다.

690년 新羅 僧侶 詮吉과 級浪 北助知 등 50여 인이 日本에 歸化하였다.¹⁵⁸⁾ 758년에도 新羅 僧侶 32인과 比丘尼 2명 및 남녀 40명이 武藏野에 정착하는¹⁵⁹⁾ 등 민간 차원의 교류가 계속 행해졌다.

三國과 日本의 佛敎文化 交流의 자취는 寺刹의 伽藍 配置 構圖를 통해서도 確認된다. 飛鳥時代 寺院인 四天王寺의 경우, 中門-塔-金堂-講堂을 南北 一直線上에 配置하고 中門에서 講堂에 이르는 左右 回廊을 설치한 構圖였다. 이는 扶餘의 軍守里 廢寺址와 定林寺 등에서 보이는 典型的인 百濟의 1塔 1金堂式 伽藍 配置와 直結되는 面을 보인다. 607년에 完成된 것으로 推定되는 法隆寺 創建 伽藍은 現 法隆寺의 東南方에 자리한 若草 伽藍址에 있었다. 塔과 金堂의 規模가 현재의 것과 거의 비슷한 이 寺址는 1塔式 伽藍

156) 《日本書紀》 30, 持統 4년 9월 丁酉

157) 이 표는 鄭炳三, 2002 <古代 韓國과 日本의 佛敎 交流> 《韓國古代史研究》 27에서 인용.

158) 《日本書紀》 30, 持統 2월 戊午

159) 《續日本紀》 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년 8월 癸亥

配置 構圖를 보여준다.¹⁶⁰⁾ 또한 日本 最初로 建立된 法興寺(飛鳥寺)의 경우, 1塔 3金堂式 인데 이는 平壤의 淸岩洞 廢寺址와 定陵寺址의 그것과 직결되는 伽藍 配置 樣式을 보여 준다. 그리고 奈良에 있는 川原寺의 伽藍이 飛鳥寺의 伽藍 配置를 變形한, 즉 東金堂을 除去한 樣式임이 밝혀져 日本 古代의 寺院 建築에 미친 高句麗의 影響을 말해준다. 단 高句麗의 塔은 8角塔인데 비해 百濟의 塔은 4角塔이고, 飛鳥寺의 그것은 4角塔이다. 飛鳥寺의 경우는 高句麗의 伽藍 配置 構造에다 百濟 樣式의 塔이 세워진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新羅 寺院의 伽藍 配置와 類似한 例는, 7世紀 말 8世紀 代에 登場하였다. 698년 奈良에 처음 건립되었다가 718년 平城京으로 移建된 藥師寺에서 확인된다. 藥師寺式 伽藍 配置는 慶州의 佛國寺 등에서 보이는 雙塔式 伽藍 構圖와 直結된다. 이런 雙塔式 伽藍 配置를 지닌 가장 이른 시기 新羅의 절이 679년에 세워진 四天王寺인데, 최근 그 遺址가 發掘되었다. 단 新羅의 그것은 金堂 左右에서 東西 回廊에 이르는 翼廊이 있으나, 藥師寺에는 그것이 없고 처음부터 北回廊이 있어 差異를 보인다. 新羅의 雙塔式 伽藍 配置를 取하면서도 變形된 面을 나타냈다.¹⁶¹⁾ 무엇보다 塔의 材質에서 三國이나 日本 모두 처음에는 木塔을 세웠다. 그러나 7世紀에 들어서 三國에선 石塔을 세우게 되었고, 日本에선 계속 木塔을 造營하였다. 兩側에서 각각 良質의 石과 木이 產出되는 地域의 特性에 따른 文化 樣相의 差異라 하겠다.

國家의 佛敎 寺院 運營에 있어서도 新羅와 日本은 비슷한 面을 나타냈다. 新羅는 神文王 4년(684)에 四天王寺, 奉聖寺, 感恩寺, 靈廟寺, 永興寺에 成典을 設置하여 寺院의 維持와 經營을 맡도록 하였다. 日本에서는 680년 國大寺 制度를 施行하여 造寺司를 設置하고 寺院 運營을 擔當하도록 하였다. 寺成典과 造寺司는 그 性格上 類似한 一面을 보여준다.¹⁶²⁾ 이 시기 新羅와 日本의 佛敎는 護國佛敎的 性格을 강하게 지녔는데, 日本의 경우 8世紀 中葉 護國經의 功德으로 政治와 社會의 安定을 바라는 國分寺 制度의 運營을 시작하였다. 즉 諸國에 國分寺를 설치해 7層塔을 1개 만들고, 金光明經最勝經과 法華經을 10部씩 書寫하고, 寺名은 僧寺는 金光明四天王護國寺라 하며 尼寺는 法華減罪寺라 하였다. 每月 金光明經을 읽고 半月說戒하며 6齋日에 殺生을 禁하도록 하였다. 經典을 讀誦함으로써 災殃을 물리치고 國家의 平安을 祈願하며 鎮護國家를 指向하는 이 國分寺는 唐 則天武后가 施行했던 大雲經寺 制度를 본 딴 것이라 한다.¹⁶³⁾ 이런 官寺佛敎 제도가 이 시

160) 張慶浩, 1994 <百濟와 日本의 古代 寺刹建築> 《百濟史의 比較研究》(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61) 金正基, 1982 <新羅伽藍配置와 日本에의 影響>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3, 203~207

162) 鄭炳三, <앞 논문>

기 新羅에서도 행해졌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神文王 4년의 成典寺院이 이러한 官寺 佛教라고 보는 설이¹⁶⁴⁾ 있는가 하면, 이들 成典寺院은 어디까지나 王室 寺院이므로 이를 官寺佛教라 볼 수 없다는 反論이¹⁶⁵⁾ 있는 등 논란이 분분하다.¹⁶⁶⁾ 일단 日本의 國分寺가 地方 各地에 設置되었던 데에 비해 新羅의 成典寺院은 首都에만 세워져서 差異를 보인다. 아무튼 앞으로 이러한 고대 日本의 國分寺 制度和 新羅의 成典寺院 및 隋·唐의 大雲寺(開元寺) 制度 등을 比較하는 檢討가 要望된다.

한편 三國과 倭國에서 佛教에 대한 理解가 깊어짐에 따라, 僧侶 交流와 함께 佛教 關聯 典籍도 交流되었다.

2. 佛教 典籍의 交流

百濟에서 倭國으로 佛教가 傳來된 初期부터 약간의 經論이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 典籍의 性格을 알 수 없다. 아울러 7世紀를 前後한 時期 三國人의 著述로서 倭國으로 전해진 불교 관련 書籍도 그간 구체적으로 把握되지 않아 왔다. 그런 면에서 《大乘四論玄義記》의 著者를 둘러싼 最近의 論議가 留意되는 바이다. 이 책은 12권 23편으로 이루어졌다. 확인되는 23편 중 현재 전해지는 것은 續藏經에 수록된 二諦義, 佛性義, 斷伏羲, 金剛心義, 二智義, 感應義, 三乘義, 莊嚴義, 三位義 등 9편과 새로 발견된 筆寫本에 收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初章中假義, 八不義 등 총 11편이며, 이 중 二諦義, 佛性義의 일부 내용은 결락되어 있다. 나머지 12편 중 涅槃義, 法身義, 淨土義, 般若義 등 4편은 원래 몇 卷에 수록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권8, 11 등은 逸失되었다. 이 책의 著者에 대해 여러 文獻에서 ‘僧正 慧均’에 의해 編纂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6世紀 後半 中國의 江南 지방에서 活動한 法朗(507~581)을 자신의 스승으로 重視하는 內容을 이 책에 담고 있어, 法朗 門下에서 修學하여 吉藏(549~623)보다 약간 이른 時期에 活動하였을 것으로 把握되고 있다.¹⁶⁷⁾ 著者인 慧均을 종래 中國人으로 여겨져 왔는데, 그를

163) 石田瑞曆, 1983 《日本佛教史》(岩波書店); 李永子 譯, 1988 《일본불교사》(民族社) 60~64

164) 李泳鎬, 1983 <新羅 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韓國史研究》 43

165) 尹善泰, 2000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韓國史研究》 108

166) 新羅 成典寺院에 관한 論議는 다음 論文 參照. 蔡尙植, 1984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機能과 構造> 《釜山史學》 8; 朴南守, 1996 <統一新羅 寺院成典과 佛寺의 造營體系> 《東國史學》 28; 1996 《新羅手工業史》(신서원) 재수록

167) 이상의 大乘四論玄義에 대한 논의는 아래 글에 의거하였다. 伊藤隆壽, 1969 <慧均 ‘大乘四論玄

百濟人으로 보아야 한다는 主張이 근래 提起되었다.¹⁶⁸⁾ 만약 이 說이 妥當性을 지닌다면 初期 日本佛敎의 가장 주요한 流派인 三論宗의 形成에 高句麗 뿐 아니라 百濟의 三論學이 至大한 影響을 주었음을 再確認할 수 있으며, 6世紀에서 7世紀 前半에 걸쳐 三論學을 매개로 中國의 南北朝와 隋·唐, 韓國의 三國, 倭國으로 연결되는 東아시아 佛敎文化 交流의 주요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具體的인 資料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은 現傳하는 韓國의 가장 오래된 佛敎 關聯 著述이 되는 셈이다.

慧均을 百濟人으로 보고 《大乘四論玄義記》가 百濟에서 著述된 것으로 보는 주된 論據는, 이 책에 기술된 內容 중 慧均의 講論에 대한 質疑 應答을 담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檢討를 통해서 이다.

問: (前略) 앞의 10명의 學者들의 見解가 모두 잘못을 擁護하는 것이어서 論破되었다고 한다면, 此間(이곳)의 寶惠淵師와 祇洹雲公이 眞如를 (佛性的) 正因性(本질)이라고 主張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어떻게 論해야 하는가?

答: 일단 그들의 主張을 살펴보면 (중략) 論破할 對象에도 미치지 못한다. 마치 耽羅·刀牛(?)利 등의 사람이 禮樂의 教化를 입지 못한 것과 같다.

즉 여기에서 慧均이 논박한 寶惠淵師와 祇洹雲公은 寶熹寺의 淵師와 祇洹寺의 雲公으로서, 이들은 佛敎에 관한 中國 文獻에서 確認되지 않는 인물이고, 寶熹寺도 그러하다. 그런데 최근 扶餘의 陵山里 절터에서 발견된 20餘種의 木簡 중에서 ‘寶惠寺’ 라는 기록이 보여, 寶惠寺가 百濟의 寺刹이라는 점이 確認되었다. 그리고 野蠻人의 例로써 당시 中國人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耽羅人을 든 것은 이 책이 中國人의 著述로 보기 어려운 점이니, 이에서 말하는 ‘此間(이곳)’은 百濟를 뜻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런 主張에 대한 反論이 곧 提起되었다.¹⁶⁹⁾ 즉 위 문답에서 말하는 寶惠淵師와 祇洹雲公은 南中國의 金陵 지역을 중심으로 活躍하였던 寶亮法師(442~507)와 光宅 法雲을 말하며, 《大乘四論玄義記》를 百濟에서 傳寫할 때 寶亮을 寶惠로 誤寫하였을 가능

義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36 ; 1971 <‘大乘四論玄義’의 構成と基本的 立場> 《駒澤佛敎學部論集》 2 ; 1974 <慧均‘大乘四論玄義’について(二)> 《印度學佛敎學研究》 40 ; 1974 <‘大乘四論玄義’ 逸文の整理> 《駒澤佛敎學部論集》 5

168) 崔鉉植, 2007 <百濟 撰述 文獻으로서의 ‘大乘四論玄義記’> 《韓國史研究》 136 ; Jorg Plassen, 2007 “On the significance of the Daeseung saron hyeunui gi大乘四論玄義記 for research on early Korean Buddhist thought -Some initial observations focusing on hwajaeng” 《韓國史研究》 136

169) 金成哲, 2007 <‘大乘四論玄義記’는 백제에서 찬술되었나? -崔鉉植 教授의 百濟 撰述說에 대한 反論-> 《韓國史研究》 137

성이 있고, 책 內容의 展開上으로도 그렇게 볼 경우 無理없이 論旨가 展開된다고 主張하였다. 이어 그런 批判에 대해 ‘亮’을 보다 劃이 많은 ‘憲’로 傳寫하였을 가능성은 없으며, 또 陵山里 寺址에서 出土된 木簡에선 ‘憲’字가 분명한 만큼 ‘寶憲’를 ‘寶亮’의 誤寫로 보기 어렵다고 한 反批判이 나왔다.¹⁷⁰⁾ 현재로서는 慧均-百濟人說이 百濟 木簡의 ‘寶憲寺’와 耽羅에 대한 언급 등 보다 구체적인 면을 지니지만, 그것으로는 ‘誤寫’의 가능성을 완전 拂拭하기에는 不足한 면도 있다. 앞으로 이 冊의 일부분으로 그 存在가 알려진 《大乘四論玄義記》 第1卷 <初章中假義>와 같은¹⁷¹⁾ 資料의 全貌가 公開되고, 이를 활용한 論議의 進展이 있기를 기대한다.¹⁷²⁾

韓國佛敎史와 古代 韓日 佛敎文化 交流史를 이해하는 데에 《大乘四論玄義記》가 지닌 意義가 매우 큰 만큼, 이에 대한 兩國 學人의 앞으로의 研究가 期待되는 바이다.

兩國 住民 間의 佛敎 典籍의 交流는 7世紀 終盤 以後에도 持續되었다. 日本에 전래된 新羅人의 佛敎 關係 著述과 普及은 8世紀代 日本에서 行해진 寫經 事業을 통해 그 程度를 짐작해볼 수 있다. 寫經된 經典 註釋書의 著述家는 中國人이 84名이고 新羅人이 15名이었는데, 그들 중 元曉의 著述이 가장 많아 多樣的 經論에 걸쳐 60餘種 83回의 寫經 횟수를 헤아린다.¹⁷³⁾

華嚴 典籍의 本格的인 傳來는 新羅에서 華嚴을 익히고, 740년에서 3년간 華嚴經을 東大寺에서 講義한 審祥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宗派를 망라한 70部 645卷의 經論을 가져왔다. 그 중 新羅 僧侶의 것이 50部 132卷이었다. 이를 통해 당시 新羅에 많은 唐의 經籍이 流通되었음을 알 수 있다. 754년 唐의 僧侶 鑑眞이 日本에 올 때 가져온 典籍이 35部 330卷이었음을 볼 때 審祥이 가져온 典籍이 日本 佛敎에 끼친 影響을 알 수 있다. 이후 東大寺가 華嚴의 根本 道場이 되었다. 日本 華嚴宗은 法藏을 중심으로 展開되었지만, 元曉의 敎學도 크게 影響을 주었다. 현재 日本의 訓讀點의 일종인 ‘오토코’ 點의 원류로 여겨지는 新라의 角筆이 확인되는 判比量論(大谷大學圖書館 所藏)도 8세기 前半 新羅에서 전해진 것으로 여겨진다.¹⁷⁴⁾

170) 崔鉉植, 2007 <‘大乘四論玄義記’ 百濟 撰述 再論 - 金成哲 教授의 反論에 대한 批判 - > 《韓國史研究》 138

171) 橫超慧日, 1958 <新出資料 四論玄義의 初章中假義> 《印度學佛敎學研究》 13

172) 이 論考가 作成된 後에 “四論玄義의 初章中假義”를 포함한 大乘四論玄義記가 崔鉉植 教授에 의해 校勘 출판되었다. 崔鉉植, 2009 《校勘 大乘四論玄義記》 (佛光出版社)

173) 石田茂作, 1930 《寫經より見たる奈良朝佛敎の研究》 (東洋文庫) 5~8

174) 小林芳規, 2002 <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 《朝鮮學報》 182 ; 小林芳規, 2002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口訣研究》 8

그런데 8世紀代 日本에 傳來된 典籍 中에는 傳統的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 性格을 把握한 見解가 提起되고 있는 책들이 있어, 이 시기 新羅와 日本 간의 佛敎 典籍 交流의 理解를 위해 留意되는 바이다. 《華嚴經問答》이나 《遊心安樂道》 등이 그러한 예이다. 각각 唐人 法藏과 新羅人 元曉의 著述로 오랜 기간 알려져 왔다. 그런데 前者는 法藏의 다른 著述과는 異質的인 內容을 包含하고 있고, 後者에는 元曉 死後에 翻譯된 經典이 引用되어 있는 점 등이 지적되어, 前者는 新羅 義湘의 弟子들이 스승의 講義를 整理한 책이고,¹⁷⁵⁾ 後者는 奈良時代에 東大寺 開創을 主導하였던 僧正 良辨의 弟子인 智愷이 元曉의 著述을 母胎로 하여 增廣한 것이라는¹⁷⁶⁾ 說이 제기되었다.

반면 그간 新羅에서 著述된 것으로 알려진 책이 실은 日本에서 著述된 것으로 주장되는 典籍도 있다. 즉 《大乘起信論同異略集》은 奈良時期 東大寺 僧侶 智愷이 著述한 것이고,¹⁷⁷⁾ 《華嚴一乘成佛妙義》는 新羅 僧侶 見登이 日本에 건너가 著述한 것이라는 說이¹⁷⁸⁾ 그것이다.

《起信論一心二門大意》도 저자가 잘못 알려진 예이다. 이 책은 傳統的으로 ‘楊州 智愷’ 즉 《大乘起信論》의 翻譯者로 알려진 眞諦 三藏의 제자인 智愷의 著述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 책의 內容과 文體로 보아 6世紀 末 7世紀 初에 活動한 智愷의 著述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日本 佛敎 文獻에 보이는 文字를 옮겨 쓴 흔적이 있다. 그래서 近代 以後 日本學界에선 이를 11世紀 以後 日本 僧侶의 著述일 가능성이 높다고 指摘되어 왔다. 《起信論一心二門大意》은 大乘起信論의 思想을 敷衍한 內容을 담고 있으며, 元曉의 大乘起信論에 대한 理解를 反影하고 있다. 이 책에는 《流轉本際經》이 引用되어 있는데, 《流轉本際經》은 中國과 日本에선 그 存在가 알려지지 않은 著述인데, 高麗와 朝鮮의 文獻에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起信論一心二門大意》가 元曉의 大乘起信論에 대한 註釋書들이 流通된 以後 新羅에서 著述되었을 蓋然性이 높다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¹⁷⁹⁾ 이 역시 앞으로의 研究가 期待된다.

日本에는 中國과 韓國에는 傳해지지 않는 佛敎 關聯 文獻들이 적지 않게 전해지고 있다. 이런 文獻들의 性格에 대한 보다 精緻한 分析은 앞으로 古代 東아시아 佛敎思想의

175) 石田公成, 1985 <‘華嚴經問答’의 著者> 《印度學佛敎學研究》 66 ; 金相鉉, 1996 <『鍾洞記』와 그 異本 『華嚴經問答』> 《韓國學報》 84

176) 愛宕邦康, 1944 <‘遊心安樂道’의 撰述者に關する一考察 - 東大寺華嚴僧智愷とその思想的關聯に着目して-> 《南都佛敎》 70

177) 崔鉉植, 2001 <‘大乘起信論同異略集’의 著者について> 《駒澤短期大學佛敎論集》 7

178) 崔鉉植, 2002 <新羅 見登의 著述과 思想傾向> 《韓國史研究》 115

179) 崔鉉植, 2006 <新羅佛敎 文獻으로서의 “起信論一心二門大意”> 《佛敎學研究》 13

面貌를 理解하고, 古代 韓國과 日本 佛敎界의 思想的 動向을 理解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되는 바이다.

한편 727년 國交가 열린 이후 渤海에서 日本으로 34회, 日本에서 渤海로 13회의 使臣 派遣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兩國 間에 佛敎文化의 交流도 行해졌다. 渤海人 仁貞(?~815)과 貞素(774~828)가 日本과의 交流에 一定的한 役割을 하였고, 814년 日本에 間 王孝廉이 日本人 僧侶 空海와 詩文을 交換하였으며, 861년 渤海使 李居正이 전해준 《佛頂尊勝陀羅尼經》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¹⁸⁰⁾

3. 8世紀 終盤 以後의 樣相

新羅와 日本 間의 頻繁한 佛敎文化 交流는 8世紀 中盤 以後 兩國 間의 外交的 摩擦과 뒤 이은 國交 杜絶에 따라 함께 衰退하였다. 이는 兩國 間 政治的 狀況의 進展에 따른 樣相일 뿐 아니라, 東아시아 佛敎界의 變化, 그리고 兩國 佛敎 自體의 性格 變化와도 有關한 面을 지닌 것이었다.

8世紀 後半 以後 唐에서는 該간 法相宗과 華嚴宗을 中心으로 活潑하게 展開되던 敎學 佛敎가 安史의 亂을 고비로 衰退하는 樣相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唐 佛敎界의 狀況은 당시 東아시아 佛敎界의 흐름 전체에 큰 影響을 주었다. 唐에서 새로운 佛敎 理論과 文獻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서 東아시아 佛敎界의 相互 交流는 크게 줄어들었고, 新羅와 日本에서 敎學佛敎의 位相도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반면 敎學佛敎가 萎縮되면서 東아시아 地域에서는 實踐佛敎가 대두하였다.

唐에선 8世紀 中葉 이후 該간 都市를 中心으로 興盛하였던 敎學佛敎와 달리 農村에 근거를 둔 禪宗이 興盛하였다. 新羅에서도 8世紀 中盤 이후 華嚴宗의 義湘系 佛敎와 眞表系의 彌勒信仰이 興隆하였다. 前者는 華嚴經만을 重視하는 傾向을 띠었으며, 敎學佛敎이지만 著述이나 理論의 體系化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體驗을 통한 깨달음을 重視하였으며, 지방에서 下層民을 包括한 修行共同體를 指向하였다. 後者는 彌勒에 대한 歸依와 함께 占察經을 根本으로 한 占察信仰을 유일한 修行法으로 重視하였고, 下層 一般民을 布敎의 對象으로 하여 勢를 넓혀나갔다. 新羅 下代 佛敎의 主流를 형성한 이 두 敎團은 모두 綜合的이지 않고 하나의 思想에만 置重하는 宗派性이 강하였고, 身(身)을 사용

180) 宋基豪, 1996 <불교와 기타신앙> 《한국사 10(발해)》 (국사편찬위원회)

하는 修行을 重視하였다. 곧 기존 新羅 中代의 理論的 佛敎와 달리 修行佛敎·信仰佛敎가 擡頭하였으며, 이런 傾向은 840년 무렵 이후 禪宗의 擡頭로 이어졌다. 初期 禪宗 僧侶는 주로 義湘系와 眞表系 僧侶 出身이었다. 한편 日本에서도 9世紀부터 儀式을 강조하고 密敎的 성격이 강한 眞言宗과 天台宗이 새롭게 定立되어 佛敎界를 主導해 갔다.¹⁸¹⁾

中國에서 성립된 敎學佛敎 思想들이 곧바로 韓國과 日本 佛敎界에 受容되었던 것과 달리 實踐佛敎인 禪宗은 곧바로 受容되지 않았다. 禪宗은 新羅와 日本에 이미 8世紀에 알려졌지만, 별로 注目을 받지 못하였다. 禪宗이 本格的으로 受容되어 興隆케 된 것은 新羅에선 9世紀 中葉, 日本에서는 13世紀에 들어서었다. 實踐佛敎는 그 屬性上 間接的인 傳言이나 文獻만으로 전해지기 힘들고 直接的인 經驗과 多數의 人們의 交流에 의해 傳해질 수 있다. 新羅와 日本의 本格的인 禪宗 受容은, 9世紀 中葉과 13世紀에 각각 中國과의 民間交流가 活潑하게 展開되었다는 事實과 有關한 면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¹⁸²⁾

아무튼 各國이 서로 다른 實踐佛敎를 發展시키는 동안, 各國 佛敎는 점차 서로 異質的인 性格을 띄어가게 되었다. 그와 함께 佛敎 典籍의 交流 또한 活潑하지 않게 되었다. 韓日 間의 僧侶와 佛敎 文獻 交流의 衰退도 8世紀 中盤 以後 新羅와 日本 間의 政治的 冷却과 함께 이런 東아시아 佛敎界 全體의 變貌과 聯關된 現象이었다.

제4장 8世紀 渤海·日本 關係

제1절 727年 渤海와 日本 間의 國交 樹立

698년 渤海의 建國과 뒤이은 급속한 成長은 既存의 東北亞 國際秩序를 뒤흔드는 중대한 變化였다. 東部 滿洲 地域은 676년 新羅와 唐 間의 戰爭이 終息된 후 唐·新羅·突厥 등 어느 나라도 힘을 뺄치지 못한 일종의 國際的인 힘의 空白地帶였고, 靺鞨의 여러 部族과 高句麗 遺民들이 小規模 單位로 各地에 散在하여 自治를 營爲하고 있었다. 이런 地域에 遼西의 營州로부터 탈주해온 大祚榮 集團이 登場하자, 이 새로운 힘의 求心點을 중심으로 급속한 勢力 結集이 進行되었다.¹⁸³⁾ 당시 唐은 天門嶺 戰鬪에서 大祚榮 集團에게

181) 鄭炳三, <앞 논문>

182) 崔鉉植, 2005 <8세기 新羅佛敎의 動向과 東아시아 佛敎界> 《佛敎學研究》 12

183) 盧泰敦, 1981 <渤海 建國의 背景> 《大丘史學》 19

敗北한 이후 더 以上の 積極的인 追擊과 壓迫을 벌이지 못하였다. 이는 內部的으로 武則天의 執權에 따른 政治的 葛藤과 外部的으로는 突厥 勢力이 遼西를 壓迫하는 狀況에 起因한 것이었다. 신라는 발해가 建國 直後 使臣을 派遣해오자 大祚榮에 大阿漚의 官等を 賜與하여 眞骨로 대접하였으나,¹⁸⁴⁾ 이는 발해에 대한 積極적인 對應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한편 신라는 703년 唐과 交涉을 再開한 이후 每年 使臣을 派遣하여 그간의 不便한 關係를 解消하는데 注力하였고, 이를 渤海에 대한 對應策으로 삼았던 것 같다. 唐 역시 渤海의 登場이란 새로운 變數에 대응하기 위해 新羅와의 關係 改善에 힘썼다. 이런 가운데서 渤海는 突厥과의 友好 關係를 維持하며, 勢力 擴大를 해 나갔다.

720년대에 들어 발해를 둘러싼 새로운 情勢가 造成되어 갔다. 玄宗이 即位한 뒤 政治的 安定을 되찾은 唐은 契丹의 李盡忠의 亂 때 幽州로 옮겼던 營州都督府를 717년 原位置로 復舊시키며¹⁸⁵⁾ 다시 東北方으로 세력을 뻗쳤다. 이에 716년 突厥의 默綴可汗이 對鐵勒戰에서 사망한 뒤 突厥이 일시 瓦解되어 그 세력이 萎縮된 狀況도 作用하였던 것 같다. 이어 唐은 渤海의 배후에 위치한 黑水靺鞨이 722년 2차례, 724년 1차례, 725년 4차례, 726년 1차례 등 빈번히 朝貢해오자, 이를 계기로 726년 黑水靺鞨에 黑水府를 設置하고 그 首領을 都督으로 삼았으며, 따로 長史를 두어 그 部落들을 監領케 하였다. 이어 728년에는 黑水都督에게 ‘李氏’ 姓과 ‘獻誠’이라는 이름을 주어 특별한 關心을 표하였다.¹⁸⁶⁾ 이는 명백히 渤海에 대한 直接的인 威脅이었다. 이에 크게 반발한 渤海 武王은 동생 大門藝의 反對를 물리치고 黑水靺鞨 征伐을 強行하였고, 大門藝는 唐으로 亡命하였다. 자연히 渤海와 唐 간의 葛藤은 高潮되었다. 이 무렵 新羅가 每年, 때로는 1년에 3차례, 唐에 使臣을 派遣하는 등 唐과 密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일련의 狀況 進展으로 渤海朝廷은 唐이 東北方으로 再次 勢力을 뻗쳐, 그것도 新羅와 聯合하여, 渤海를 攻擊할 可能性을 깊이 憂慮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渤海 朝廷은 이에 對應해 한편으로는 唐에 빈번히 사신을 과견하여 양국 關係의 개선을 도모하려 하였다. 발해의 對唐 使臣 派遣의 목적에는 懸案인 大門藝와 黑水靺鞨 문제 등을 타결하려는 의도와 함께 新羅와 唐의 關係를 의식한 점도 있었을 것이다.¹⁸⁷⁾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727년 일본에 사신을 과견하였다. 唐과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당과 연결할 可能性이 예상되는 남녘에 있는 新羅의 動向을 牽制하기 위한 것이었다.

184) 崔致遠, <謝不許北國居上表> 《崔文昌侯全集》

185) 《新唐書》 39, 地理志 營州 柳城郡 上都督府

186) 《舊唐書》 199 下, 靺鞨傳, 渤海靺鞨傳

187) 韓圭哲, 1995 《渤海의 對外關係史》 (신서원) 189~190

이어 728년 무렵 渤海 武王은 唐과 연결한 黑水靺鞨을 攻擊하였다. 나아가 唐이 大門 藝를 洛陽에 계속 留居케 한 데에 대해, 다시 말해 大門 藝를 渤海 瓦解 工作에 活用하겠다는 唐의 政策에 대해 強硬 武力對應을 하였다. 이 무렵 突厥이 再興하여 契丹 등을 制壓하고 唐의 遼西 地域을 壓迫하였다. 이런 북아시아의 情勢 進展과 照應하면서 武王은 732년 海軍을 동원하여 唐의 登州를 攻擊하고 육군을 遼西의 馬都山 方面으로 진격케 하는 등 武力 攻勢를 펼쳤다. 이에 唐軍과 新羅軍이 聯合하여 733년 渤海를 挾攻하였다. 이 挾攻은 실패로 끝났다.

735년 唐은 新羅의 要求를 받아들여 “溟江(大同江)에 鎮戍하여 渤海의 要衝에 대응하고, 또 (서쪽으로) 祿山과 서로 바라보며 遠圖를 꾀하려 하니 좋은 계책(長策)이다. (中略) 侵寇를 警戒하고 邊境의 安定을 이루려는 것인데 어찌 不可함이 있겠는가”¹⁸⁸⁾라 하였다. 즉 신라의 溟江 以南 병합을 승인하고, 발해와 대립을 조장하여 渤海의 膨脹을 막겠다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발해와의 관계도 737년 渤海의 朝貢과 唐軍 捕虜 送還이 이루어지고,¹⁸⁹⁾ 이어 武王이 죽고 文王이 卽位하여 책봉을 받음에 따라, 이후 唐과 渤海는 안정된 關係를 維持하였다.

발해의 興起에 따라 動搖하던 東北亞 地域의 國際情勢는 新羅와 渤海間의 勢力均衡과 唐의 現狀維持策으로 다시 安定을 찾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留意되는 점은 신라의 溟江 이남 지역 併합을 唐이 公式的으로 認定한 사실이다. 그에 따라 新羅는 676년 唐과의 戰爭이 表面的으로 終結된 이후에도 裏面的으로 지속되어왔던 唐軍의 侵攻 可能性이라는 不安 要素를 解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후 新羅의 對日關係에서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고, 그것은 다시 일본과 발해 관계에 影響을 주었다.

제2절 8世紀 中葉 日本의 新羅 征伐計劃과 渤海의 對應

727년 國交 樹立 後 발해와 일본 간에는 수차례 使臣 往來가 있었다. 그러던 중 8세기 중엽 日本에서 新羅 征伐 計劃이 具體的으로 推進됨에 따라 渤海와 日本 간의 關係에 緊迫感이 실리게 되었다. 즉 758년 9월 遣渤海使 小野田守가 귀국하였는데, 이 때 발해는 聖武天皇의 죽음에 대한 弔問使로 大使 輔國大將軍 兼 將軍 行木底州刺史 兵署小正 開國

188) 張九齡, <勅新羅王金興光書> 《全唐文》 285

189) 張九齡, <勅渤海王大武藝書> 《全唐文》 285, “(渤海使)多蒙固所送水手及承前沒落人等來 云云”

公 揚承慶과 副使 歸德將軍 楊泰師 등 23인을 함께 일본에 파견하였다. 귀국 후 小野田守는 復命하면서 발해를 통해 들은 唐에 관한 情報을 傳하였다. 즉 唐에서 安祿山의 亂이 755년 터졌으며, 756년에 平盧留後使 徐歸道가 渤海에 精兵 4만을 請하였는데 발해가 움직이지 않았고, 758년에는 徐歸道を 죽인 安東都護 王玄志가 발해에 將軍을 보내어 소식을 전하였는데, 발해가 믿지 않고 자세한 情報을 蒐集 중이며, 唐皇帝가 勅書를 보내왔고 발해에서 狀을 올렸다는 내용을 告하였다.¹⁹⁰⁾ 이런 정보를 접한 일본 조정은 758년 12월 大宰府에 勅을 내려 安祿山 亂의 餘波가 밀려올 것 같으니 對策을 세우라고 명하였다.¹⁹¹⁾ 이 때 일본에 온 渤海使 揚承慶은 발해의 서쪽 국경 지대로서 遼東 平野로 나가는 길목인 蘇子河 流域 木底州의 刺史였다. 대륙의 情勢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일본의 要求에 副應하기 위해 渤海 朝廷은 唐에 대한 情報에 밝은 接境地域의 地方官을 使臣으로 보냈던 것이다. 759년 10월 발해의 遣日本使 高南申이 輔國大將軍 玄菟州刺史였다는 事實도 같은 의미이다. 아무튼 759년 2월 揚承慶 등은 歸國하였다. 이어 3월에 大宰府에서 兵亂에 대비할 準備 不足에 대한 憂慮를 表明하였다. 그런데 6월에는 大宰府로 하여금 新羅를 치기 위해 行軍式을 만들게 하는 등 新羅征伐計劃에 着手하였다.

이렇듯 발해를 통해 安祿山의 亂에 관한 情報을 入手한 뒤, 日本 朝廷은 그 亂의 餘波가 海東으로 밀려들 것을 憂慮하였는데, 그에 관한 對應策이 新羅 征伐 計劃으로 나타났다. 어떤 論理에서 兩者가 연결되어 具體化되었을까? 이에 대해, 일본 조정이 安祿山의 亂으로 당이 신라를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틈을 타 신라를 공격하려 했다는 풀이가 제기된 바 있다.¹⁹²⁾ 다른 하나로는 758년 12월 大宰府에 내린 勅에서 叛亂軍이 “西進할 수 없어서 도리어 海東을 칠” 것이라고 한 언급에서 보듯, 신라가 東進해온 叛亂軍의 攻擊으로 打撃을 입을 것이므로 이 때를 이용하여 新羅를 攻擊하려 하였다고 理解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어느 쪽이든 간에 日本 朝廷은 唐이 혼란에 빠진 상황을, 외교의례 등으로 그 간 갈등을 빚어오던 新羅와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好機로 파악하고, 신라 공격을 위한 戰爭 準備에 착수하였다.

759년 8월 大宰府 三品船親王을 (神功皇后를 祭祀하는) 香椎廟에 보내어 新羅를 征伐하려는 狀況을 告하였고, 9월 兵船 500隻을 3년 이내에 建造할 것을 命하였으며, 761년 正月 美濃·武藏 두 地域에서 각각 20명의 少年을 뽑아 新羅語를 익히게 하였고, 11월에

190) 《續日本紀》 21 天平寶字 2년 12월 戊申

191) 위와 同

192) 和田軍一, 1924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 《史學雜誌》 35-10·11

는 節度使體制를 宣布하였다. 또 762년 11월에 신라 정벌을 위한 訓練을 하는 軍隊를 위해 香椎廟에 封幣하였다.

한편 여기에서 留意되는 것은 遣渤海使 小野田守가 753년 新羅에 使行을 하였다가 接見을 拒否당하고 되돌아왔던 經歷이 있는 者이고, 761년 10월의 遣高麗(渤海)使인 高麗朝臣大山은 753년 正月 唐 朝廷의 元會에서 新羅使와 爭長事件을 벌였던 日本使節團의 一員이었다는 事實이다. 이 점을 중시하여, 小野田守를 758년 2월 발해로 過견할 때에 일본이 신라와의 국경 문제로 불안해하는 渤海와 連携하여 新羅를 공격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고,¹⁹³⁾ 나아가 일본과 발해가 신라를 南北에서 挾擊할 同盟을 小野田守가 締結하였으며, 그런 계획을 안 新羅가 762년 그 北邊에 築城을 하며 방어에 나섰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⁹⁴⁾ 이 무렵 758~763년 간에 일본과 발해 사이에는 사신이 꼬리를 물고 왕래하였다(<표 4> 참조).

<표 4> 758년~763년 사이 渤海와 日本 간의 使臣往來表

758. 2	日本, 小野田守 渤海에 派遣. 聖武天皇의 訃音 전함
758. 9	渤海, 小野田守 歸國 때, 揚承慶을 聖武天皇의 弔問使로 日本에 派遣
759. 2	日本, 高元도와 內藏全成을 揚承慶의 歸國 때 함께 渤海에 派遣, 唐에 가 있는 藤原河清의 歸國 斡旋을 渤海에 要請
759. 12	渤海, 內藏全成의 歸國 때 高南申을 日本에 派遣
760. 2	日本, 高南申의 歸國 때 陽候史玲瑠를 渤海에 派遣
760. 11	陽候史玲瑠, 日本으로 歸國
761. 10	日本, 高麗朝臣大山을 渤海에 派遣
762. 10	渤海, 高麗朝臣大山의 歸國 때 王信福을 日本에 派遣
763. 2	日本, 王信福의 歸國 때 板振鎌束을 渤海에 派遣
763. 10	板振鎌束, 渤海로부터 日本으로 歸國

발해에서 일본으로 4차례, 일본에서 발해로 5차례의 사신 過견이 행해졌다. 759년 이후 신라정벌계획이 公式化하면서, 일본 遣渤海使의 주된 任務는 大陸 情勢의 把握, 그리고 발해와 對新羅 挾擊을 협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59년 2월 遣渤海使가 唐에 가 있는 日本人 藤原河清의 歸國에 관한 일에 渤海의 協助를 要請한 것도 唐의 情勢를 파악하기 위한 方策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이런 일본의 對新羅 挾攻 要請에 대해 渤海는

193) 酒寄雅志, 2001 <渤海國家の史的 展開と國際關係> 《渤海と古代の日本》(校倉書房) 66~7

194) 酒寄雅志, 2001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 《위 책》 222~3

어떤 입장을 취하였을까? 이에 대해선 일본과 발해가 적어도 처음에는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설이 제기되었고,¹⁹⁵⁾ 그와는 달리 발해가 일본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발표되었다.¹⁹⁶⁾

758년과 759년 일본에 보내진 渤海使가 각각 木底州刺史와 玄菟州刺史로서 武官이었던 점이 발해가 이 事案에 積極的이었음을 나타낸다고 想定해 볼 餘地를 제기한다. 그런데 渤海는 天寶 末에 그 首都를 中京 顯德府인 顯州에서 上京 龍泉府로 옮겼다.¹⁹⁷⁾ 이때의 遷都는 安祿山 亂의 勃發 이후 安保上의 必要에 따라 행한 것이라는 說이¹⁹⁸⁾ 있고, 이와는 달리 발해의 발전에 따른 필요성에 의거해 오랜 기간에 걸친 면밀한 준비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¹⁹⁹⁾ 제기되었다. 上京은 거대한 計劃都市였다. 그 면에서는 後者의 說이 의미를 가진다. 또한 安祿山 亂의 餘波가 직접 밀려드는 상황에서, 中京보다 더 북쪽에 있는 上京이 防禦上 더 有利한 位置에 있는 것도 事實이다. 그런 만큼 두 설은 각각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서 밀려드는 安祿山 亂의 餘波에 대한 渤海의 對應策을 보면, 발해 조정은 그 어느 쪽에 加擔하여 亂에 직접 介入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對外的 紛爭을 피하고 遷都에 따른 문제에 對處하는데 注力하겠다는 발해 조정의 姿勢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渤海가 서쪽에서 安祿山 亂이 持續되고 있는 狀況에서 日本과 聯合해서 對新羅 挾擊에 加擔하려 했다는 假定은 首肯키 어렵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밀려들 가능성이 있는 安祿山 亂의 餘波에 대응하거나, 새롭게 遷都한 上京을 經營하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을 招來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渤海가 이 무렵 新羅와 相爭 중이었던 것도 아니었다.²⁰⁰⁾

195) 石井正敏, 2001 <初期日本·渤海交渉における一問題>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吉川弘文館); 酒寄雅志, <위 논문>

196) 宋完範, 2006 <8세기 중엽 '新羅征討' 계획으로 본 古代 日本의 對外方針> 《韓日關係史研究》 25

197) 《新唐書》 43下, 地理志33下 靺鞨州 河北道, “顯州 天寶中王所都”; 《같은 책》 219, 渤海傳 “天寶末欽茂徙上京”

198) 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研究》(一潮閣) 94~99

199) 金起燮·金鎮光, 2007 <渤海의 上京 建設과 遷都> 《韓國古代史研究》 45

200)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는 景德王 7년(748) 大谷城 등 14개 군현을 설치하였고, 동왕 21년(762) 오곡성 등 6個 城을 築造하고 각 城에 太守를 두었다. 이는 735년 唐으로부터 溟江 以南 지역의 新羅 領有를 公認받은 뒤, 그간 당과의 완충지대로 남겨놓았던 禮成江 서편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經營을 하였음을 전한다. 그런데 748년과 762년의 축성과 군현 설치 등의 예상장 서쪽 지역 經營이 渤海의 侵攻에 對備한 것이었다거나, 渤海를 對象으로 한 北進策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733년 발해·신라 전쟁이 그러하였듯이, 兩國의 軍事的 對決에서 攻擊路는 東海岸 루트였다. 즉 이들 기사에서 전하는 신라의 郡縣 設置나 築城이 발해에 위협을 주었다거나, 750년대 말의

〈표 5〉 鐵利·拂涅·越喜·黑水靺鞨 朝唐表

朝貢 年代	渤海 紀年	拂 涅	鐵 利	越 喜	黑 水
714	高王 17년	OO	O	O	
716		O			
717		O			
718		O	O		
719		OOO	O	O	
0721	武王 仁安 2년	O	O		
0722		O	OO	O	OO
0723		O	O	O	
0724		O	OO	OO	O
0725		O	O	O	OOOO
0726					O
0727			OO		
0730		O			OO
0735		O	O	O	
0736				O	
0737		O			
0739	文王 大興 2년	O			
0740			O	O	
0741		O		O	O
0747					O
0748					OO
0750					O
0752					O
0802	康王 正曆 8년			O	
0815	僖王 朱雀 2년				O
0841	彝震王 咸和11	O	O		
0912	末王 6년				O
0924					O
0925					O

* 本表는 《册府元龜》 外臣部 朝貢과 褒異의 기록에 의거하였음.

* O는 조공 회수를 나타냄

일본과 발해의 新羅 挾攻 計劃에 威脅을 느낀 신라의 對應이었다고 보는 것은 首肯키 어렵다(具蘭憲, 1999 <8세기 중엽 발해·신라·일본의 관계 - 일본의 신라침공계획을 중심으로 -> 《韓日關係史研究》 10 參照).

이 시기 발해는 신라 방면보다 요동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설도 있다(韓圭哲, 《앞 책》 209).

新羅와 國境을 接한 渤海의 南境 一帶에 黑水, 鐵利, 達姑 등의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達姑는 그 原住地가 北流 松花江 下流 東便인 室韋族이었고,²⁰¹⁾ 鐵利와 黑水の 원주지는 東流 松花江 中·下流 지역이었다. 발해가 이들 部族들을 정벌한 뒤 그 일부를 발해 南境인 咸興 平野 一帶로 移住시켰다.²⁰²⁾ 이들의 移住 時期는 唐에 대한 鐵利靺鞨의 入貢이 杜絶된, 다시 말해 鐵利靺鞨에 대한 발해의 征伐이 이루어졌던 740년대 말 무렵으로 여겨진다(<표 5>참조). 746년에는 渤海人과 鐵利人 천 백여 명이 일본에 건너온 일이 있었는데,²⁰³⁾ 이는 鐵利部族이 발해에 服屬된 뒤의 일이라 보아야겠다. 黑水靺鞨은 720년대 말 발해의 攻略을 받았다. 이 때 완전히 발해에 服屬된 것은 아니었지만, 對唐朝貢이 일시 中斷되었음에서 보듯 큰 打擊을 입었던 듯하다. 740년대 다시 對唐 조공이 행해지다가 752년 이후부터 오래동안 중단되었다. 이런 면을 볼 때, 740년대나 750년대 전반 발해가 정복한 鐵利靺鞨과 黑水靺鞨 및 達姑 部族의 일부를 신라와의 接境地帶에 強制 移住시켜 일종의 緩衝地帶를 形成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²⁰⁴⁾ 이는 곧 734년 新羅의 北進에 따른 한 차례의 전쟁을 겪은 뒤, 渤海가 그 南方으로 膨脹을 試圖하기보다는 現狀維持를 하려 했음을 뜻한다.

渤海와 唐의 관계에선, 渤海가 叛亂軍側에 가담치 않고 신중히 대응한 데에 대해 758년 唐 皇帝가 호의적인 뜻을 담은 勅書를 보내왔고, 발해도 狀을 보냈다.²⁰⁵⁾ 즉 발해도 당은 양국의 既存 關係에 變動을 惹起하지 않으려는 우호적 立場을 취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발해가 唐과 友好的 關係에 있는 新羅를 공격하여 唐과의 紛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을 감행하려 했을까? 그럴 蓋然性은 희박하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볼 때, 750년대 말 760년대 초 渤海는 日本의 對新羅 挾攻策에 參與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일본이 安祿山の 亂 이후 전개된 大陸情勢에 대한 情報를 얻으려 하는 데에는 協助하였으나, 그 이상 양국 간의 對新羅 軍事同盟으로 나아가는 데는 同意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對新羅 挾攻策에 가담치 않았다는 발해의 입장은 762년의 遣日本使 王信福을 통해 표명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종전의 발해사와는 달리 王信福이 文官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²⁰⁶⁾ 아울러 入唐 日本人 僧侶 戒融의 歸國

201) 《新唐書》 東夷傳, “又有達末婁 達姑二部 (中略) 達姑 室韋種也 在那河陰 涑末河之東 云云”

202) 小川裕人, 1937 <三十部女眞に就いて> 《東洋學報》 24-4 ; 三上次男, 1941 <新羅東北境外における黑水鐵勒達姑の諸族に就いて> 《史學雜誌》 52-11

203) 《續日本紀》 16, 天平 18년 是年條

204) 盧泰敦, 2003 <三國史記에 登場하는 靺鞨의 實體> 《韓半島와 滿洲의 歷史 文化》 (서울대학교출판부)

205) 《續日本紀》 22, 天平寶字 2년 12월 戊申

與否 確認을 둘러싼 唐·渤海·新羅·日本 간의 接觸 過程을 통해서도 이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762년 唐은 文王 大欽茂를 ‘渤海郡王’에서 ‘渤海國王 檢校太尉’로 進爵하여 冊封하였다. 이때 唐의 冊封使 韓朝彩와 同行하여 渡唐日本留學僧 戒融이 渤海로 갔다. 763년 2월 渤海使 王信福이 돌아갈 때 그 送使로 발해로 갔던 板振鎌束이 이 해 10월에 日本으로 귀국하였는데, 그 때 戒融이 그 배를 타고 日本으로 돌아갔다. 그 뒤 韓朝彩는 渤海에서 新羅로 가, 新羅 朝廷에 日本僧侶 戒融이 무사히 歸國했는지 與否를 알아보아 달라고 하였다. 이에 764년 7월 新羅 朝廷이 大奈麻 金才伯 등 91인의 사절단을 大宰府에 파견하여, 戒融 件을 문의하였다. 大宰府에선 중앙의 乾政官에게 이 사항을 질의하여, 그가 무사히 歸國하였음을 新羅 執事部에 알리는 牒文을 받아, 이를 新羅使節에 넘겨 주었다. 그리고 신라사절에게 “근래 너희 나라에서 投化해 온 백성들이 ‘本國에서는 軍隊를 내어 警備를 하고 있는데, 日本에서 쳐들어올까 염려’ 해서 라고 하는데 그 虛實이 어떠한가”라고 質問하였고, 그에 대해 신라사절은 唐이 亂離로 어지럽고 海賊이 猖獗하여 軍隊를 징발해 邊方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신라가 防禦를 強化하고 있음을 是認하였다.²⁰⁷⁾ 이때 韓朝彩는 아마도 발해의 ‘新羅道’를 통해 신라 泉井郡의 炭頂關門을²⁰⁸⁾ 거쳐 신라 首都로 갔던 것 같다.²⁰⁹⁾ 이를 발해가 용인하였다는 것은 곧 763년이란 시점에 발해가 신라에 대한 어떤 전쟁 의지를 가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발해에 갔던 唐의 冊封使 韓朝彩의 歸國 經路와 文王을 신라왕과 對等한 ‘渤海國王 檢校太尉’로 冊封한 것을 통해볼 때, 唐도 발해와 신라의 均衡 위에서 現狀維持를 하려는 意志를 지녔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런 당의 의도를 발해가 受容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아울러 金才伯 등에 대한 大宰府의 審問을 통해, 이 무렵 일본의 움직임에 주시하던 신라가 防禦力을 강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對備하고 있었고,²¹⁰⁾ 일본 또한 이런 신라의 對應을 把握하고 있

206) 石井正敏, <初期日本・渤海交渉における一問題>

207) 《續日本紀》 25, 天平寶字 8년 7월 甲寅

208) 《三國史記》 35, 地理志2 朔州 泉井郡

209) 《三國史記》 지리지에 인용된 賈耽의 《古今郡國志(古今郡國縣道四夷述)》에 의하면 渤海의 東京 龍原府에서 新羅의 泉井郡까지 39개의 驛이 있다고 한다. 9세기 초에 편찬된 이 책의 기사는 763년 발해에서 신라로 갔던 韓朝彩의 여행 報告文에 依據하였던 것 같다. 《古今郡國志》는 《三國史記》 地理志 2 朔州條에도 引用되어 있다. 朔州는 위에서 말한 韓朝彩의 渤海-新羅 旅行路에 있는 地域이다.

210) 760년 9월 신라는 級浪 金貞卷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는 일본의 신라공격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에 대한 탐색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763년 2월에도 級浪 金體信 등 211명의 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政情의 探索과 함께 交易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續日本紀》 23, 天平寶字 4년 9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 양측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일본의 상황을 파악키 위해 신라 조정은 戒融 件을 活用해 일본에 使節團을 派遣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사절단의 규모가 상당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 機會에 交易도 함께 하려 했던 것 같다.

日本の 新羅 征伐計劃은 764년 9월 惠美押勝(藤原仲麻呂)의 亂을 고비로 霧散되었다. 이 계획이 挫折한 이유에 대해선, ① 이 계획이 처음부터 대내적 모순과 불만을 밖으로 배출하려는 정치적인 것에 불과하였다는 설,²¹¹⁾ ② 藤原仲麻呂를 둘러싼 국내 政情이 급속히 변화하였다는 점, ③ 일본 국내 정세보다 발해가 당과의 관계가 호전되자 방침을 바꾼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설,²¹²⁾ ④ 多年間의 災害와 遠征 準備 등에 따른 민의 피폐화 때문이라는 설²¹³⁾ 등이 거론되었다. 신라 정벌계획을 주도하였던 藤原仲麻呂는 淳仁天皇과 밀착되어 있었다. 그런데 762년 여름 이후 淳仁天皇과 孝謙太上天皇 간의 갈등이 커짐에 따라 藤原仲麻呂의 권력이 弱화되었고, 이를 反轉시키려는 試圖가 764년 9월의 亂이었는데 鎮壓되었다. 이 해는 “是年 兵과 旱의 連續으로 米價가 한 石에 千錢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전하는 바처럼²¹⁴⁾ 그간 災害와 戰爭 準備로 民生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거기다 앞서 말한 바처럼 발해는 新羅 挾攻策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對內 外的 狀況 展開에 따라 자연 신라 정벌계획도 消滅되었다.

제3절 8世紀 末 渤海·日本 間의 外交儀禮를 둘러싼 葛藤

일본의 신라 정벌계획이 霧散된 이후에도 발해와 일본 간에는 교류가 이어졌다. 단 이 交流는 그 전과는 달리 軍事的 意味를 지니지 않은 것이었다. 먼 바다를 사이에 둔 양국이 특별한 軍事的 連帶를 摸索할 狀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국 간의 교류에서, 발해는 經濟的 利益 追求가 주된 목적이 되어 갔다. 日本은 天皇의 正統性과 權威를 宣揚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蕃國 渤海의 入朝’가 지니는 對內的인 政治的 意味를 重視하였다. 아울러 日本 朝廷은 新羅와의 外交가 杜絶된 상황에서 渤海가 지닌 日·唐 間의 情報와 人的 交流의 仲介者로서의 역할에도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였을 수 있

월 癸卯 ; 《같은 책》 24, 天平寶字7년 2월 癸未)

211) 岸俊男, 1969 《藤原仲麻呂》(吉川弘文館) 261~274

212) 石井正敏, 2001 <앞 논문>

213) 宋浣範, <앞 논문>

214) 《續日本紀》 25, 天平寶字 8년 是年條, “是年兵旱相仍米價石千錢”

다. 그래서 때로는 발해사 접대에 경비가 많이 드는 점을 들어 ‘商旅’인 발해사절단을 우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批判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²¹⁵⁾ 渤海와의 交流를 계속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양국 간의 外交의 摩擦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는 양국 간의 교류 지속에 中核的인 사항이기도 한 ‘蕃國’에 副應하는 外交儀禮를 渤海가 잘 받아들이지 않음에서 비롯되었다. 國書의 形式과 內容 등이 그 주요한 紛爭 事項이다.

763년 遣日本使 王信福이 귀국한 이후, 10년의 공백이 있는 뒤인 771년 발해사 壹萬福이 日本을 訪問하였다. 그가 지니고 온 國書에 渤海王이 天孫을 自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본 조정이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그 訂定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사항이 그 뒤 발해사가 가져온 국서에서도 제대로 反影되지 않자, 796년 일본 조정은 “朝聘하는 道理는 禮義와 恭敬을 우선으로 삼으니, 이와 어긋난다면 어찌 서로 간에 往來할 必要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國交 斷切을 暗示하는 強硬한 입장을 천명하였다.²¹⁶⁾ 이에 발해는 796년 10월 일본의 要求를 反影한 國書를 보내었고 聘期도 日本에 맡긴다고 하였다. 이에 일본 조정 上下가 滿足하였고, 臣下들은 축하의 表文을 올리기도 하였다.²¹⁷⁾ 이후 798년 발해가 大昌泰를 파견하여 聘期 6년을 短縮하여 줄 것을 要求하자, 일본이 이를 받아들여 年限을 두지 않게 되었다.²¹⁸⁾

이처럼 渤海는 日本이 要求하는 外交儀禮 形式을 受容하고, 日本은 발해의 朝聘 期限 短縮 要求를 받아들임으로써 서로의 妥協點을 찾았다. 이런 타협의 바탕에는 8세기 중반 이후 對日外交의 目的을 貿易 利益 追求에 두는 渤海의 政策 變化가 깔려 있었다.²¹⁹⁾ 당시 발해는 對內的으로는 皇帝國의 位相을 指向하였다. 貞孝公主 墓誌銘에서 그녀의 아버지인 文王을 ‘皇上’이라 表現하였고, 制度的으로도 ‘宣詔省’·‘詔誥舍人’ 등의 存在는 그런 면을 말해주는 바이다. 근래 延邊 朝鮮族自治州 和龍縣 龍海區域 渤海墓群에서 두 개의 墓誌銘이 발굴되었는데, 아직 全文이 공개되지 않아 그 具體的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각각 3대 文王의 妃인 ‘孝懿皇后’와 9대 簡王의 妃인 ‘順穆皇后’의 것이다.²²⁰⁾ 모두 ‘皇后’라고 기술되어 있어, 발해가 ‘外王內帝’를 지향하였음을²²¹⁾ 再確認할 수 있다. 발

215) 《日本逸史》 34, 天長 3년 3월 戊辰

216) 《日本後紀》 4, 延曆 15년 5월 丁未

217) 《日本後紀》 5, 延曆 15년 10월 己未, 壬申

218) 《日本後紀》 7, 延曆 17년 12월 壬寅 ; 《같은 책》 8, 延曆 18년 4월 乙丑

219) 石井正敏, 1995 <光仁·桓武朝の日本と渤海> 《日本古代の傳承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445 ; 金宗福, 2008 <8~9世紀 渤海와 日本의 外交的 葛藤과 解消> 《韓國史學報》 33

220) 吉林省考古文物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2009-6

해가 8세기 중반 이후 일본과의 교류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입장을堅持하면서 자신들의 상업적 利益을 追求하였던 것이다.

結論

이상에서 5개 주제를 중심으로 7~9세기 한일관계사의 전개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한다. 먼저 제1장 삼국통일전쟁기 삼국과 왜(일본)와의 관계에선, 백(촌)강구 전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백강구 전투 양상을 살폈다. 백강구 전투는 해전인데, 신·당 동맹군의 해군은 그 주력이 당군이였다. 그래서 그간 일본학계에선 이 전투를, 나아가 백제부흥전쟁을 기본적으로 당군과 왜군의 대결로 파악하였고, 신라군은 부수적인 존재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는 백강구 전투에만 초점을 두어 기술한 《日本書紀》의 기사에 일방적으로 의존한 데서 비롯한 편향적인 이해이다. 당시 전황을 보면 백강구 전투는 백제부흥군의 본거지인 주류성 공략전의 일환으로 벌어졌던 싸움이었다. 주된 戰場은 주류성이었으며, 신·당 동맹군의 주력은 육군이었고 주류성 공략전에 투입되었다. 육군의 중심은 신라군이였다. ‘부수적이고 약한 신라군’이라는 인식은 그 뒤 시기의 신라와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주었다.

한 차례 왜국과 전쟁을 벌였던 신라는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직전 왜국에 사신을 보내어, 극적인 화해와 국교 재개를 하였다. 신라로선 唐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배후의 적대 세력인 왜국과의 화해가 꼭 필요하였고, 왜국도 663년 백강구 전투 이후 신·당 동맹군의 일본열도 침공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의 제의에 호응하였다. 669년 신·당전쟁이 개전된 이후, 신·일관계는 신·당전쟁의 추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전개되었다.

제2장 7세기 중반~8세기대의 신라·일본관계에서는, 676년 신·당전쟁이 종결된 이후 8세기 후반 신라와 일본 간의 국교가 단절되기까지의 기간에 전개되었던 한일관계를 살폈다. 676년 신·당전쟁이 종결된 이후 7세기 말까지 신라와 일본은 당과의 교섭이 사실상 두절된 채로 당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그런 만큼 신라와 일본은 상호 협조와

221) 宋基豪, 1995 <渤海國의 位相> 《알 책》 178~199

교류를 필요로 하였다. 특히 신라는 당과 직접 대결을 벌인 바 있고, 676년 이후에도 당이 신라 침공 의지를 견지하고 있었으므로, 군비 강화와 함께 일본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주력하였다.

한편 이 기간 중 신라와 일본은 모두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의 구축에 진력하였다. 唐의 制度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이른바 율령체제를 구축한 일본은 신라를 蕃國으로 상정하고 그에 따른 儀禮와 의무를 신라에 강요하였다. 하지만 신라는 일본을 어디까지나 隣國으로 여겼다. 단 신라는 당시 당의 침공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었던 만큼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 양국은 표면적으로는 빈번히 우호적인 교류를 하였지만, 그 裏面에서는 ‘隣國과 蕃國의 同床異夢’에 따른 갈등의 요소가 깔려 있었다.

698년 발해가 건국되고 급속히 성장해 나갔다. 아울러 702년과 703년에 일본과 신라가 각각 당과 국교를 재개하였고, 당과 신라 간에는 빈번한 교류가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 진전에 따라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지형이 크게 달라졌다. 신라와 당은 734년 발해를 상대로 한 공동 군사작전을 행하였고, 735년 당이 신라의 대동강 이남 지역 병합을 공식적으로 승인함에 따라, 양국 관계는 더욱 공고히 되었다. 이는 곧 오랫동안 신라를 압박해온, 당과 일본에 의한 협공 가능성이란 惡夢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자연 그에 따라 신라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위치는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신라는 기존 양국 관계에 변화를 요구하였고, 그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였다. 양국 간의 갈등은 몇 차례 외교적 분쟁을 거쳐 마침내 8세기 후반 단교로 이어지게 되었다.

제3장 7~9세기 한일 간의 문화 교류에서는 율령과 불교문화를 소재로 한국의 고대국가들과 왜(일본) 간 교류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먼저 삼국의 율령에 대해 살펴보면, 6세기 초반에 신라가 율령을 반포하였다는 삼국 사기의 짧은 언급은 사실성을 지닌 것이며, 신라국가의 성장과 함께 율령이 보다 많이 갖추어져 갔음이 확인된다. 백제의 경우, 목간 자료를 통해 백제 율령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백제 율령이 일본 대보령의 일부 조항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동아시아 역사권 내에서 중국-한국-일본으로 이어지는 율령 문화의 확산과정과 각국의 율령문화의 동질성 및 차이성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겠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삼국의 율령이 중국의 남북조 및 隋·唐의 율령과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다시 일본의 율령이 이와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되겠다.

양측 간에 행하여진 불교문화의 교류에 대해서는, 6세기 이후 8세기 대에 걸쳐 양 지역 간에는 불교문화와 불교 승려의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삼국과 통일기 신라의 불교문화가 고대 일본의 불교문화에 깊은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 때 행해진 교류의 결과물이 일본에 적지 않게 남아 전하는데, 그것을 통해 역으로 삼국과 통일신라 불교문화의 일면을 더듬어 볼 수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최근 저자가 백제인 慧均이란 사실이 밝혀져 한국 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大乘四論玄義記”이다. 그 외에도 그간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저술이라 알려져 왔던 몇몇 불교 서적이 실은 신라인의 저술임이 밝혀진 것들이 있다. 또한 이 시기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불교 서적(元曉의 저술인 判比量論)에 角筆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현재 일본의 訓讀点의 일종인 ‘오토코’ 点의 원류가 신라에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제4장 8세기 발해와 일본 관계에서는 8세기 중엽 일본 조정이 취한 신라 침공계획을 중심으로 양국 간의 교섭 관계를 살폈다. 727년에 시작된 발해와 일본 간의 교섭은 8세기 중엽 활기를 띠었다. 일본이 신라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책으로 발해와 동맹을 맺어 남북에서 신라를 협공하려는 계획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발해가 이 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였던가 등을 살펴보았다. 발해는 처음부터 일본의 계획에 소극적이었다고 여겨진다.

그 이후에도 발해와 일본 간에는 교섭이 이어졌는데, 양측 간의 외교의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나 곧 渤海가 日本이 要求하는 外交儀禮 形式을 受容하고, 日本은 발해의 朝聘 期限의 短縮 要求를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간의 妥協點을 찾았다. 이런 타협의 배경에는 8세기 중반 이후 對日外交의 目的을 貿易 利益 追求에 두는 渤海의 政策 變化가 깔려 있었다. 당시 발해가 ‘外王內帝’를 지향하였는데, 8세기 중반 이후 일본과의 교류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입장을 堅持하면서 자국의 상업적 利益을 追求하였던 것이다.

7~9세기는 和戰 양면에 걸쳐 한일 양측의 고대국가들 간에 교섭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한일관계사에서 독특한 일면을 나타내었던 시기였다. 이번 이 시기 한일관계사에 대한 공동 연구가 기존 역사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역사인식을 양국인 사이에 함양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崔文昌侯全集》
《隋書》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唐大詔令集》
《文館詞林》
《全唐文》
《日本書紀》
《續日本紀》
《令集解》
《三國佛法傳統緣起》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國立羅州文化財研究所,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2009 《羅州 伏岩里 遺蹟 出土 木簡》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9 《궁남지》
權惠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 - 遣唐使研究 - 》 (一潮閣)
卞麟錫, 1994 《白江口戰爭과 百濟·倭 關係》 (한울)
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盧泰敦, 1999 《高句麗史研究》 (사계절)
盧泰敦, 2009 《三國統一戰爭史》 (서울대학교출판부)
延敏洙, 2003 《古代韓日交流史》 (혜안)
崔鈺植, 2009 《校勘 大乘四論玄義記》 (佛光出版社)
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 (신서원)
韓容根, 1999 《高麗律》 (서경문화사)
拜根興, 2003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井上光貞 等校注, 1976 《律令》 (岩波書店)
鳥山喜一, 1968 《渤海史上의 諸問題》 (風間書房)
山本孝文, 2006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研究》 (서경)
森公章, 1998 《『白村江』 以後》 (講談社)
石田瑞麿, 1983 《日本佛教史》 (岩波書店) 李永子 譯, 1988 (民族社)
岸俊男, 1969 《藤原仲麻呂》 (吉川弘文館)
L. I. Alibaum, 1975 *Zivopisi Afraciaba, Tashikent*
姜鳳龍, 1992 <三國時期的 律令과 民의 存在形態> 《韓國史研究》 78
具蘭憲, 1999 <8세기 중엽 발해·신라·일본의 관계 - 일본의 신라침공계획을 중심으로 - > 《韓日關係史研究》

- 金起燮·金鎮光, 2007 <渤海의 上京 建設과 遷都> 《韓國古代史研究》 45
- 金秉駿, 2009 <樂浪의 文字 生活> 《古代 文字資料로 본 東亞細亞의 文化交流和 疏通》 (동북아역사재단)
- 金相鉉, 1996 <『錐洞記』와 그 異本 『華嚴經問答』> 《韓國學報》 84
- 金聖範, 2009 <羅州 伏岩里 遺蹟 出土 百濟木簡과 其他 文字 關聯遺物> 《百濟學報》 創刊號
- 金聖範, 2009 <羅州 伏岩里 遺蹟 出土 百濟 木簡> 《古代的 木簡, 그리고 山城》 (國立文化財研究所 40年, 韓國博物館開館100周年 紀念 學術심포지움 發表文)
- 金成哲, 2007 <‘大乘四論玄義記’는 백제에서 찬술되었나? - 崔鉉植 教授의 百濟 撰述說에 대한 反論 -> 《韓國史研究》 137
- 金龍善, 1982 <新羅 法興王代의 律令頒布를 둘러싼 몇 가지 問題> 《加羅文化》 1
- 金元龍, 1976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알 宮殿壁畫의 使節圖> 《考古美術》 129·130
- 金元龍, 1984 <古代韓國과 西域> 《美術資料》 34
- 金恩淑, 1996 <百濟復興運動 以後 天智朝의 國際關係> 《日本學》 15
- 金正基, 1982 <新羅伽藍配置와 日本에의 影響>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3
- 金宗福, 2008 <8~9世紀 渤海와 日本의 外交의 葛藤과 解消> 《韓國史學報》 33
- 金昌錫, 2004 <8세기 신라 일본 간 외교관계의 추이 - 752년 교역의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 《歷史學報》 184
- 金昌錫, 2007 <新羅 縣制의 成立과 機能> 《韓國古代史研究》 48
- 南豐鉉, 2005 <韓國古代史讀文의 文末語助辭 ‘之’에 대하여> 《口試研究》 15
- 盧重國, 1979 <高句麗 律令에 關한 一試論> 《東方學志》 21
- 盧重國, 2009 <百濟의 救恤·賑貸 정책과 ‘佐官貸食記’ 木簡> 《白山學報》 83
- 盧泰敦, 1981 <渤海 建國의 背景> 《大丘史學》 19
- 盧泰敦, 1989 <高句麗·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涉에 關한 研究> 《大東文化研究》 23
- 盧泰敦, 1989 <蔚珍 鳳坪碑와 新羅의 官等制> 《韓國古代史研究》 2
- 盧泰敦, 1997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 《軍事》 34
- 盧泰敦, 2003 <三國史記에 登場하는 靺鞨의 實體> 《韓半島와 滿洲의 歷史 文化》 (서울대학교출판부)
- 朴南守, 1996 <統一新羅 寺院成典과 佛寺의 造營體系> 《東國史學》 28 ; 1996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재수록
- 박진옥, 1988 <쏘련 싸마르칸트 아흐라샤브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8년 3기
- 朴泰祐·鄭海濬·尹智熙, 2008 <扶餘 雙北里 280-5番地 出土 木簡 報告> 《木簡과 文字》 2
- 朴泰祐, 2009 <木簡資料를 통해 본 泗泚時代의 空間構造 - ‘外掠部’ 銘 木簡을 中心으로 -> 《百濟學報》 創刊號
- 宋基豪, 1996 <불교와 기타신앙> 《한국사 10, (발해)》 (국사편찬위원회)
- 宋浣範, 2006 <8세기 중엽 ‘新羅征討’ 계획으로 본 古代 日本의 對外方針> 《韓日關係史研究》 25
- 徐榮教, 2002 <羅唐戰爭과 吐蕃> 《東洋史學研究》 79
- 尹善泰, 2000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 - 新羅 古文書와 木簡 分析을 中心으로 -》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尹善泰, 2000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韓國史研究》 108
- 尹善泰, 2003 <新羅 中代의 刑律 - 中國律令 受容의 新羅의 特質과 關聯하여> 《講座 韓國古代史 3》
- 尹善泰, 2006 <百濟 泗泚都城과 岨夷 - 木簡으로 본 泗泚都城의 안과 밖 -> 《東亞考古學論叢》 2

(忠清文化財研究院)

- 尹善泰, 2007 《木簡이 들려주는 百濟 이야기》 (주류성)
- 李昉燮·尹善泰, 2008 <扶餘 雙北里 현대들·北浦 遺跡 調査成果> 《木簡과 文字》 創刊號
- 李京燮, 2009 <新羅 月城 塚子에서 出土한 ‘2號 木簡’에 대하여> 《韓國古代史 研究의 現段階 -石門 李基東教授 停年 紀念 論叢-》
- 李基東, 1978 <新羅 官等制度의 成立年代 問題와 赤城碑의 發見> 《歷史學報》 78
- 李基東, 1980 <新羅 中代의 官僚制와 骨品制> 《震檀學報》 50
- 李炳鎬, 2008 <扶餘 陵山里 出土 木簡의 性格> 《木簡과 文字》 創刊號
- 李鎔賢, 1999 <扶餘 宮南池 出土 木簡의 年代와 性格> 《宮南池》
- 李鎔賢, 2008 <佐官貸食記와 百濟의 貸食制> 《百濟木簡》 (國立扶餘博物館)
- 李佑成, 1989 <高麗土地·課役關係 ‘判·制’에 끼친 唐令의 影響 -新羅 律令國家說의 檢討를 兼하여-> 《大東文化研究》 23
- 李宇泰, 1989 <新羅時代의 結負法> 《泰東古典研究》 5
- 李宇泰, 2002 <古代度量衡制의 發達> 《講座 韓國古代史》 6
- 李宇泰, 2005 <金石文을 통하여 본 漢字의 導入과 使用> 《韓國古代史研究》 38
- 李泳鎬, 1983 <新羅 中代 王室寺院의 官寺的 機能> 《韓國史研究》 43
- 李漢祥, 1997 <5~7世紀 百濟의 帶金具> 《古代研究》 5
- 張慶浩, 1993 <百濟와 日本의 古代 寺刹建築> 《百濟史의 比較研究》
- 田鳳德, 1956 <新羅律令攷> 《서울大論文集》 4
- 鄭炳三, 2002 <古代 韓國과 日本의 佛教 交流> 《韓國古代史研究》 27
- 鄭孝雲, 1993 <天智朝 對外關係에 대한 一考察 -백강구진후의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 學報》 14
- 朱甫墩, 1984 <新羅時代의 連坐罪> 《大邱史學》 25
- 朱甫墩, 1989 <蔚珍 鳳坪碑新羅碑와 法興王代의 律令> 《韓國古代史研究》 2
- 朱甫墩, 1993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 內政> 《韓國學論集》 20
- 朱甫墩, 1998 <鳳坪碑 段階의 外位制整備>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 蔡尙植, 1984 <新羅統一期의 成典寺院의 機能과 構造> 《釜山史學》 8
- 崔鉉植, 2001 <‘大乘起信論同異略集’의 著者について> 《駒澤短期大學佛教論集》 7
- 崔鉉植, 2002 <新羅 見登의 著述과 思想傾向> 《韓國史研究》 115
- 崔鉉植, 2005 <8세기 新羅佛教의 動向과 東아시아 佛教界> 《佛教學研究》 12
- 崔鉉植, 2006 <新羅佛教 文獻으로서의 “起信論一心二門大意”> 《佛教學研究》 13
- 崔鉉植, 2007 <百濟 撰述 文獻으로서의 ‘大乘四論玄義記’> 《韓國史研究》 136
- 崔鉉植, 2007 <‘大乘四論玄義記’ 百濟 撰述 再論 -金成哲 教授의 反論에 대한 批判-> 《韓國史研究》 138
- 洪普植, 2004 <日本出土 新羅土器와 羅日交涉> 《韓國上古史學報》 46
- 洪承佑, 2004 <新羅律의 基本性格 -刑罰體系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50
- 洪承佑, 2009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 지배> 《韓國古代史研究》 55
- 吉林省考古文物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 發掘簡報> 《考古》 2009년 6호
- 陳寅恪, 1944 <外族盛衰之連環性及外患與內政之關係> 《唐代政治史述論考》 (1982, 上海古籍出版社)
- 黃約瑟, 1997 <武則天與朝鮮半島政局> 《黃約瑟隋唐史論集》

- 犬飼隆, 2006 <日本語を文字で書く> 《列島の古代史6-言語と文字-》, (岩波書店)
- 寛敏生, 1989 <百濟王姓の成立と日本古代帝國> 《日本史研究》 317
- 鬼頭清明, 1976 <白村江の戦いと律令制の成立> 《古代日本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 東野治之, 1977 <鳥毛立女屏風下貼文書の研究>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塙書房)
- 東野治之, 1977 <正倉院麩の墨書と新羅の對外交渉>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塙書房)
- 藤本幸夫, 1996 <古代朝鮮の言語と文字文化> 《日本の古代 14》 (中央公論社)
- 武田幸男, 1974 <新羅法興王代の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舎)
- 武田幸男, 1978 <朝鮮の律令制> 《岩波講座 世界歴史 6》 (岩波書店)
- 北村秀人, 1982 <朝鮮における律令制の變質>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7》 (學生社)
- 山本孝文, 2009 <考古學으로 본 三國時代の 官人> 《韓國古代史研究》 54
- 森公章, 1992 <朝鮮半島をめぐる唐と倭-白村江 會戰前夜> 《古代を考える唐と日本》 (吉川弘文館)
- 三上次男, 1941 <新羅東北境外における黒水鐵勒達姑の諸族に就いて> 《史學雜誌》 52-11
- 三上喜孝, 2006 <文書様式‘牒’の受容をめぐる一考察> 《山形大學 歴史・地理・人類學論集》 7
- 三上喜孝, 2008 <日本 古代의 木簡의 系譜> 《木簡斗 文字》 創刊號
- 三上喜孝, 2009 <古代東アジア出舉制試論>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 (雄山閣)
- 小林芳規, 2002 <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 《朝鮮學報》 182
- 小林芳規, 2002 <韓國의 角筆點斗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口訣研究》 8
- 小川裕人, 1937 <三十部女眞に就いて> 《東洋學報》 24-4
- 石母田正, 1989 <天皇と諸蕃> 《石母田正著作集 4》
- 石上英一, 1979 <律令法國家(1)> 《歴史研究》 222・223
- 石田公成, 1985 <‘華嚴經問答’の著者> 《印度學佛教學研究》 66
- 石田茂作, 1930 《寫經より見たる奈良朝佛教の研究》 (東洋文庫)
- 石井正敏, 1995 <光仁・桓武朝の日本と渤海> 《日本古代の傳承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 石井正敏, 2001 <初期日本・渤海交渉における一問題>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松田好弘, 1980 <天智朝の外交について> 《立命館文學》 415・416・417
- 新川登龜男, 1988 <日羅間の 調(物産)の意味> 《日本歴史》 481
- 新川登龜男, 1999 <日羅間の 調> 《日本古代の對外交渉と佛教-アジア中の政治文化》 (吉川弘文館)
- 愛宕邦康, 1944 <‘遊心安樂道’の撰述者に關する一考察-東大寺華嚴僧智憬とその思想的關聯に着目して-> 《南都佛教》 70
- 鈴木英夫, 1997 <百濟復興運動と倭王權-鬼室福信斬首の背景->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 韋蘭春, 2000 <‘白村江の戦’と戦後の唐・日關係>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紀要》 85
- 伊藤隆壽, 1969 <慧均‘大乘四論玄義’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36
- 伊藤隆壽, 1971 <‘大乘四論玄義’の構成と基本的 立場> 《駒澤佛教學部論集》 2
- 伊藤隆壽, 1974 <慧均‘大乘四論玄義’について(二)> 《印度學佛教學研究》 40
- 伊藤隆壽, 1974 <‘大乘四論玄義’逸文の整理> 《駒澤佛教學部論集》 5
- 李成市, 1990 <高句麗と日隋外交> 《思想》 795 ;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 李成市, 1998 <正倉院所藏新羅麩貼布記の研究-新羅・日本間交易の性格をめぐる->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 李成市, 2005 <朝鮮の文書行政> 《文字と古代日本 2》 (吉川弘文館)
- 林紀昭, 1994 <高句麗の律令> 《古代 東亞細亞의 再發見》 (湖巖美術館)

- 林紀昭, 1967 <新羅律令に關する二・三の問題> 《法制史研究》 17
- 井上光貞, 1973 <大化改新と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歴史 2》(岩波書店)
- 酒寄雅志, 2001 <渤海國家の史的展開と國際關係> 《渤海と古代の日本》(校倉書房)
- 酒寄雅志, 2001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 《渤海と古代の日本》(校倉書房)
- 中井眞孝, 1994 <高句麗佛教と日本の古代> 《朝鮮と日本の古代佛教》(東方出版)
- 直木孝次郎, 1985 <近江朝末年における日唐關係の一考察-唐使郭務悰の渡來を中心に-> 《末永先生米壽紀念獻呈論文集》
- 秦政明, 2000 <『三國史記』倭國更號日本の史料批判> 《日本書紀研究》 23 (塙書房)
- 八木充, 1970 <百濟の役と民衆> 《國史論集》(小葉田淳教授退官紀念會出版)
- 和田軍一, 1924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 《史學雜誌》 35-10・11
- 穴澤和光・馬目順一, 1976 <アフラミヤブ都城址出土壁畫に見られる朝鮮人使節について> 《朝鮮學報》 80
- 横超慧日, 1958 <新出資料 四論玄義の初章中假義> 《印度學佛教學研究》 13
- Jorg Plassen, 2007 “On the significance of the Daeseung saron hyeunui gi大乘四論玄義記 for research on early Korean Buddhist thought -Some initial observations focusing on hwajaeng” 《韓國史研究》 136